

존 칼빈(John Calvin)의 교리교육론에 관한 연구

- 『신앙교육서』의 교리 해석 및 실천 방법론에 따른
현대 교육목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오우성 · 이규민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12월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 학 과

정 준 모

정준모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정 중 호



부심 오 우



부심 이 규



부심 정 일



부심 권 용



제 명 대 학 교 대 학 원

2002년 12월

감사의 말씀

칼빈은 개혁 신학의 진정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1세기 한국 교회의 작은 목회자인 나에게도 참다운 교사이며 스승으로서의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한 이후, 바울과 칼빈의 신학과 목회 철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계명 대학교에서 교육신학과 영성신학을 전공하면서 칼빈에 대하여 소논문을 쓰기 시작하였고 결국 학위 논문까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신학의 기본 틀을 세워주시고 학업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신 이규민 박사님, 너무나 자상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논문을 교정하여 주신 오우성 박사님, 논문 심사 위원장으로 인격적 격려와 학문적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정중호 박사님, 칼빈의 교육신학의 안목을 깨우쳐 주신 정일웅 박사님, 알찬 논문이 되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신 권용근 박사님, 영성 신학에 대한 새로운 안목의 지평을 열어주신 반신환 박사님, 딱딱하게 느껴지는 철학 전공인과는 달리 풍성한 인간미로 논문을 살피 주신 철학과 김용일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학업을 하기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성서 지역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논문을 쓰기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의 목회에 있어서 꿈의 현장이요, 젊음과 땀과 눈물을 바친 성명 교우들에게 이 논문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 동역자들과 기도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작은 연구가 개혁주의 교회의 교육 목회 현장에 작은 불꽃이 되길 소망합니다.

2002년 12월

정 준 모

목 차

I. 서 론	1
A. 문제 제기	1
B. 연구 목적 및 과제	3
C. 선행 연구	7
D.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9
E. 연구의 한계	11
II. 존 칼빈의 『신앙교육서』 작성 배경 및 발전 역사 고찰	13
A. 『신앙교육서』의 개념과 역사적 고찰	13
B. 칼빈의 『신앙교육서』의 작성 배경	16
1. 칼빈의 『제 1차 신앙교육서』	16
2. 칼빈의 『제 2차 신앙교육서』	21
C. 칼빈의 『신앙교육서』의 신학적 비교	26
D. 개혁교회의 『신앙교육서』 발전 역사	30
1. 『신앙교백서』와 『신앙교육서』 문헌들	30
2. 개혁교회의 『신앙교육서』의 내용과 역사적 의미	32
III. 『신앙교육서』의 교리 분석과 신학적 해석	37
A.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	37
1. 인간 존재의 목적	37

2. 참된 종교의 기초인 경건	38
3. 하나님에 관한 지식	40
4.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형상 파괴	42
5. 자유 의지	43
B. 하나님의 율법과 삶	44
1. 율법의 용도들	44
2. 십계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45
3. 칭의와 자유	47
4. 제 3의 자유	50
5. 성령과 자유	51
C. 신앙	52
1. 선택의 목회적 동기	52
2. 선택과 소명	53
3. 믿음에 대한 자세	55
4. 믿음과 이신칭의	56
5.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소망	58
D. 사도신경	60
1. 사도신경과 삼위일체	60
2. 칼빈의 기독교론	61
E. 기도	65

1. 기도와 믿음	65
2. 기도의 필요성	67
3. 기도의 규칙들	68
4. 주기도문	69
F. 세례와 성찬	73
1. 교회의 표지로서의 성례	73
2. 칼빈의 성례관	74
3. 세례	75
4. 성찬	77
G. 교회의 본질과 표징들	79
1. 칼빈의 교회론	79
2. 교회 처리	80
3. 관원과 시민 정부	82
4. 국민의 책임	83
IV. 칼빈의 교리교육론의 교육신학적 해석	86
A. 『신앙교육서』 중심의 교리교육론	86
1. 『신앙교육서』의 집필 목적	87
2. 교육의 기초로서의 교리	92
3. 교리교육의 삼 단계	95
4. 『신앙교육서』와 교육과정	98

B. '하나님 학교' 교회론	102
C. 하나님의 조절교육론	112
D. 교리설교론	125
E. '가나다' 기초 교리교육론	128
V. 『신앙교육서』를 통한 칼빈의 교리교육 현장 이해	135
A. 가정과 교리교육	135
1. 칼빈의 가정교육관	136
2. 가정교육의 핵심으로서의 교리	140
3. 사랑과 훈육의 교육 원리	145
4. 가정과 교회의 상호 관계적 교육	149
B. 교회와 교리교육	151
1. 『신앙교육서』를 통한 교리교육	152
2. 설교를 통한 교리교육	158
3. 치리를 통한 신앙교육	164
C. 학교와 교리교육	172
1. 예배와 교리교육 시간을 통한 교육	172
2. 교사의 모범적 삶을 통한 교육	175
3. 학교와 교회의 협력을 통한 교육	178
VI. 칼빈의 교리교육론의 현대 교육목회에의 적용 가능성	180
A. 현대 교육적 적용의 유용성	180

1. 성경에 관한 기초 교리 자료	180
2. 기초 신앙관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자료	181
3. 성경해석의 기본 원리와 방향 제공	182
4. 삶의 기본적인 원리와 지침서로서의 역할	183
B. 현대 교육적 적용의 공헌 가능성	184
1. 신앙교육 교재로서의 공헌 가능성	184
2. 『신앙고백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186
3. 예전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189
4. 기도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191
5. 교리설교 자료로서의 공헌 가능성	193
6. 목회 상담 안내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196
7. 변증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198
8. 치리교육의 모형으로서의 공헌 가능성	201
9. 전도와 선교문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203
C. 현대 교육적 적용의 한계성	205
1. 언어의 낙후성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205
2. 교육 내용의 다양성 결핍	206
3.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요청	207
4. 하나님 나라 실현 방안 제시 미흡	211
5. 신앙공동체 교육 결여	213

Ⅶ. 결론	215
A. 요약 및 결론	215
B. 제언	222
참 고 문 헌	225
영 문 초 록	233
국 문 초 록	238

약 어 표

- CO* *Ioannis Calvini Oper Quae Supersunt Omnia*. Eds. Wilhelm Baum, Edward Cunitz, and Edward Reuss. Braunschweig: Schwetschke, 1863-1900.
- Comm* *Calvin's Commentaries*. 42 Vols. Eds. David F.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72.
- CR* *Corpus Reformatorum*. Eds. Wilhelm Baum, Edward Cunitz, and Edward Reuss. Braunschweig: Schwetschke, 1863-1900
- Inst*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and Trans. Ford Lewis Battles. 2 Vol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 LCC* *Theological Treatis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Series. Vol. 22. Ed. J. K. S. Reid. Philadelphia: Westminster, 1954.
- OS*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s. Peter Barth, Wilhelm Niesel, and Dora Scheuner. Munich: Christian Kaiser Verlag, 1926-1952.
- SC* *Supplementa Calviniana Sermons Inédits*. Ed. Erwin Mülhaupt.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36.

I. 서론

A. 문제제기

최근 기독교 교육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기독교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의 문제이다. 이것은 곧 신학과 사회과학과의 상호관계성에 관한 문제¹⁾로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입장들이 있다. 첫째는, 기독교 교육학을 응용신학의 한 영역으로 보는 입장을 거부하고 실천신학으로서 학문적 특수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이다. 둘째는, 교육 내용은 신학에서 교육 방법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차용함으로써 종합적인 연구 방법을 통하여 기독교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셋째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 기존의 교육 형태는 물론 실천적 차원의 교회 전통까지 비판적으로 재조명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는 접근 방법 등이다.²⁾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과 신학원리에 따라야 할 개혁주의 교회가 이러한 이론들에 대한 신학적 검증도 없이 이 이론들을 무비판으로 수용함으로써 인하여 개혁주의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현대 기독교 교육에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접목이 순기능적 역할을 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기독교 교육의 근간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를 경시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교리는 마치 건축물의 기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적 방법의 무분별한 수용과 시대풍조에 따른 감성 위주의 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다.³⁾ 개혁주의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교리

1) Randolph C. Miller, 『기독교 종교교육과 신학』, 고용수, 박봉수 공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11.

2) 강희천, 『기독교 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3-15.

3) 정준모, "왜 교리교육인가?", 『복음과 교육』 60(1) (2002): 6-11.

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신앙적 체계를 세우며, 세대간 신앙의 근본 진리를 전수하며, 성경해석의 기본 열쇠가 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지침과 방향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리교육의 중요성은 경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⁴⁾

한국교회가 7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지만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교육과 기초 신앙교육을 외면한 나머지 마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처럼 교회의 신앙적 기초가 약화되고 말았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어 버리고 성경적이고 균형을 갖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 버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 현상을 개혁주의 교육신학적 측면에서 진단해 볼 때, 성장 일변도의 목회를 지양하고 신앙의 기본 진리부터 뿌리를 잘 내려 신앙 성숙 위에 기초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리교육이 절실히 요청됨을 알 수 있다.

“교회에서 교리교육이 사라질 때, 교회는 멀지 않아 무지가 만연하여 어둡게 될 수밖에 없다”⁵⁾고 지적한 것처럼 교회는 『신앙교육서』와 『신앙고백서』 등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더욱이 현재 한국교회의 시대적 양상은 마치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과 같아서 또 다른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곧 종교개혁 당시 『신앙교육서』가 그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절대 필요한 교육서가 되었듯이, 오늘날에도 개혁주의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앙교육서』에 대한 재인식과 아울러 현대 교육적 적용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교리교육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표적 인물이 칼빈이며, 교리교육의 집합체가 바로 칼빈의 『신앙교육서』⁶⁾이다. 이 책은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

4)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여수문, 1999), 411-416.

5) Donald Van Dyken, *Rediscovering Catechism* (New Jersey: P&R, 2000), 8-9.

6) John Calvin의 『제 1차 신앙교육서』 (*Instruction in Faith*)를 한국어로 번역한 책들로 는 『신앙입문』, 최도형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갈방의 요리문답』,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진, 1995); 『신앙교육서』,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등이 있다. 또한 John Calvin의 『제 2차 신앙교육서』인 『제네바 신앙교육서』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가 번역되어 편집 수록된 책은 정일웅, 『종교개혁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7);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서울: 성광문화사, 1998) 등이 있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저자명을 생략하고 『제 1차 신앙교육서』를 줄여서 『신앙교육서』로 표기하기로 함.

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신앙의 책이다. 또한 이 책은 개혁신교회가 세워지는 선교 현장과 목회 현장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책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가 높이 인정되고 평가되어 왔다. 그 이유는 교리교육에 있어서 『신앙교육서』가 신앙교육의 입문 역할, 교회 지도자의 무지와 결함 보완, 거짓 교리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장로교회들은 개혁신교회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신교회 신앙의 요체가 담긴 『신앙교육서』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전통에 따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심으로 학습 및 세례자를 위하여 성례식을 행하기 전, 단회적으로 단답형의 암기식 위주의 교육만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 한국교회는 바른 신앙고백과 바른 삶의 역동적 관계성을 이끌어주는 교리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교육의 기초적 장인 가정에서조차 기본 교리교육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신앙교육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마저 교리교육이 외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육신학의 기틀을 마련한 칼빈의 교리교육 사상과 원리를 새롭게 찾아내어 혼란 속에 있는 한국교회의 교육신학과 교육목회 현장에 새로운 지표와 방향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B. 연구 목적 및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칼빈의 『신앙교육서』에 담긴 교리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교육 시켰는가를 성찰하며, 그의 교육 방법론에 나타난 교리교육 사상을 분석한 후, 그의 교리교육론이 오늘날 적용될 때, 그 가능성과 한계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현금의 한국 교회 교육 목회에 어떠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신학적 통전성과 교육적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목회 원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개혁주의 교육신학의 근거를 이룬 칼빈의 목회 사역에 대한 교육신학적 접근이 요청된다.

필립 볼머(Philip Vollmer)가 칼빈의 생애와 활동에 관한 책을 저술하면서, 그를 가리켜 『존 칼빈: 신학자, 설교자, 교육자, 정치가』⁷⁾라고 명명하였듯이, 칼빈의 사역 활동과 그 범위는 폭넓고 광범위하였다. 그러나 개혁자와 신학자로서의 칼빈에 대한 극찬과 명성 때문에 실천 신학자요 실천 목회자로서의 업적과 공헌은 과소평가 되어 왔다. 칼빈의 모든 사역을 살펴 볼 때, 개혁자와 신학자로서의 업적 이상으로 교육자로서의 그의 사상과 업적은 괄목할만한 것이다.

칼빈 연구의 대가 존 맥닐(John T. McNeill)은 『존 칼빈: 교회의 교사』라는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그는 지상 교회의 위대한 교사로서 4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의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⁸⁾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칼빈의 교육학자로서의 업적을 매우 중시하고 세계 교육사에서 칼빈을 코메니우스(Comenius), 페스탈로치(Pestalozzi), 그리고 존 듀이(John Dewey)와 같은 세계적인 교육학자의 반열에 두어야 한다”⁹⁾는 교육학자 톰슨(M. Thompson)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만하다고 여겨진다.

칼빈은 개혁자로서 제네바 교회의 개혁은 물론 제네바에서 교육신학자로서 신학 문헌 저술에 몰두하였고, 또한 교육 실천가로서의 교육 목회 활동을 평생 동안 열정적으로 감당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연구한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은 루터와 칼빈을 비교하면서 “칼빈은 루터보다 신학 사상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고 신학 보다는 교육에 더 역점을 둔 사상가이며 실천가였다”¹⁰⁾는 언급은 칼빈이 교육신학자와 교육 목회자로 재평가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7) Philip Vollmer, *John Calvin: Theologian, Preacher, Educator, Statesman* (Philadelphia: The Heidelberg Press, 1909), 1.

8) Donald K. McKim,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21.

9) Merrit M. Thompson, *The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Barnes & Noble, Inc., 1951), 39.

10) Robert C. Johnson, *Authority in Protestant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9), 42.

칼빈 당시에는 교육학이나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학 내지 교육신학 자체만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글을 쓰거나 문헌을 저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신학자와 목회자로서의 사역과 업적들을 볼 때, 그가 결코 교회의 교육적 활동과 과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계획적으로 진행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제네바에서 그의 목회 활동과 종교개혁의 성공은 신앙교육에 기초한 교육 목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칼빈이 27세 나이에 쓴 '프로테스탄트의 대헌장'이라고 일컫는 『기독교강요』¹¹⁾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도 교육신학적 안목으로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 종전까지는 신학자들 사이에 『기독교강요』의 기록 목적을 두 가지 입장에서 이해해 왔다. 첫 번째는 기독교 기본 교리서로서의 기록 목적이요, 두 번째는 개혁신앙의 변증서로서의 기록 목적이다.¹²⁾ 그러나 『기독교강요』를 분석해 보면, 칼빈이 단순히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개괄적으로 요약하거나, 프란시스 1세의 박해 중지를 위한 변증서로의 목적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칼빈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 내용을 총체적으로 집약한 교육신학적 기본 구조와 틀을 가지고 기독교강요를 서술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교육 중심의 교회관 혹은 교회 중심의 교육관¹³⁾을 가지고 있다. 그의 설교, 주석, 서신, 제네바 아카데미 사역을 분석해 보고, 그의 『신앙교육서』와 『기독교강요』 그리고 그가 남긴 문헌들의 집필 배경, 목적, 내용 등을 살펴 볼 때, 그의 일관된 중심 사상은 교육을 통한 개혁, 교육적 설교관, 교육적 목회관에 집중되었음을 볼 수 있다.

-
- 11)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여러 명의 역자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그 중 번역의 정확성을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John Calvin,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를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Inst.'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함.
- 12) 김재성, "『기독교강요』의 두 지평,"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신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65.
- 13) 칼빈은 *Inst.*, 제 4권에서 교회를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학교'에 비유하였다. 또한 그는 디모데전서 5: 7절을 주석 하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 학교'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그의 종교개혁과 목회 사역을 현대적 의미의 교육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칼빈은 교회 자체를 '교육하는 교회'로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으로 정의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의 교육에 참여하는 곳이라는 교육 중심의 교회관¹⁴⁾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칼빈은 교육을 단지 교수-학습의 현상으로 축소된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목회 활동을 통한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경험들 즉, 설교, 성례, 치리 등도 모두 교육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고 진행시켰다. 또한 칼빈은 교육의 대상을 어린아이와 청소년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한 성화과정에서 교육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이해하였다. 또한 칼빈은 성숙한 교육목회 활동을 위하여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교육 목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더욱이 칼빈은 교육을 단순히 말씀에 대한 앎이라는 지적 영역뿐 아니라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전인적 교육을 위한 훈련과 치리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칼빈이 교회를 하나의 학교로 인식하고 신앙교육의 가장 큰 책임을 교회가 수행하도록 요청받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칼빈은 목회 사역에 있어서 신학과 교육을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하고 그 원리 속에서 교육 목회사역에 전념하였다.¹⁵⁾ 버슈벡(Bernhard Buschbeck)이 "칼빈의 신학적 저술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육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¹⁶⁾고 지

14) 칼빈의 교회론이 집약된 *Inst.*, 제 4권의 부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 부르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시는 외적 방법들과 도움들에 관한 글"이다. 이 부제에서 시사되는 바, 칼빈의 교회론은 신학적이기 보다 인간학적이며 더욱이 교육학적 관점과 연관하여 접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칼빈은 *Inst.*, 4. 1. 5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한 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케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주장하여 교회 교육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시키는 하나님 교육의 중요한 기관으로 보고 있다. 칼빈이 *Inst.*, 4. 1. 1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무릎에 그의 자녀들이 모이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교회의 수고의 봉사로 양육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의 어머니다운 돌봄으로 다스려지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그들이 성장하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말에서 이러한 그의 입장을 알 수 있다.

15) Robert White, "The School in Calvin's Thought and Practic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1(12) (1969): 9.

16) Karl Holl,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Tübingen: Der Westen, 1928), 273.

적한 것은 타당한 견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교육목회자와 교육신학자로서의 칼빈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이거나 다른 연구의 한 부류으로서 덧붙여진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신앙교육서』를 칼빈의 교육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교육 목회 기본 지침서로서 새롭게 조망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리교육을 위하여 재평가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앙교육서』의 교리 분석과 신학적 해석을 통해 칼빈의 교리교육론을 도출해 보고 그러한 교육론이 가정, 교회, 학교의 구체적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칼빈의 교리교육론을 오늘날의 교육목회에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한계성과 공헌 가능성이 있는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C. 선행 연구

칼빈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는 그의 신학에 관한 연구에 비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빈약한 편이다. 한국에서 칼빈에 관한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은 2001년 현재까지 약 150여 편이 있다. 그러나 그 중 칼빈의 교육사상에 관한 논문은 3편 정도이며¹⁷⁾ 이들 논문들마저도 교육신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기보다는 교육사적 연구 혹은 교회사적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1990년까지 정기 간행물에 기재된 칼빈에 관한 논문은 모두 91명의 학자들에 의하여 쓰여진 211편의 논문이 있었다. 그러나 칼빈의 제네바 교육 활동에 대한 논문은 교육 사상에 대하여 연구된 논문은 모두 10편 미만이다.¹⁸⁾ 또한 그 이후 현재까지 칼빈의 교육신학 사상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룬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2001년 현재 ATLA(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에 기재된 약 1,000여 편의 칼빈에 관한 논문 중에 교육적 측면에서 연구된 논문은 6편 정도가 있다. 그러

17) 강용원,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황성철,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육신학연구,” 총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이종한, “갈뱅의 인간이해와 기독교 교육,” 장로회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87.

18) 김광옥, 『한국 칼빈 자료 100년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3), 25-36.

나 이러한 논문도 거의 제네바 아카데미에 관한 역사적 연구이거나 교육 행정에 관한 연구 혹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이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세계적인 칼빈 연구소가 있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드 종(Peter DeJong)의 연구¹⁹⁾와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레이드(Stanford Reid)의 연구²⁰⁾를 들 수 있다.

미국의 학위 논문 발행 전문 기관인 UMI(*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에 기재된 최근 10년의 칼빈에 관한 학위 논문 중 조직신학 및 교회사적 논문은 약 30여 편이 있지만 교육에 관련된 논문은 3편 정도이다. 그 중 1편은 일반 대학교에서 쓴 노만 하퍼(Norman Edmond Harper)의 학위논문이다. 이 논문은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의 실존주의와 칼빈의 교육 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현대 교육학 관점에서 연구되었다.²¹⁾

다른 1편은 미국 남 침례교 신학교에 제출된 황성철의 학위 논문이다. 이 논문은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칼빈의 교육사상에 관하여 연구되었다.²²⁾ 그의 논문에서는 칼빈 문헌에 나타난 교육 활동과 사상이 잘 집약되었으나 칼빈의 『신앙교육서』 자체에 대한 교리적 분석과 신학적 해석에 따른 교리교육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다른 1편은 미국 뉴욕 대학교에 제출된 박상일의 학위 논문이다. 이 논문은 칼빈의 제네바 교육 목회에 대하여 역사적인 입장에서 약술하고 그 원리에 따라 미국 이민목회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논문이다.²³⁾

19) Peter Y. DeJong, "Calvin's Contributions to Christian Educa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4) (1967): 162-201.

20) W. Stanford Reid,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8(11) (1955): 1-33.

21) Norman Edmond Harper, "A Comparative Study of the Educational Information of the Thought of John Calvin and Søren Kierkegaard,"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1966), 126-205.

22) Sung Chul Hwang,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within A Calvinistic approach to theology," Ed. D. dissertation,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7), 208-249. 황성철은 그의 논문을 번역 및 수정하여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로 출간하였음.

23) Sang Il Park, "The Implication of John Calvin's Doctrine of Educ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in Korean-American Church," 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94), 169-207.

칼빈의 교육에 대하여 비교적 집중적으로 연구된 독일 책 중 라인홀드 헤트케(R. Hedtke)의 『칼빈의 교회 교육론』(*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이 있다. 이 책은 칼빈의 하나님의 구원교육, 교리와 교육, 제네바 실천 교육에 대하여 칼빈의 원전을 중심으로 비교적 잘 된 연구이다.²⁴⁾ 그러나 헤트케의 연구는 칼빈의 문헌에서 나타난 그의 교육 사상에 대한 글들은 잘 정리하였으나, 『신앙교육서』에 대한 교리적 분석과 신학적 해석은 연구하지 않았으며, 교육 목회의 관계성에 대한 언급도 매우 약하게 취급하였다. 한국에서 헤트케의 칼빈 교육론에 대한 연구가 총신대학원 교수인 정일웅, 장신대학교 교수인 양금희, 연세대학교 교수인 오인탁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²⁵⁾

이상의 선행 연구를 볼 때, 칼빈의 『신앙교육서』와 그의 목회 실천 과정에 나타난 교육원리 또는 교육신학을 분석적으로 재구성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칼빈의 교육신학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칼빈의 신학과 교리의 총체인 『신앙교육서』를 교리적으로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칼빈의 교리 교육의 실천의 장은 어디이며 그곳에서 어떻게 교리교육이 이루어졌는가를 연구함으로써 칼빈의 교리교육 사상을 정리하여 교리교육이 부재한 한국 개혁주의 교육신학을 재건하는 데 교육신학적 원리를 찾고자 한다.

D.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칼빈의 교리교육론을 분석하고 현대적인 적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교리의 총체이며 교리교육 지침서로 작성된 칼빈의 『신앙교육서』에 대한 교리적 분석과 신학적 해석, 그의 교리교육론에 대한 현대 교육신학적 해석, 교리교육 실천의 장인 가정, 교회, 학교 등의 교육 현장론에 대한 이해 및 현대 교

24) R. Hedtke,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 (Heidelberg: Quelle & Meyer, 1969), 98-132.

25) 헤트케가 연구한 칼빈의 교육사상을 한국교회에 접목을 시킨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일웅, 『교육목회학』(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7), 293-313;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 사상』(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203-209; 오인탁, “성례법의 구속교육학적 기능,” 『복된 말씀』 27(2) (1979): 57-62.

육적 평가와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문헌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칼빈의 신학과 교육 사상의 총체라고 불리우는 『신앙교육서』를 중심으로 그의 신학에 관한 총체적 분석과 교육적 주석을 통하여 그의 신앙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칼빈의 『신앙교육서』에 내포된 신학적 원리와 교육 목적과 내용으로 제네바 목회 현장에 행한 그의 설교, 주석, 법령, 서신 등 그의 문헌과 제네바 교회 목회 사역과 제네바 아카데미 활동 등에서 보여진 그의 교육 사상과 실천 원리들을 분석하고 개혁교회의 기독교 교육의 기초 원리와 방법론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칼빈의 교육신학 사상을 현대 교육 목회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구성해 봄으로써 현대 한국 장로교회의 교육목회가 신학적 통전성과 교육적 효율성을 견지할 수 있는 목회 방향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7장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과 범위 내에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를 제시한다. 또한 본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중심개념들에 대한 용어 정의를 내림으로써 연구의 논리적 명료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제 2장에서는 개혁교회의 신학적 기초요 기독교 교육의 기본 내용의 원초적 자료에 해당되는 칼빈의 제 1차, 2차 『신앙교육서』가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과 특성, 그리고 교육서의 작성 목적, 기본 형태, 교육 내용, 교육 특성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칼빈의 『신앙교육서』가 칼빈 이후 어떻게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에 미친 영향과 그 발전 역사를 간략하게 연구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교육 개혁으로 인식하고 집필한 『신앙교육서』에 나타난 교리가 무엇이며 이 교리에 대한 칼빈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칼빈의 목회 현장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그의 교리교육 사상들을 찾아 그가 의도하였던 교육 사상에 대하여 교육신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며 그의 교육론이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연구할 것이다.

제 5장에서는 칼빈의 교리교육 원리와 실천방법론에 관한 연구이다. 교육 목회자였던 칼빈이 교리교육의 실천의 장인 가정, 교회, 학교 등에서 어떻게 교리교육을 실천하였는지 그 방법론을 찾아 볼 것이다.

제 6장에서는 칼빈의 교리교육 원리, 사상, 방법을 현재 한국 교회와 교육 목회 현장에 적용해 볼 때, 한국 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며, 또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성과 제한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제 7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본 주요 논지들을 요약, 평가한 칼빈의 교육 사상 및 교육신학적 원리에 한국 교회의 교육 목회를 평가하고 전망한 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함으로 논문의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

E.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연구 방향, 연구 내용, 참고 문헌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이 필요하다. 첫째로 연구 방향에서의 제한이다. 칼빈에 관한 연구의 방법들은 다양하다. 이미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칼빈에 관한 다양한 접근 방법론, 즉 칼빈의 저서 원문 연구, 전기 연구, 사회적 정치적 연구, 교리적 및 신학적 연구, 성경해석학적 연구, 수사학적 및 문학적 연구가 아님을 밝혀 둔다. 본 연구는 이미 언급한 제연구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포괄적으로 자료를 참고하면서 특별히 칼빈의 교육 사상과 교육 목회에 관한 실천신학적 혹은 교육신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임을 밝혀 둔다.

둘째, 연구 내용에 있어서의 제한이다. 칼빈의 교육이론에 대한 접근 방법도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교육 철학적 접근, 교육 심리학적 접근, 교육 사회학적 접근, 교육 행정학적 접근, 교육 방법론적 접근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천신학의 한 방법론인 교육신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교육과 신학, 신학과 교육의 상관성을 연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참고 문헌의 제한이다. 본 연구가 칼빈의 원전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면 더 풍성하고 놀라운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칼빈학회나 구라파에서도 칼빈의 원본을 직접 연구하거나 현대어로 번역되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나 라틴어, 불어로 된 칼빈의 원전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미국과 한국에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칼빈의 자료를 세계에서 최대로 많이 소장하고 있는 '헨리 미터 센터'(Henry Meeter Center)의 도움을 받아 칼빈과 교육에 관한 자료를 거의 활용하였다. 또한 칼빈의 원전으로는 『칼빈 신학 대전』(*CO., Ioannis Calvini Oper Quae Supersunt Omnia*)²⁶⁾, 『칼빈 설교 모음집』(*SC., Supplementa Calviniana Sermons Inédits*)²⁷⁾, 『칼빈 저작 선집』(*OS.,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²⁸⁾, 『칼빈 유작 전집』(*CR., Corpus Reformatorum*)²⁹⁾을 본 논문에 자료로 활용하였다.

26) John Calvin, *Ioannis Calvini Oper Quae Supersunt Omnia*, eds. Wilhelm Baum, Edward Cunitz, and Edward Reuss (Braunschweig: Schwetschke, 1863-1900).

이하 논문에서는 저자명과 책명을 'CO.'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함.

27) John Calvin, *Supplementa Calviniana Sermons Inédits*, ed. Erwin Mülhaupt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36). 이하 논문에서는 저자명과 책명을 'SC.'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함.

28) John Calvin,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s. Peter Barth, Wilhelm Niesel, and Dora Scheuner (Munich: Christian Kaiser Verlag, 1926-1952). 이하 논문에서는 저자명과 책명을 'OS.'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함.

29) John Calvin, *Corpus Reformatorum*, eds. Wilhelm Baum, Edward Cunitz, and Edward Reuss (Braunschweig: Schwetschke, 1863-1900). 이하 논문에서는 저자명과 책명을 'CR.'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함.

II. 존 칼빈의 『신앙교육서』 작성 배경 및 발전 역사 고찰

본 장에서는 칼빈의 『신앙교육서』가 작성된 시대적 배경 및 발전과정에 관하여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칼빈의 제네바 종교개혁이 교육 개혁이라는 교육신학적 안목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의 총체로서의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칼빈의 1, 2차 제네바 목회시기에 작성된 제 1차, 2차 『신앙교육서』를 신학적, 교육적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며, 칼빈의 『신앙교육서』가 칼빈 이후 개혁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서 그 발전 역사를 살펴보려고 한다.

A. 『신앙교육서』의 개념과 역사적 고찰

『신앙교육서』라는 말은 독일어의 ‘katechismus’와 영어의 ‘catechism’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다. 이 말에 대하여 초기 한국 교회는 ‘교리문답’(敎理問答), ‘요리문답’(要理問答), ‘학습교리서’(學習敎理書) 등의 다양한 말로 사용하였다.³⁰⁾ 이 말은 헬라어 동사 ‘카테케오’(κατηχεω)의 명사형인 ‘카테키스모스’(κατηχισμος)에서 유래되었다.³¹⁾ 이 단어는 ‘울리다’, ‘울려 퍼지다’, ‘소리를 내다’, ‘듣게 하다’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입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뜻하는 ‘구두식 교육’(oral instruction)을 나타낸다.

이것의 성경적 근거는 출애굽기 24장 6-7절에 나타난다. 모세는 피를 취하여 반을

30) 카테키즘을 ‘신앙교육서’로 한국어로 제일 먼저 번역하여 사용한 정일웅은 카테키즘을 ‘교리문답’, ‘요리문답’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원어 상 의미로 ‘신앙의 가르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으며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 ‘신앙교육서’로 불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는 정일웅,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215-216을 참조 바람.

31) F. L. Cross,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249.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였다. 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순종적 반응을 보인 것은 대화식 신앙교육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14-18절³²⁾에서 여호수아가 세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문답형식으로 여호와 앞에서 결단을 하는 장면은 문답식 교육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기초 교리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세례를 베풀었다.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도행전 8장의 장면에서, 그가 복음을 깨닫고 주를 영접하였을 때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좋은 예가 된다고 본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12절까지의 내용은 신앙교육의 초보적 단계와 그 이상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신약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신앙교육은 성인 개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대교회 문헌을 살펴보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중요시하였고, 이에 대한 역사적 문헌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신앙교육서』는 종교개혁자들만의 고유한 창작물은 결코 아니다. 신앙교육은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미 실시되어 오던 관습이었다.

기초적인 신앙 교리교육이 비교적 활발하였던 시기는 4-5세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어거스틴(Augustine)은 이 당시에 신앙교육에 관한 저서를 많이 남김으로써 크게 공헌하였다. 『기독교 교리』(*De Doctrina Christiana*), 『신앙교육서 초고』(*Catechizandis Rudibus*) 등이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특히 『신앙교육서 초고』(*Catechizandis Rudibus*)를 통하여 어린이 신앙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수-학습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³³⁾

32)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 . .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 . .”(수 24: 14-18) 이 인용에서 우리는 문답식 교육의 원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33) Kenneth O. Gangel, 『기독교교육사』, 유재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06.

중세기가 지나고 기독교가 보편화되면서 기독교 기초 신앙교육에 관한 관심은 점점 희박해지기 시작하였다. 중세 초기부터 성직자들의 무지와 태만으로 신앙교육을 중시하던 고귀한 전통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종교적 암흑기를 벗어난 종교개혁 초기에 제르송(Jean Gerson)은 『어린이 기초 양육교육서』(*L'Abc des simples gens*)을 써서 교회 개혁이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교리교육서 작성을 교회 당국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³⁴⁾ 중세 후반기에는 신앙고백에 관한 소책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나 주로 사제용으로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성례 등의 기본 신앙 교리와 간략한 해설을 담아 놓은 소책자들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지침서가 되었다.

제도적 교회의 신앙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미온적 태도에 비하여 오히려 당시의 분파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신앙교육에 임하였다. 그들은 왈도(Pierre Waldo)파, 보헤미안 형제단(Böhmische Bruder), 위클리프(John Wycliffe), 후스(John Hus) 등 소위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었다. 이들은 각기 어린이 신앙교육을 위하여 신앙교육 문서를 작성하는 데 열성을 기울였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교회 당국으로부터 '이단'이라는 부당한 낙인이 찍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과 같은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교리교육 운동에 있어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대학 정문에 붙였던 『95개 논제』는 신조나 신앙고백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1518년의 하이델베르그 논쟁과 1519년의 라이프치히 논쟁뿐만 아니라, 당시 나타난 소책자들과 더불어 신앙고백을 작성하는 데 촉진제가 되었다.

루터의 신학사상과 종교개혁에 있어서, 멜랑히톤(Philip Melancthon)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는 1521년에 『신학적 문제들의 근본적 주제들, 신학요의』(*Loci Communes Rerum Theologicaum*)라는 성숙하고 체계적인 교리서를 작성하여 루터교

34) John Calvin, 『갈병의 요리문답』, 11.

교리의 기초석을 마련하였다. 루터는 1529년부터 교리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첫 번째 관심은 무시당하는 일반 대중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영적 궁핍을 채우는 일이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교리를 위해 『대요리문답서』와 『소 요리 문답서』³⁵⁾를 작성하였다. 이 책은 기독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여러 지침들을 제시하는 훌륭한 책이었다. 또한 이 책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주요 골자로 하여 세례, 성만찬, 고해성사 등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기초 교리와 성경의 요약을 제시하고 해설을 덧붙였다.³⁶⁾ 이러한 루터의 교리문답은 칼빈의 『신앙교육서』 작성에 영향을 주었다.

B. 칼빈의 『신앙교육서』의 작성 배경

1. 칼빈의 『제 1차 신앙교육서』

종교개혁자로서의 칼빈이 제네바 교회의 목회사역을 감당하였던 시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고 보아지는 제 1차 사역 시기는 1536년에서 1539년 사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때에 신학대전인 『기독교강요』와 이 책의 요약 해설서로 여겨지는 『제 1차 신앙교육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제 2차 사역 시기는 1541년에서 1564년 사이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제네바 시 전역의 개혁뿐만 아니라 구라파 전체와 세계 교회의 개혁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에 그는 교회법을 비롯하여 신조, 예배 모범서 그리고 『제 2차 신앙교육서』(혹은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작성하였고, 어린이와 청소년 및 성인들에 대한 교육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 서구 구라파 지역의 신앙교육과 일반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칼빈의 『제 1차 신앙교육서』는 1536년 11월에서 1537년 1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35) 루터의 『소 요리문답서』는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다. 1) 십계명(Dekalog) 2) 사도신경(Credo) 3) 주기도문(Paternoster) 4) 세례와 성례(Taufe und Sakrament) 5) 참회(Beichte) 6) 성례(Abendmahl) 7) 아침 저녁의 축복 기도 8) 식사 전후의 기도 등이다.

36) 양금희, *op. cit.*, 40.

학자들은 추정한다.³⁷⁾ 그것은 1536년 8월경에 칼빈이 제네바 종교개혁자인 기욤 파렐 (Guillaume Farel)의 권유로 종교개혁 운동에 가담하기로 결정한지 불과 몇 달이 채 안 되는 때였다. 칼빈은 자신의 시편 서문에서 당시 파렐의 권유로 제네바 사역을 시작한 것이 그의 생애에 가장 큰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나는 예전과 같이 혼자 계속해서 은거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나 결국 기욤 파렐은 조언과 권고 대신에 무서운 저주를 퍼부음으로써 나를 제네바에 붙잡아 두었다. 그 저주를 들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체포하기 위해 억센 손을 내 위에 내려놓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 때 쉬려고 했던 스트라스부르그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전쟁에 의해 폐쇄되었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하룻밤 이상 머무르지 않고 빨리 그 도시를 통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 . . 그 때 비열하게 신앙을 버리고 변절해서 가톨릭교도로 되돌아간 한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복음을 퍼뜨리는 데 남다른 정열로 불뛴던 파렐은 즉시 나를 붙잡아 두기 위해 모든 신경을 썼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연구(그것을 위해 나는 다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다)에 몰두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고, 정중한 요청에 의해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내게 저주를 퍼붓기까지 하였다. 만약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물러서서 도와주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휴식과 내가 추구한 평온한 연구생활을 저주하실 것이다.³⁸⁾

칼빈이 1536년 여름에 처음으로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네바 시민들이 앞으로 복음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며, 교황주의와 관련된 모든 잘못된 종교적인 약속들을 따르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였다.³⁹⁾ 그러나 그때까지도 옛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종교적 체제들의 발전이 그 곳에서는 매우 미성숙한 상태였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37) Timothy Tow,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임성호 역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50.

38) *Ibid.*, 49-50.

39) William E. Monter, *Calvin's Geneva* (New York: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75), 5; Mark Achtermeier, "Reflections on Calvin's Catechetics," *Calvin Studies* 6 (1992): 59-60.

내가 처음 (제네바에 있는) 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거의 아무 일도 없었다. 그들은 말씀 선포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우상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불태우는 데 열심을 다했으나, 개혁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있었다.⁴⁰⁾

이처럼 당시 제네바 시는 옛 체계에 따른 모든 이교도적인 악습을 금지하고 복음과 말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교회 생활에 대한 시도가 요청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성도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순수한 성경 진리와 교리를 전수시키는 길 만이 옛 사상과 악습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칼빈과 파렐은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되찾기 위해 목회 사역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제네바 시의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1536년 11월에 시 행정관들에게 『제네바의 모든 시민들과 거주민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고수하고 약속해야 하는 신앙 고백문』(*Confession of Faith which all the Citizens and Inhabitants of Geneva and the Subjects of the Country Must Promise to Keep and Hold*)⁴¹⁾이라는 제목이 붙은 짙막한 신앙고백적인 문서를 제출하였다. 21개의 항목들로 구성된 이 문서는 복음적 신앙의 확실한 본질들에 관한 짧은 개요이다. 칼빈은 이것을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 요약으로 여겼으며, 이것을 독서하는 것이 시민권자의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 행정관들은 이 문서를 받아들였지만, 제네바 시민들의 거센 저항 때문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독하도록 하지는 못하였다.⁴²⁾

두 번째 문서인 『제네바의 교회 조직과 예배에 관한 소논문들』(*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⁴³⁾에서는 “주의 만찬이 항상 거룩하게 거행되어야 하며, 만약 진실하게 거행되지 못하고 진정한 경외심 없이 행

40) *Ibid.*, 95.

41) John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Series, vol. 22, trans. J. K. S. Rei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25-33. 이하 논문에서는 저자명과 책명을 생략하고 'LCC.' 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함.

42) *CO.*, 10: 1.

43) 원문 제목은 *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église de Geneve* 이며, 이 본문은 *CO.*, 10: 5 에서 나온다. 영어 번역문은 *LCC.*, 48쪽에 있다.

해지는 경우에 적절하고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네 가지 조치를 제 시하였다”⁴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성례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언급하였다.

(1) 치리(discipline)는 장로들과 목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통제 하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그들은 다같이 사람들의 생활을 감독하고, 도시의 모든 구역들을 통치할 것을 주장 하였다. 이 위원회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우정어린 훈계를 하고 완강한 범법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추방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2) 시편 낭송이 여러 교회 들에서 확립되었다. 그 결과로 모든 이들의 마음은 기도하는 자들과 같이 되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고무되며 자극되어야 한다. (3) 이 도시의 결혼에 관한 여러 법들은 옛 교황주의 체제에서 불거져 나왔던 일련의 추문들과 논쟁들을 막기 위하여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 어린 아이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원인들을 제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복음적인 교리는 부패한 채 머물지 않는다. 또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부지런히 유지되며 전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⁴⁵⁾

이 교육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써, 이 소논문들은 다음 내용들을 제시 한다.

...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간결하고 단순한 요약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다고 증명되어질 때까지, 그들 각자의 능력에 대한 필요량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따라서, 그들이 이것을 배워야 하며, 일년의 어떤 때에는 그들이 목사 앞에 나와서 질문 받고 점검 받아야 하며, 더욱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한다.⁴⁶⁾

44) LCC., 49.

45) LCC., 53.

46) LCC., 54.

이 소논문들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었고,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537년의 소논문들은 제네바 시의회의 승인 절차에 의해서 결국 1541년의 『교회법』(*Ecclesiastical Ordinances*)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네바 시민들이 개혁교회의 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 기초 교리를 배울만한 교본이 없었다는 점이다. 특별히 칼빈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태만하고 나태하다는 것을 직시하였다. 신앙교육 현장에 대한 예리한 평가 분석을 통하여, 그는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실시하여서 기독교 신앙교육 내용을 간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교육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 때문에, 칼빈은 신앙교육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문서는 처음에 『제네바 교회가 사용하는 신앙교육 요강 및 신조』⁴⁷⁾라고 일컬어졌다.

칼빈의 『제 1차 신앙교육서』는 구성면에 있어서 루터의 『대 요리문답서』(*Größer Katechismus*)를 본받아 작성되었다. 그러나 내용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강요』 초판이 작성된 후에 그 내용으로 『신앙교육서』가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칼빈의 『제 1차 신앙교육서』와 『기독교강요』 초판은 신학적, 사상적인 맥락에서 서로 매우 강한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특이한 점은 칼빈의 『제 1차 신앙교육서』의 원래 명칭에는 ‘신앙고백’(Confession)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칼빈은 『제 1차 신앙교육서』가 신앙고백을 대신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적으로 선서하고 이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작은 책자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단순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대중적인 저작이다. 그가 책의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것은 기독교 교육을 위한 지침서이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시에 적대적 위치에 있던 교회와 논쟁을 벌이거나 로마 가톨릭

47) 이 문서의 원문은 *Instruction et Cofession de Foy dont on use en l'Eglise Conseil* 이다. 동 문서가 제네바 시의 소의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후 1537년 2월부터 인쇄되어 시중에 유포되었다.

릭 교회를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긍정적인 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덧붙여서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오는 비난과 공격에 대해 종교개혁 운동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변증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신앙교육서』의 본래의 저술 목적은 영적인 성장과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함이다. 이 책은 그의 초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의 살아 있는 신앙을 매우 간략하면서도 웅장하게 보여 주고 있다.

당시 칼빈은 기독교인을 교육하기 위하여 신앙고백과 교리교육을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우리가 제안한 의안은 기독교 신앙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모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어떤 때에는 그들을 목사들 앞에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한 후 그들 각자의 역량에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듣게 함으로써, 마침내 완전한 교육이 되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⁴⁸⁾

이런 배경을 통하여 만들어진 『신앙교육서』는 개혁교회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의 뿌리와 전통이 되었다.

2. 칼빈의 『제 2차 신앙교육서』

칼빈과 제네바 시의회와의 갈등 때문에, 그의 『제 1차 신앙교육서』는 본래 의도대로 제네바 교회와 목회 현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제 1차 신앙교육서』를 작성한 이듬해인 1538년에 파렐과 함께 스트라스부르그로 떠나게 됨으로 『신앙교육서』를 실험해 볼 시간적 여유와 목회적 현장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에 머물면서 유럽의 훌륭한 교육적인 사상과 정신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미 성공적으로 개혁주의적인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진 교회의 현장들을 목도할 수 있었다.

48) John Calvin, 『신앙입문』, 7-8.

이곳에서 칼빈은 파리에서 교육을 받은 인문주의자이며 교육 전문가였던 스트라스부르그 아카데미의 총장 슈트름(Jean Sturm)을 만나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또한 이곳에서 부처(M. Bucer)의 영향을 받게 된 칼빈은 이 아카데미의 강사와 프랑스 피난민 교회의 목사로 사역하였다. 이 교회 사역을 통하여, 그는 교육과 치리의 문제들에 관하여 가치 있는 실제적인 경험들을 많이 얻었다. 이 교회에는 약 5백 명 미만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회 방식을 가지고 실험적 목회를 할 수 있었다. 바로 교인 각 사람이 성찬식 이전에 목사와 개인적인 면담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결실이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이 혼란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확신을 줄 수 있었고,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무지한 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다.⁴⁹⁾

이렇게 칼빈은 1538년 9월부터 1541년 9월까지 만 3년간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에 머물면서 『제 2차 신앙교육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가 『제 2차 신앙교육서』를 만들게 된 배후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었다. 첫 번째, 칼빈은 이곳에 머물면서 종교개혁자 부처가 1537년에 『소 요리문답서』(*Kurtzer Katechismus*)를 작성하고 출판하여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목회 현장을 목격하였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이 작성한 『제 1차 신앙교육서』가 신학적, 사상적인 면에서는 매우 특출하였으나 목회 현장의 적용 과정에서는 약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제 1차 신앙교육서』는 단순히 기독교 교리의 요약과 신앙고백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목회 현장에서 쉽게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요리문답 형식에 맞출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 때 만든 『신앙교육서』에 대하여, 칼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며, 얼마나 그의 평생 목회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 1564년 4월 28일 그가 임종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고별연설을 하였던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나는 서둘러서 이 『신앙교육서』를 기록하였다. 그 이유는 만약 그들이 이 두 가지 것들, 즉 이 『신앙교육서』와 『치리서』를 교수하는 것을 내게 맹세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사역을 전혀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49) Mark Achtiermeier, *op. cit.*, 60-61.

이다.⁵⁰⁾

이것은 제네바 사역에서 칼빈에게 이 두 가지 책자가 어느 정도 불가분의 관계였으며, 또한 그의 목회 사역에서 얼마나 핵심적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준다.⁵¹⁾

1541년 9월에 칼빈은 개혁에 관한 그의 계획에 대하여 제네바 인들이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보장을 받은 후, 마지못해 제네바에 있는 그의 사역지로 돌아왔다. 그는 도착한 후 20일이 채 못 되어 제네바 시의회에 『교회법』(*Ecclesiastical Ordinances*)을 제출하였다. 이 교회법은 교회의 조직과 치리에 대한 개정, 증보된 안(案)이었다.⁵²⁾ 이 법령은 2개월 안에 총회에 의해 완전히 승인되어졌다. 이 교회법은 목사, 박사, 장로, 그리고 집사로 된 칼빈의 특유한 정치 형태가 구상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법령은 제네바 도시의 교육 방향성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 우선, 가르침에 대한 엄격한 계획이 도시의 여러 교회에서 세워지고, 각 교구에는 매 주일에 두 번의 예배, 주간에 세 번의 예배가 더 드려지도록 하였다.⁵³⁾ 어린이를 위한 『신앙교육서』 교육은 각 교구에서 주일 오후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앙교육서』 교육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의식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칼빈의 1536년판 『기독교강요』의 초두에 『신앙교육서』에 대한 그의 계획들이 피력되어 있다.

『신앙교육서』로 교육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의 실천을 위해 초안된 입문서를 가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입문서는 단순한 방식으로 거의 모든 우리의 종교에 관한 기사들을 포함하고 요약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입문서에 대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은 논쟁의 여지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10세의 어린이는 그의 신앙고백을 선언하기 위해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고, 각 조항에 대한 점검을 받고 응답해야 할 것이

50) William Monter, *op. cit.*, 95.

51) Mark Achtermeier, *op. cit.*, 59.

52) 원문 제목은 *Projet d'ordonnances ecclésiastiques* 이며, CO, 16: 15에 원문과 LCC, 58-72에 영어 번역본이 있다.

53) LCC, 62.

다. 만약 그가 어떤 것에도 무지하거나 혹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배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증인으로 간주될 때, 그는 하나의 참되고 신실한 믿음을 고백해야 할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은, 한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오늘날, 몇몇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관심 없는 문제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만약 『신앙교육서』 교육이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면, 이것은 이런 부모들의 나태함을 일깨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나태함으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망신당하지 않을 것이다.⁵⁴⁾

1537년의 소논문들처럼, 이 『교회법』은 전반적으로 교육적인 기획과 형식적인 처리를 위한 예비 책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평신도 장로들과 목사들로 구성된 장로 법원(Consistory)은 부모들이 그들의 임무들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주의 깊은 눈으로 살펴야 한다. 침체된 자들은 권고를 받아야 하고, 완강한 범법자들은 시 행정관들에게 보고 되어야 한다.⁵⁵⁾ 또한 이 『교회법』은 “교리 안에서 일치를 유지하고 『신앙교육서』 교육과 다른 것들에 관한 그들의 임무들을 양심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목사들의 주간 모임들을 준비하여야 한다”⁵⁶⁾고 강조하고 있다.

이 『교회법』을 채택함으로써 칼빈은 새로운 『신앙교육서』 도입에 착수하였다. 그는 1542년 초에 『제네바 교리문답서』 곧 『제 2차 신앙교육서』(*Le Catechisme de L'Eglise de Geneve*)의 첫 번째 판을 프랑스어로 출판했다.⁵⁷⁾ 또한, 1545년에 칼빈은 불어권에 속하지 않은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라틴어 번역을 하였다. 그는 1537년의 『제 1차 신앙교육서』(*Instruction in Faith*)를 55개 과목 및 373 개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전체 구조를 바꾸어 매주 한 과목씩 교리교육을 하도록 개작을 하였다.⁵⁸⁾ 또한 칼빈은 오후 예배 때에는 신앙의 기초 교육을 위하여 매 주 한 과목씩 순서에 따라 교리 설교를 하

54) *Inst.*, 1. 1. 30.

55) *LCC*, 69.

56) *LCC*, 60-61.

57) Thomas F. Torrance, *The School of Faith: The Catechism of the Reformed Church* (London: James Clarke & Co., 1959), 3.

58) Mark Achtermeier, *op. cit.*, 62.

였다.

이 『제 2차 신앙교육서』는 네 개의 중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부분은 하나님께 적절하게 경배 드리는 측면들을 다룬다. 첫 번째 것은 신뢰에 집중하면서 사도신경을 설명한다. 두 번째 것은 십계명 주석과 함께 순종에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 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의 의무를 고찰한다. 그리고 네 번째 것은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의 유일한 창조자이심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를 통하여 칼빈은 예배에서 말씀과 성례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⁹⁾

이 문서는 『소 요리 문답서』를 받아들이기 원하는 어린이들을 점검하기 위한 형식, (*The Form For Examining Children Who Wish to Receive the Shorter Catechism*)⁶⁰⁾이라는 제목으로 나타났다. 이 『신앙교육서』는 신앙에 관한 간결한 요약인데, 그 속에 포함된 21개의 질문은 십계명, 선한 행위들, 칭의, 기도, 성례,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시험한다. 여러 사본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제네바 소 요리문답서』의 초기 복사본은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1553년 판이 공식적인 판본으로 인정된다.⁶¹⁾

어린이들의 마지막 시험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성찬식이 거행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개최되었다.⁶²⁾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던 어린이들은 그 다음 주 성찬식에 처음으로 참석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되었다. 칼빈은 제네바 목회 사역 초기에는 시험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10세 정도로 보았다. 그러나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과과정에는 11세에서 12세 때에 참여하도록 하였다.⁶³⁾

칼빈의 『신앙교육서』를 통한 교리교육이 공교육에서도 강조되어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칼빈은 1536년에 이 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철저히 검사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한

59) *Ibid.*

60) *CO*, 4: 147-160.

61) Rodolphe Peter, "The Geneva Primer, Or Calvin's Elementary Catechism," *Calvin Studies* 5 (1990): 135-161.

62) *Inst.*, 5. 19. 13.

63) Rodolphe Peter, *op. cit.*, 138.

초기 노력들은 도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초급 학교인 리브 전문학교(College de Rive) 설립의 필요성에 집중되었다.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 출석하도록 요구되며, 가난한 가정들도 수험료의 면제로 자녀들을 학교에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노력은 실패되었고,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가 설립될 때에야 비로소 칼빈은 이 도시에서 공립교육을 위한 그의 계획들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아카데미는 초등학교와 상급학교로 구성되는데, 후자의 교육은 여러 개혁주의 교회에서 사역할 목사들을 준비시키려고 신학에서의 진전된 과정들을 제공해 주었다.⁶⁴⁾ 어린 학생들은 주간 구두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에 교육을 받았다. 나이가 든 학생들은 성경 언어학습을 위하여 기초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였다.⁶⁵⁾

칼빈은 가정, 교회, 그리고 학교 등 모든 장소에서 『신앙교육서』를 중심으로 남녀노소를 교육시키는 데 목회적 정렬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칼빈의 제네바 목회는 교육목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교육 목회의 지침과 핵심은 바로 『제 2차 신앙교육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 2차 신앙교육서』를 통한 교리교육에 비중을 둔 칼빈은 『제 2차 신앙교육서』 교육에 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에 소홀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치리를 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신앙교육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회중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자에게 한하여 입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칼빈은 매우 엄격하였고 지속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C. 칼빈의 『신앙교육서』의 신학적 비교

1538년에 작성된 칼빈의 『제 1차 신앙교육서』와 1541에 작성된 칼빈의 『제 2차 신앙

64) Charles Raynal, "The Place of the Academy in John Calvin's Polity," *Calvin Studies* 2 (1990): 92-103.

65) W. S. Reid, *op. cit.*, 22-23.

교육서』 사이에는 서문, 주제 배열, 형식, 구성 및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서문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제 1차 신앙교육서』에는 『제 2차 신앙교육서』에 있는 독자에게 보내는 서신이 없고 대신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3장 15절, 4장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반면, 『제 2차 신앙교육서』에는 교회는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기독교 신앙교리 안에서 양육하라는 특별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학교들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게 각자의 가족을 잘 가르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주요 교리에 대해 어린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공적 규정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를 규모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요리문답』이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한 소책자를 사용하였다.⁶⁶⁾

주제 배열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 1차 신앙교육서』는 십계명, 신조의 순서로 되어 있고, 『제 2차 신앙교육서』는 신조, 십계명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처럼 상이하게 배열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에 대한 신학적 강조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제 1차 신앙교육서』에서 율법은 인간에게 비참과 무능을 제시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소위 제 1차 율법 기능이 강조되어 있는데 반해, 『제 2차 신앙교육서』에서 율법은 신자들이 도달해야만 될 삶의 규범과 목표를 제시하는 소위 제 3차 율법의 기능으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⁷⁾ 이러한 전이 현상은 칼빈 자신이 부처와의 만남과 목회 현장에서 체험을 통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그가 목회 현장에서 당시 자유방임주의자(Libertins)들의 도전에 대한 교육 목회적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66) John Calvin, 『갈뱅의 요리문답』, 100.

67) 칼빈은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보았다. 첫 번째 기능은 신학적 기능이다. 이것은 율법이 인간에게 자신이 죄인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두 번째 기능은 정치적 기능이다. 이것은 국가에서 제정한 법의 기능처럼 율법이 인간의 범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리실 벌을 생각하고 두려운 나머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다. 세 번째 기능은 거듭난 자에게 주는 기능이다. 거듭난 자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키는 율법의 기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다. 이처럼 칼빈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강조한 『제 2차 신앙교육서』⁶⁸⁾는 제네바 종교개혁과 교육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형식면에서, 『제 1차 신앙교육서』는 33 항목의 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해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⁶⁹⁾, 『제 2차 신앙교육서』는 루터의 형식처럼 총 373 개의 질문과 대답 형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제 2차 신앙교육서』는 목사가 묻고 어린이가 대답하는 대화체로 일 년 동안 매주 사용할 수 있도록 55과로 되어있다. 특히 『제 2차 신앙교육서』에서는 간접적인 문체보다 간결한 직접적인 문답식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면에서의 차이점을 보면, 『제 1차 신앙교육서』는 교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 2차 신앙교육서』에서는 지나칠 정도의 교리적이고 교회론적인 문제는 담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제 2차 신앙교육서』는 『제 1차 신앙교육서』에 비해 인간론 혹은 죄론을 축소하였고, 『제 1차 신앙교육서』에서 강조되었던 예정론이 『제 2차 신앙교육서』에서는 생략하여 버렸다. 그러나 『제 2차 신앙교육서』에서는 성령론 부분이 강조되었다. 또한 교회론 부분에서도 인간의 전통과 국가론이 그냥 지나쳐 버린 반면 권징 문제⁷⁰⁾는 매우 상세히 다루어졌다. 이것을 볼 때, 『제 2차 신앙교육서』는 칼빈의 제네바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하였고, 또한 실제로 철저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8) 『신앙교육서』는 1538년에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그 이름이 *Catechism*으로 바뀌었다. 그 후 1542년에 프랑스어로, 1545년에 다시 라틴어로 문답 형식을 취하여 출간되었다. 칼빈은 그의 생애 말기까지 이 교리서를 개정할 시간이 없었음을 안타까워했다.

69) 칼빈의 『제 1차 신앙교육서』는 다음과 같이 주요한 네 부분으로 나뉜다 1) 신앙 영역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 예배에 대한 짧은 부분,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한 전면적인 해설로 되어 있다. 2) 율법 영역으로 우리의 하나님 예배와 우리의 이웃 사랑을 지도하는 규칙인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다. 3) 기도 영역으로 주기도문 패턴의 기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도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 말씀과 성례들의 영역으로 하나님 은혜의 방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네 부분들은 우리의 하나님 예배의 부분들로 설명된다.

70) 칼빈은 교리와 치리의 관계를 교회의 영혼과 그에 대한 그리움으로 묘사할 정도로 밀접한 상호 관계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교리와 치리는 교회의 삶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치리는 교리와 거룩함을 목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준다. 치리는 교리를 알려주고, 해석하고, 보호해 주고, 도움을 주는 척도요 방편임을 알 수 있다.

1538년도 『제 1차 신앙교육서』는 『기독교강요』 초판처럼 루터의 『요리문답』의 기본 방식을 따르고 있다.⁷¹⁾ 루터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먼저 『소 신앙교육서』를 배우고, 더 깊은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한 다음 단계로 『대 신앙교육서』를 배우게 하였다. 루터의 『신앙교육서』는 질문과 대답의 간략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루터는 효과적인 어린이 교육을 위하여 간접적인 문체보다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문답식을 택하였다. 사도신경에 기초한 신앙에 대한 논법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에 관한 부분 뒤에 나온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성례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나온다. 이처럼 교리 내용에 대한 나열 순서와 형식은 『기독교강요』 초판과 루터의 『신앙교육서』를 따르고 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역시 발견할 수 있다.

루터의 『소 신앙교육문답서』는 전체 8부로 되어 있으나, 칼빈의 『제 1차 신앙교육문답서』는 그러한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제 1차 신앙교육문답서』를 칼빈은 신(神) 지식에 대한 논의로 시작해서 정부의 관료인 시장에 관한 절로 끝낸다. 또한 칼빈의 책에는 루터와 달리 기독교인들의 소망(21절), 사역(30절), 그리고 출교(32절)와 같은 주제를 다룬 문답들이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반면, 칼빈의 『제 2차 신앙교육서』는 373 문항으로 사도신경, 십계명, 기도, 성례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칼빈의 『제 1차 신앙교육서』에는 선택과 예정에 대하여 제 13절에 간략하게 논의가 되어 있지만, 『제 2차 신앙교육서』에는 이 교리에 대한 분명한 진술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신앙교육서』의 구조와 논법에 있어서 신학적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즉, 이러한 선택과 예정 교리가 하나님 존재나 창조 교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신자와 불신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경험적인 사실에 관한 것만을 간략하게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1) 루터는 1529년에 『대, 소 신앙교육서』를 만들어 신앙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루터의 『소 신앙교육서』는 총 8부로 구성되었다. 제 1장 십계명, 제 2장 사도신경, 제 3장 주님의 기도, 제 4장 세례와 성찬, 제 5장 참회, 제 6장 성례, 제 7장 아침, 저녁 기도, 제 8장 식전, 식후 기도 등으로 되어 있다.

D. 개혁신교회의 『신앙교육서』 발전 역사

1. 『신앙고백서』와 『신앙교육서』 문헌들

『신앙고백서』와 『신앙교육서』에는 개혁신교회 신학의 기초가 초점으로 맞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 코크란스(Arthur C. Cochrance)의 지적처럼 개혁신 『신앙고백서』 및 『신앙교육서』에 대한 자료 모음집이나 연구 및 해석서가 매우 희귀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⁷²⁾ 18세기와 19세기에도 개혁신 『신앙고백서』들의 모음집이 있었지만, 근세 이후에는 그러한 모음집이 더 이상 출판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몇몇 대형 도서관들의 허가가 없다면 희귀본들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희귀본 모음집들 중 가장 좋은 것은 던롭(Dunlop)의 모음집이 있다. 그는 이 방대한 자료들을 두 권의 책으로 각각 1719년과 1722년에 출간하였다.⁷³⁾ 하지만, 이 책에 칼빈의 『제 2차 신앙교육서』인 『제네바 교리문답서』(*Calvin's Geneva Catechism*)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Heidelberg Catechism*)는 실려 있지만, 독일과 스위스 교회의 신앙고백서들은 실려 있지 않다.

또 다른 『신앙고백서』와 『신앙교육서』를 담고 있는 책은 더블린의 스투어트 목사(Rev. D. Stuart, D. D.)가 편집 출판한 『신앙고백서들에 나타난 개신교 교회들의 성경적 통일성』(*The Scriptural Unity of Protestant Churches Exhibited in Their Published Confessions*)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1) 아일랜드 교회의 신조들 (2) 잉글랜드 교회의 신조들 (3) 스코틀랜드 교회의 신앙고백서들 (4) 의회 즉 독립적 비국교도들의 신앙 선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⁷⁴⁾

그리고 영국에서 개신교 신앙고백들의 『두 일치서』(*Two Harmonies of Reformed Confessions*)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1) 이 일치서들은 개신교 주위의 통일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개신교 교회들의 다양한 신조들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이 일치서들에는

72) Arthur C. Cochrance,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Centu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7-16.

73) *Ibid.*, 18-19.

74) *Ibid.*, 23.

영국의 『39개 신조』, 『스위스 일치 신조』, 『뷔템베르크(Wüttemberg) 신조』, 『보헤미아 신조』,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벨직 신조』, 『스코틀랜드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포함되어 있다. (2) 개신교 신앙고백의 일치서는 『살나의 일치서』(*Salnar's Harmony*)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모음집이 아닌 이 일치서는 1581년에 제네바에서 정통 개혁파 교회의 『일치서』라는 제목으로 라틴어로 출판되었다.⁷⁵⁾ 이것의 영역 초판은 1586년에 캠브릿지에서 출판되었으며, 재판과 최종판은 런던에서 1643년에 출판되었다. 각 영역판에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신앙고백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같은 해에 일치서의 영어판이 출판되었다. 개정되고 상당히 확장된 일치서의 새로운 번역판이 피터 할에 의해 1842년 런던에서 출판되었다. 개혁파 신앙고백서의 모음집이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치서의 번역본은 일반적으로 찾아보기에 아주 편리한 하나의 지침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 하지만, 이 들은 이제는 아주 희귀한 책들이 되었다.

찬송가 작가인 호라티우스 보나(Horatius Bonar)는 1866년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교리문답서들을 출판하였다. 토마스 토렌스(Thomas. F. Torrance)는 이것들을 『신앙의 학교: 개혁파 신앙의 교리문답서』라는 제목으로 재발행하였다. 그는 여기에 아주 귀한 서론 부분을 첨가했는데 그 서론에는 교리문답서의 내용과 형식, 교리문답적 교수방법, 신학의 대화적 본질과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개혁파의 지배적 교의 경향성 등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⁷⁶⁾

영어로 된 가장 큰 개혁파 신앙고백서 모음집은 필립 샤프(Philip Schaff)의 대작인 『기독교 신경들』(*Creeeds of Christendom*) 제 3권의 한 부분에서 볼 수 있다.⁷⁷⁾ 하지만, 이 책은 오직 9개의 신앙고백서들만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중 셋은 번역되지 않았다.

최근에 출판된 교회신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약성경이 기록된 시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이 포함된 『기독교 교의선집(1963)』은 존 레이쓰(John H. Leith)에 의해서 편집되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개신교 신앙고백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

75) 『일치서』(*Harmony*)의 독일어 재판은 1887년에 살나(Salnar)의 『신앙고백 일치서』라는 제목으로도 출판되었다.

76) Thomas F. Torrance, *op. cit.*, 20-27.

77) Philip Schaff, 『신조학』, 박일민 번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23-30.

독교권의 신앙: 신경과 신앙고백서 자료집은 1963년에 게리시(B. A. Gerrish)에 의해 편집되었는데, 이 책에는 1559년에 작성된 『갈릭 신앙고백서』(*Gallic Confession*)가 개신교 신앙고백서로는 유일하게 실려 있다. 샤프(Philip Schaff)의 불완전한 모음집을 제외하고, 영어권 교회는 실제로 아주 풍부하고도 다양한 개신교 신앙고백서 문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때에 따라서 개신교 신앙고백서 모음집은 처음부터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원문으로 출판되었다. 이것들 중에서도 1612년에 작성되었던 『교회와 신앙고백신조』(*Corpus et syntagma confessionum fidei*)는 가장 최초의 것으로서 이 책은 편집자 개스파 로렌티우스(Gaspar Laurentius)가 13개의 신앙고백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4개의 초대교회 신조들과 루터교의 아우그스부르크(Augsburg), 작센(Saxen), 뷔템베르크(Wüttemberg) 신앙고백서들이 들어있다.⁷⁸⁾ 이 책의 새 개정판은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서 1654년에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이 개정판에 있는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1651년의 취리히 판에서,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1619년의 도르트 공의회에서 개정되고 수정 증보된 그대로이다. 마지막으로, (1) 『바젤 신앙고백서』, (2) 『도르트 공의회 신조』, (3) 콘스탄티노플의 교부, 시릴(Cyri)의 신앙고백서 (4) 폴로니아, 리투아니아와 부속 지방들에 있는 개혁파 교회들의 일반 신앙고백서가 있다.⁷⁹⁾

2. 개혁교회의 『신앙교육서』의 내용과 역사적 의미

칼빈의 『신앙교육서』 이후에 작성된 대표적인 개혁교회의 『신앙교육서』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17세기의 개혁주의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에 분주했다. 그러나 하나의 신앙고백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특정한 한 공동체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였으므로, 하나의 신앙고백에 필요 이상의 큰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78) 루터교의 『일치 신조』(*Book of Concord*)는 모든 루터교의 신조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1551년에 작성된 『삭손 신앙고백서』와 『뷔템베르크(Wüttemberg) 신앙고백서』는 영향력이 사라졌고 현재 역사적인 중요성만 남아 있을 뿐이다.

79) Philip Schaff, *op. cit.*, 32-35.

아무런 의미가 없다. 18, 19세기에는 신앙고백의 작성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대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신앙을 지식보다는 감정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그것들의 수효와 다양성에 있다. 멜랑히톤과 루터에 의해서 8년 동안 한 지역에서 작성된 루터교 신앙고백서들과는 달리,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은 매우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가 종교개혁 이후 약 150년 동안 50여 개가 작성되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 간에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에 관한 하나로 통일된 신학을 쓰는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해졌다.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의 신학적인 특징들은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들과 같다. 그 신앙고백들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되심, 성경의 권위, 윤리 및 삶의 훈련 등을 크게 강조한다. 『제 2 스위스 신앙고백』(*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0년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Scots Confession of 1560*)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Heidelberg Catechism*) 등과 같은 일부 신앙고백서들은 공동체에 의해 소유됨으로써 그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과 『벨기에 신앙고백』(*Belgic Confession*)은 그 신앙 진술이 보다 객관적으로 진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⁸⁰⁾

신앙고백들이 개혁주의 교회생활에 대해 지니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신앙고백은 기독교적 삶과 예배의 중요한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교리의 중요성과 정신생활의 중요성을 개혁주의가 강조함으로써 교회 생활에서 신앙고백의 역할을 더 크게 부각시켜 주었다.

초기의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은 논쟁을 위한 명제들 혹은 신앙의 방어 자료들이었다. 그것들은 개혁자들의 기본적인 언급들에 대한 간명한 진술들로 구성되어 있다.⁸¹⁾

종교개혁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신앙고백들은 신앙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이 되어졌다.

80) *Ibid.*, 37-40.

81) 『베른의 결정』(*The Conclusions of Berne*)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하는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겨났으며 같은 것에는 머무르나 낯선 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고 선언하므로 그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였다.

예를 들면 『고대 프랑스 교회의 신앙고백』(*Gallican Confession*)은 그 좋은 본보기이다. 이 신앙고백은 파리의 개혁주의 목사들이 자기들의 말씀 선포와 변론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신앙 진술을 작성한 것이 그 기원이 되었다. 그들은 그 복사본을 제네바로 보냈다. 프랑스의 개신교자들이 1559년 파리에서 제 1차 국가회의를 소집하였을 때, 제네바에서 파견된 대표단은 이것을 본래의 18개 조항에 합쳐서 프랑스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였다.⁸²⁾

『제 2 스위스 신앙고백』(*Second Helvetic Confession*, 1461, 1566)은 놀라울 정도로 독특한 신앙고백이다. 취리히의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의 개인적 간증으로 작성되었던 이 신앙고백은 1566년 종교회의에서 인정된 후, 대륙의 신앙고백들 가운데서 가장 널리 받아 들여졌다. 이 고백은 고대 프랑스 교회 신앙고백에 비하여 산만하나 신앙의 객관적 진술과 신앙의 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관용적인 정신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앙고백은 기독교 공동체 삶의 정신과 체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⁸³⁾

1560년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Scots Confession of 1560*)은 스코틀랜드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교회 개혁의 일환으로 4일 만에 작성되었다. 이것은 낙스(John Knox)를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1563년 독일 개혁교회의 『신앙교육서』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Heidelberg Catechism*, 1563)을 들 수 있다.⁸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은 우르시누스(Ursinus)와 올레비아누스(Olevianus)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올레비아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초안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과 개정하는 작업 책임을 맡았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작성 목

82) 『갈리칸 신앙고백』은 1571년 라 로셴(La Rochelle)에서 열린 회의에서 결정된 고백 내용에 약간의 수정 한 것으로 매우 정연하고 정확하며 균형 잡힌 개혁교회의 신앙 진술이다. 이 진술은 1561년 벨기에 신앙고백에 큰 영향을 주었다.

83) Philip Schaff, *op. cit.*, 42-44.

84)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1) 인간의 비참: 죄, 타락, 인간 구원의 필요 등에 관한 부분 (2) 구원: 사도신경을 기반으로 해서, 중보자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인간의 위로가 말씀과 성례들과 더불어 설명 (3) 감사: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으로서, 선행과 하나님의 기원이 구원에 대한 감사 등으로 나뉘어 진다.

적은 신앙의 가르침의 도구, 교사와 설교자를 위한 교리의 표준, 공예배시에 사용할 예전서 그리고 매주 설교를 위한 지침서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7세기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과의 내적, 외적 논쟁을 벌이는 100년 역사 가운데서 작성되었다. 이 때, 작성된 도르트 신조(Cannons of Dort)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과 인간의 자유에 관한 어려운 문제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도르트 회의(1619년)에서 작성되었다. 1643년에서 1647년까지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들은 영어권 장로교인들의 기본적인 개혁주의 신앙고백이 되었다. 이 문답서는 『대 요리문답』과 『소 요리문답』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⁸⁵⁾ 이것이 약간 수정을 거친 후에 침례교회 중 교인들의 기본적인 신앙고백이 되었다. 이 고백서는 전개가 잘 되어 있고 정확한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세련된 신학이 그 바탕이 되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에,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⁸⁶⁾과 하나님의 의지에 관하여 너무 많이 다루고 있기에,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의 관용성과 스코틀랜드 및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이 지니는

85) Philip Schaff, *op. cit.*, 41-45.

86) 『웨스트민스터 소 신앙교육서』의 제 1문답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로 시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많이 강조한 것을 보면 칼빈의 『신앙교육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등 전통적인 주제를 따르고 있는 반면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는 인간의 비참, 구원, 감사라는 주제를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워필드(B. B. Warfield)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는 칼빈주의적이고 신(神)중심적이거나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는 좀더 루터적이고 주관적이며 사람 중심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B. B. Warfield, “The first Question of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6 (1908): 565-587을 참조바람. 반면, 야콥스(P. Jacobs)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가 루터의 신학보다 칼빈의 『제 2차 신앙교육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그 내용을 10가지로 분석하였다. 1) 창조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되심(칼빈의 『신앙교육서』 22문;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 26문) 2) 하나님의 예정(칼빈의 『신앙교육서』 21-29문;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 27-28문) 3) 예수의 이름(칼빈의 『신앙교육서』 32문;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 29문) 4) 그리스도의 세 직분(칼빈의 『신앙교육서』 34-39문;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 54문) 5) 그리스도의 통치권(칼빈의 『신앙교육서』 37문;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 31문과 54문) 6)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칼빈의 『신앙교육서』 40-50문; 32문) 7) 동정녀 탄생(칼빈의 『신앙교육서』 51-52문;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 12-18문) 8) 지옥으로 내려감(칼빈의 『신앙교육서』 65문;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 44문) 9) 십자가, 부활, 승천의 유익(칼빈의 『신앙교육서』 72-77문;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 43-45문) 10) 그리스도의 임재(칼빈의 『신앙교육서』 79-80문;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 47-48문) 등이다. 이에 대하여는 정일웅,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59-60을 참조 바람.

인격적, 경험적 열정이 결여되어 있다.⁸⁷⁾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모체가 되어 영국 교회의 『신앙교육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⁸⁸⁾ 뿐만 아니라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라틴어를 비롯하여 이태리어, 스페인어, 화란어, 독일어, 영어, 헝가리어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개혁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교리교육과 신앙교육의 중추적 자료로 활용되어 성도들의 신앙 생활 기본 원리와 교회의 뼈대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87) John H. Leith,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 (서울: 반석출판사, 1992), 167.

88) 박일민, *op. cit.*, 78-79.

Ⅲ. 『신앙교육서』의 교리 분석과 신학적 해석

본 장에서는 칼빈의 교리사상의 집약서이며, 교리교육의 지침서로 사용한 『제 1차 신앙교육서』를 중심으로 그의 중심 교리가 무엇이며, 그 교리에 나타나 있는 그의 신학 사상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가 교육목회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결실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한 『신앙교육서』를 일곱 가지 영역인 ‘하나님과 사람에게 관한 지식’, ‘율법’, ‘신앙’, ‘사도신경’, ‘기도’, ‘성례’, ‘교회와 국가’에 관한 교리 체계와 사상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분석 및 해석을 함으로 그가 교육하고자 하였던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4장과 5장에서 그의 교리교육 사상과 교리교육 현장론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A.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

1. 인간 존재의 목적

칼빈은 『신앙교육서』 초두에 인간 존재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글을 시작한다.⁸⁹⁾ 인간 존재에 대한 그의 주장은 인간이 두려움과 사랑과 경외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진다.⁹⁰⁾ 또한 그는 인간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그를 갈망하며 오직 그 분 안에서 안식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았다.⁹¹⁾

하나님을 떠난 삶의 무의미함을 논하는 칼빈은 종교가 없는 인간의 삶은 가장 비참한 삶이며, 야수의 삶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경건과 거리가

89) 『신앙교육서』, 제 1절: “모든 인간은 종교를 위해 존재하여 왔다.” 이 선언은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90) 『신앙교육서』, 제 1절의 내용은 1648년에 작성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서』의 유명한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서 대부분 반복된다.

91) 칼빈은 어거스틴의 참회록(*Confessions*) 1장 1절의 유명한 표현을 인용한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자기를 위해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⁹²⁾

인간에 대한 이해를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였던 칼빈의 관점들은 내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한다. 이 관점에 따라서 칼빈은 성경의 창조 기사에 입각하여 인간이 진흙으로 빚어졌을 뿐만 아니라, 생기를 부여받고 영혼을 가지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안에 당신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다고 덧붙인다.

2. 참된 종교의 기초인 경건

경건은 칼빈의 신학과 삶의 핵심 주제며 교리이다.⁹³⁾ 그의 여러 문헌과 작품 속에서, 칼빈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건과 그 결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경건은 칼빈 신학의 하나의 공통된 주제라기보다는 그의 신학 전반의 방향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칼빈에게 『기독교강요』는 경건의 총체와 구원 지식에 필요한 핵심 교리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것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읽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책으로 간주하였다.

경건에 대해 언급한 후 칼빈은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관하여 설명한다. 참 종교를 결정짓는 것은 경건이다.⁹⁴⁾ 칼빈은 경건을 외형적인 모습에 나타난 어떤 형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진실한 경건, 참된 신실함으로 표현되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

92) 『신앙교육서』, 제 2절. 이 부분에 관하여 *Inst.*, 와 『신앙교육서』 사이를 비교해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Inst.*, 와는 대조적으로 『신앙교육서』는 첫 초점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는 더욱 포괄적인 질문에 집중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앙교육서』 제 1절의 제목에는 '종교'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Inst.*, 에서는 그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다.

93) 『신앙교육서』 제 2절의 주제인 '경건'은 *Inst.*, 첫 번째 두 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하게 다루어진다.

94) 『신앙교육서』 제 2절에서, 칼빈은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는 전자가 진정한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특징 지워지는 반면에, 후자는 미신과 우상 숭배에 의한다고 하였다.

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만큼 그분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의 의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거역이 죽음보다 더 악하다고 여기고 두려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⁹⁵⁾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종교나 경건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⁹⁶⁾ 하나님의 위엄과 공물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도, 칼빈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들을 통해 종교가 발생되고 이런 능력들이 경건에 대한 우리의 좋은 스승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경건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된 경외라고 부른다.⁹⁷⁾

칼빈은 경건을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스며있는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⁹⁸⁾ 사람들이 경건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는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양육하시는 우리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⁹⁹⁾ 또한 회개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인 경건은 거룩함 속에서 평생 성장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칼빈은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경건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모든 인간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전 삶을 통하여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⁰⁰⁾

십계명에 대한 논의에서도 칼빈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사랑과 경건을 실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참된 경건은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¹⁾ 이 외에도 경건은 교회에 관한 정황 속에서 순수한 교리로부터 얻게 되는 믿음 있는 삶을 내포할 수 있다고 칼빈은 생각한다.¹⁰²⁾ 결국 칼빈은 이 개념을 성경의 전반적인 계시로 이해하면서도, 단지 경건의 교리만으로 취급하는 경

95) 『신앙교육서』, 제 2절.

96) *Inst.*, 1. 2. 1.

97) 『신앙교육서』, 제 2절; *Inst.*, 1. 4. 1.

98) *Inst.*, 1. 5. 4.

99) *Inst.*, 1. 6. 1.

100) *Inst.*, 3. 3. 16.

101) *Inst.*, 2. 8. 51.

102) *Inst.*, 4. 1. 6.

우도 보여주었다.¹⁰³⁾

경건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 그 어떤 것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임은 분명하다. 이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어서 칼빈은 경건을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지는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이며, 경건이 완성된 곳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경건을 강조하였다.¹⁰⁴⁾ 이처럼 칼빈은 경건의 개념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근본적인 어떤 것을 일컫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았고 경건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경건은 사랑, 경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리고 경배의 원천이라고 인식하였다.

3.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 1차 신앙교육서』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참된 경건을 다룬 칼빈은 3절에서 그런 경건의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한다. 먼저 칼빈은 『기독교강요』 1권의 주제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¹⁰⁵⁾ 하나님의 창조를 대단히 눈부신 극장¹⁰⁶⁾으로 본 칼빈은 이 세상을 주께서 그의 영광의 놀랄만한 광경을 보여 주시는 극장으로 생각하였다.¹⁰⁷⁾ 그러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속성을 이해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고 보았다.¹⁰⁸⁾

따라서 칼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나 귀신을 스스로 만들고 있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였다.¹⁰⁹⁾ 이런 이유로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그

103) *Inst.*, 4. 1. 5.

104) *Comm.*, *Acts* 10: 2; *Comm.*, *1 Timothy* 4: 2. 본 논문에서는 칼빈의 신구약 주석 전집인 John Calvin, *Old Testament & New Testament Commentaries*. 42 vols. eds. David F.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72)을 ‘*Comm.*’로 줄여서 표기하기로 함.

105) *Inst.*, 에서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1권)과 구속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2-4권)을 구별한다.

106) *Inst.*, 1. 5. 8; 1. 6. 2; 1. 14. 20; 2. 6. 1; 3. 9. 2.

107) *Comm.*, *1 Corinthians* 1: 21.

108) 『신앙교육서』, 제 3절.

109) *Inst.*, 1. 5. 12.

분의 영원함, 능력, 지혜, 선하심, 공의, 그리고 긍휼과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¹¹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인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¹¹¹⁾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칼빈의 인간 이해는 그들의 무지와 아집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타난 일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근거한다.¹¹²⁾ 『기독교강요』에서 그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하는 영광들과 죄로 인하여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상세하게 다루는 데 다섯 장을 할애한다. 그 다음에, 그는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오려는 자에게 선생과 안내자로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앙교육서』와 『기독교강요』에 기록된 성경의 목적은 창조 사역 가운데 거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명확히 보도록 돕는 것이고 그러한 창조 사역에 어울리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신앙교육서』에서 칼빈은 창조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함은 단지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되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과 긍휼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들이 가진 진정한 목적, 가치,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¹¹³⁾

『신앙교육서』 3절의 마지막 문장은 『기독교강요』의 첫 장을 여는 중요한 문장이며, 모든 신학 문헌들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 가운데 하나이다.¹¹⁴⁾ 칼빈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왜 그리고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묻는다.¹¹⁵⁾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앙, 그리고 사랑을 모두 포함하는 진정한 경건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¹¹⁶⁾ 신앙을 지식으로 표현한 칼빈은 마음과 심정으로 이해하는 지식을 생각하였다.¹¹⁷⁾ 이처럼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비록 말씀

110) *Comm., Romans* 1: 18-23.

111) *Comm., Romans* 1: 20.

112) 『신앙교육서』, 제 3절.

113) *Inst.*, 1. 5. 10.

114) *Inst.*, 1. 1. 1.

115) *Inst.*, 1. 1. 2; 2. 8. 1; 4. 17. 40.

116) *Inst.*, 1. 2. 2.

117) *Inst.*, 3. 2. 8.

으로 알게 되지만 실제적인 지식에 의존한다고 강조한다.¹¹⁸⁾

지금까지 경건에 관한 관찰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경건이라는 용어에 맞추었다.¹¹⁹⁾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관해 아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 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다.¹²⁰⁾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하나님에 관한 거짓되고 죽은 지식에서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것이다.¹²¹⁾ 덧붙여서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은 즉시 우리의 모든 사고들을 삼켜 버릴 거대한 심연과 같다고 꼬집은 칼빈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혹은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지식을 강조하였다.

4.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형상 파괴

인간 본성과 그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며 염세적인 견해를 가진 칼빈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매우 처절하게 묘사한다.¹²²⁾ 그는 인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관하여 그 어느 개혁자들보다 너그러운 자세를 취하였지만, 『신앙교육서』에서는 이러한 인문주의적인 영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인간은 죄와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타고난 능력들을 박탈당하였으며, 단지 영혼이 결여된 육체만을 음미하게 되었다.¹²³⁾ 인간의 타락은 지성과 의지뿐만 아니라, 손상되어 부패해 버린 신체적인 능력에도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어떤 방향으

118) *Inst.*, 1. 6. 2. “참된 종교의 기초는 순종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없다.”(*Comm.*, *Jeremiah* 7: 33) 참조.

119) *Inst.*, 3. 3. 16.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참된 경건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규정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분을 섬길 더 나은 길은 없기 때문이다.”(*Comm.*, *Psalms* 18: 1) 참조.

120) *Inst.*, 2. 8. 51.

121) *Comm.*, *1 John* 2: 3.

122) 『신앙교육서』, 제 4절. ‘인간’ 편에서 칼빈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타고난 능력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123) 『신앙교육서』, 제 4절. 여기에 ‘육체’는 바울 계통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인간의 일부 본성이 하나님께 반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로 우리가 눈을 돌리든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럽고,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에 관하여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며 여전히 인간의 부패로 잔존하는 모든 것은 무서울 정도로 추할뿐이라고 말한다.¹²⁴⁾ 칼빈은 죄의 결과로 영혼의 모든 능력은 죄로 점유되었고 저급한 욕망이 인간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가증한 불경건이 인간 이성의 아성을 점령해 버렸으며, 교만이 그 마음의 은밀한 장소까지 침투해 들어갔다고 하였다.¹²⁵⁾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 어거스틴, 칼빈 등이 전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범죄를 저질렀으며 모든 인류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칼빈은 최종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죄의 독성에 빠져서 오직 죄의 열매만을 맺게 된다고 언급하였다.¹²⁶⁾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거울에서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영했을 것이지만, 죄로 지워져 버린 이 형상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음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회복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서 강화된 것이다.¹²⁷⁾ 그러나 첫 번째 창조보다 이 두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풍성하고 강력하다.¹²⁸⁾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될 여지를 갖게 된다.¹²⁹⁾

5. 자유 의지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죄인의 의지가 노예 의지이며, 이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기 전에는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가장 어두운 색채로 죄악의 실체를 묘사하는 칼빈은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을 첨가시켜서 자유 의지를 설명

124) *Inst.*, 1. 15. 4.

125) *Inst.*, 2. 1. 9.

126) 『신앙교육서』, 제 5절.

127) *Comm.*, 2 *Corinthians* 3: 18.

128) *Comm.*, *Ephesians* 4: 23-26.

129) *Comm.*, 2 *Corinthians* 3: 18.

한다.¹³⁰⁾ 그러나 칼빈은 자유 의지에 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갖게 된다.¹³¹⁾ 타락된 상태의 관점에서 자유 의지를 바라본 칼빈은 “육체에 속한 인간은 전 영혼이 한결같이 죄 속에 거한다”¹³²⁾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칼빈은 인간이 자유 의지와 노예 의지를 모두 갖는다고 말한다. 칼빈 자신은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거나 간단하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의 근본 입장은 명확하다. 원래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았던 인간은 바람직한 구별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¹³³⁾ 자기가 원하기만 했다면 자유 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¹³⁴⁾ 따라서 아담은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오직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알고 바로 설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인간의 자유 의지가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은 처음 인간이 지녔던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와 같이 칼빈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부인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무시하는 결정론에 빠질 수 있으며 또한 인간이 노예 의지를 부인함으로써 운명론에 빠질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자유 의지와 노예 의지를 모두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하나님의 율법과 삶

칼빈은 전통적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율법관을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율법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그의 『신앙교육서』에서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칼빈은 율법의 세 가지 용도와 율법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율법의 용도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을 정확히 측정할 목적으로 당신이 친히 부여하신 규정

130) 『신앙교육서』, 제 5절.

131) *Comm., Romans* 7: 14.

132) *Comm., Romans* 7: 15.

133) *Inst.*, 1. 15. 8.

134) *Ibid.*

혹은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참된 의로움과 인생의 길을 제시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율법의 요구들을 성취할 수 없고, 따라서 율법은 죄인된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진다.¹³⁵⁾ 어거스틴의 말을 따라서 칼빈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에게는 무익하다고 본다.¹³⁶⁾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유익이 된다.¹³⁷⁾ 칼빈은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말한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고,¹³⁸⁾ 둘째는 정치적이거나 혹은 시민 사회적인 용도로 불리어진다.¹³⁹⁾ 칼빈은 이런 율법의 용도를 『신앙교육서』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율법의 세 번째 용도에 대해서는 근접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십계명을 주해하기 전에 『신앙교육서』에 기록하였다.

율법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우리를 지속적으로 훈육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을 버리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권고하는 도구로서 유용하다는 점에서 그 유익성을 찾는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¹⁴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며,¹⁴¹⁾ 우리의 행동을 제어한다. 이런 통제는 건전한 사회에 필요한 것이다.¹⁴²⁾ 율법은 이미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에 사역하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¹⁴³⁾

2. 십계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십계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

135) *Comm., Romans* 7: 5-14.

136) *Inst.*, 2. 7. 9.

137) *Comm., Romans* 6: 14, 7: 4; *Comm., Galatians* 3: 13.

138) *Inst.*, 2. 7. 6-9.

139) *Inst.*, 2. 7. 10, 11.

140) *Comm., Galatians* 3: 24.

141) *Inst.*, 2. 7. 7.

142) *Inst.*, 2. 7. 10.

143) *Inst.*, 2. 7. 12.

의 표준이다. 칼빈은 십계명을 아는 사람이 온전하게 성경을 안다고 하였다.¹⁴⁴⁾ 칼빈은 율법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이해를 가진다. 우선 하나님은 영적인 율법 수여자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¹⁴⁵⁾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되고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¹⁴⁶⁾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십계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⁴⁷⁾ 칼빈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심장, 영혼, 생명, 목적, 마침, 그리고 성취라고 하면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깊이 있게 진술한다. 따라서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와와의 관련 속에서만 해석되어야 한다. 부가적으로 율법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 네 권의 책들에 대한 칼빈의 주석에서 강력하고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¹⁴⁸⁾

결론적으로 칼빈은 십계명을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행하여야 할 것에 관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의 근거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상기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의 주인이심을 밝히면서 그 자유를 누리는 길이 계명에 대한 순종임을 언급하며 율법과 자유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한다.¹⁴⁹⁾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되는 바이다. 그 점에 있어서 칼빈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도록 훈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파악하려고 노력할 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우리의 판단은 점점 흐려지기 쉽다. 특히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윤리적 결정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게 된다. 그러나 칼빈은 이 문제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대답

144) 칼빈이 『신앙교육서』 제 8절에 기록하였던 율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Inst.*, 2. 8. 6-11의 해석을 참조할 것.

145) *Inst.*, 2. 8. 6; *Comm.*, *Romans* 7: 14.

146) *Inst.*, 2. 8. 9.

147) *Inst.*, 2. 9. 11, 12.

148) *Inst.*, 3. 7. 5, 7.

149) 박건택, "자유 개념과 목회 사역,"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22.

한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율법의 개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⁰⁾ 결국 하나님은 율법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다.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다.¹⁵¹⁾

하지만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욱 강조된다는 일반적인 비난에 직면하여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독특한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두 가지 규범들인 율법과 그리스도를 지적한다.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주요한 동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은혜와 죄에 대한 용서함이다. 그리스도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다.¹⁵²⁾

칼빈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취하여 작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아들로서 입양되었다고 칼빈은 주장하기 때문이다.¹⁵³⁾ 또한 율법의 정신¹⁵⁴⁾, 생명¹⁵⁵⁾, 목표, 그리고 완성¹⁵⁶⁾이신 그리스도를 율법은 모든 부분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참으로 율법의 모든 교리, 명령, 약속은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¹⁵⁷⁾ 따라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최고 해석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며 완성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토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원하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보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받을 모델과 형상이라고 주장한다.

3. 칭의와 자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인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자유를 얻었다.

150) *Inst.*, 1. 17. 2; 2. 8. 51, 59.

151) *Comm.*, *Isaiah* 8: 20.

152) *Inst.*, 3. 6. 3; *Comm.*, *Acts* 10: 2; *Comm.*, *1 Timothy* 4: 2.

153) *Inst.*, 3. 6. 1.

154) *Comm.*, *Acts* 7: 30-32; *Comm.*, *John* 1: 11; 5: 38.

155) *Comm.*, *2 Corinthians* 3: 17.

156) *Inst.*, 2. 7. 2.

157) *Comm.*, *Romans* 10: 4.

이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자유이며, 그리스도께 종노릇하는 자유이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곧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건한 삶의 기초이며 그분이 부여하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회개와 중생의 삶을 갖는다”¹⁵⁸⁾고 말한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순종을 통하여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타나게 함을 뜻하는 것이다.¹⁵⁹⁾ 칼빈은 칭의가 두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칭의는 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로 자신을 장식하는 것이다.¹⁶⁰⁾ 칼빈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인으로 선언됨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의미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무엇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¹⁶¹⁾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 칭의 교리를 정립하려고 시도하는 칼빈은 기독교론적 차원에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분명하게 연결시킨다.¹⁶²⁾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관점에서 칭의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파생된다¹⁶³⁾고 보았던 칼빈의 사상은 그의 율법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준다. 칭의와 자유의 관계를 오랫동안 생각하였던 칼빈은 양심이 칭의에 의하여 죄책에서 자유롭게 될 때에, 칭의의 중심적 의미는 분명하게 된다고 이해한다. 그는 진정한 경건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이런 자세는 반드시 믿음의 중요한 행동인 기도로 이어진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자유롭다. 칼빈은 그 근거를 바울의 율법 폐지에 대한 언급에서 찾는다.¹⁶⁴⁾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바울이 말하였을

158) *Comm., Acts* 5: 31.

159) 칼빈은 *Inst.*, 3. 9. 1-4에서 ‘칭의’를 잘 정의해 놓았다. 칭의가 칼빈에게 중요한 것은 칭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고 나서야 자유와 기도에 대한 칼빈의 요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0)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7), 186-187.

161) *Ibid.*, 190.

162)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7), 145.

163) *Inst.*, 3. 19. 1.

164) *Inst.*, 2. 7. 14; *Comm., Romans* 7: 6.

때, 그것은 칼빈에 따르면 우리가 그 힘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율법의 엄격한 요구들과 그 요구들로 말미암은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따라서 폐지된 것은 율법의 규칙이 아니라 절대적인 완성을 위한 요구를 통하여 얻게 된 자유에 반대하는 요소이다. 이제 믿는 자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양심의 끝없는 속박이 주는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었다.¹⁶⁵⁾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양심의 자유'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를 오랫동안 속박시켰던 율법에 복종하셨던 것이다.¹⁶⁶⁾ 따라서 법적인 요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항하고 있었던 그 속박은 벗어졌다.¹⁶⁷⁾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에 근거하며 그 자유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율법 아래뿐만 아니라 복음 아래서도 요구된다. 그러나 양쪽에 대한 순종에는 차이가 있다. 복음에 대한 순종은 더 이상 율법의 명령들에 대해서 요구되는 엄격하고 혹독한 복종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인 순종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완전한 순종에 의하여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키셨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충족되는 것이다.

자유는 자율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정한 주인을 찾는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속된 자유임과 동시에 섬기는 자유다”¹⁶⁸⁾라고 한 루터의 말을 반복한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섬김' 그 자체이며 섬기는 자유이다. 진정한 자유는 순종 안에 거하는 자유이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가 자발적이어야 하듯이 복종 또한 기쁨의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¹⁶⁹⁾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랑과 감사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면 믿음의 순종이 아니다.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

165) *Inst.*, 2. 7. 14, 15.

166) *Comm.*, *Galatians* 4: 4.

167) *Comm.*, *Colossians* 2: 14.

168) *Comm.*, *1 Peter* 2: 16; *Inst.*, 3. 17. 1.

169) 황정욱, “칼빈의 목회,”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73-274.

고 그 분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기쁨의 순종은 단지 그들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제 진정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다. 결국 오직 자유로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지적이며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다고 칼빈은 강조한다.¹⁷⁰⁾

4. 제 3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가지는 세 번째 역할은 아주 중립적인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에 속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용치 않을 자유를 가진다.¹⁷¹⁾ 칼빈은 이 문제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 문제는 구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¹⁷²⁾

인간의 자유는 어떤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그런 한계가 단순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지거나 방해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¹⁷³⁾ 우리의 자유는 이웃들의 발전된 삶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경건한 이들은 사랑의 모든 의무들에 더욱 준비되기 위하여 외부적인 문제들을 자유롭게 처리할 자유를 가졌음을 인식해야 한다.¹⁷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자유에 대하여 벌코프(Berkhof)는 “자유는 사랑을 위하여 존재하고 사랑은 자유를 통하여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¹⁷⁵⁾고 하였다.

율법 폐지의 일회성과 관련하여 칼빈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양심의 끝없는 속박이 주는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한다.¹⁷⁶⁾ 옛 시대 하에서 양

170) *Inst.*, 3. 19. 4.

171) *Inst.*, 3. 19. 7.

172) *Comm., Galatians* 5: 1.

173) *Inst.*, 3. 19. 11.

174) *Inst.*, 3. 19. 12.

175) Hendrikus Berkhof,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462.

176) *Inst.*, 2. 7. 14, 15.

심들은 무서워 떨면서 공포에 시달렸다. 하지만 새 시대가 가져다 준 유익은 그들이 기쁨으로 해방되었다는 데 있다. 옛 시대는 양심들을 속박의 멍에에 묶어두었으나, 새 시대는 그 시대가 가지는 관용의 정신에 의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¹⁷⁷⁾

5. 성령과 자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과 함께 그 뜻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율법과 노예 의지의 합법적인 요구 사항들에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짓이 없고 자발적인 순종은 오직 성령으로 지배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고유한 임무이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율법을 각인하고 순종의 영을 심는다. 죄로 인해 우리 의지가 타락되었고 죄로 기울어졌지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변화시키셨고, 죄로 기울어진 경향들은 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상태로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¹⁷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는데 이 질서로부터 나오는 화평과 일치는 은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최고의 덕목이 되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매우 높이신다. 이런 삶이 지속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영적 축복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할 때 칼빈은 그 의미를 성령이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칼빈은 “당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는다면, 너희는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율법은 단지 너희에게 조언하는 풍부한 가르침만 될 것이다. 더 이상 율법이 너희의 양심을 속박하지 않을 것이다”¹⁷⁹⁾고 말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포함된 엄격한 요구 사항들, 저주, 그리고 율법이

177) *Inst.*, 2. 11. 9.

178) *Comm.*, *Psalms* 40: 7.

179) *Comm.*, *Galatians* 5: 18.

가져다주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죄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들이 처한 자리에서 저주의 고통을 당하셨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자녀들이며 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자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C. 신앙

1. 선택의 목회적 동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율법은 단순히 예비적인 역할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만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⁰⁾

믿음을 논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제는 선택과 예정의 문제다. 선택과 예정은 칼빈의 교리들 가운데 가장 강조되지만 또한 오해되는 것들 중 하나다. 교리적인 문제인 선택과 예정의 문제의 출발은 매우 실제적인 목회적 동기들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 칼빈은 선택자와 유기자가 있다고 말한다.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증거하는 수단이다. 선택은 자주 귀중한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보여준다. 선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고, 이 때 그리스도는 선택의 거울이 되신다. 이처럼 칼빈은 예정을 하나님의 주권의 틀에서 이해하였는데, 선택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예정되었다는 근거를 가진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선택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¹⁸¹⁾

칼빈의 목회적인 동기는 『기독교강요』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¹⁸²⁾ 이 교리는 사람

180) 『신앙교육서』, 제 12절.

181) 유대주, “예정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39-342.

182) 『신앙교육서』, 제 12절.

들의 복음에 대한 상반된 반응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긍휼과 은혜에 기초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킨다.

2. 선택과 소명

선택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지적하면서 칼빈은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이는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순전한 관대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오직 주께서 그의 영원하신 선택에 의하여 당신의 자녀와 하늘나라의 상속자들로 예정하셨던 사람들 속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¹⁸³⁾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인 예정은 각 개인에게 적용된다.¹⁸⁴⁾ 예정 혹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교리가 칼빈 신학의 중심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지만, 그의 세 종류의 『신앙고백서』들, 『제네바 신앙교육서』, 그리고 『기독교강요』¹⁸⁵⁾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칼빈은 이 교리를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틀림없다.

‘이중예정교리’는 인간 이성에 의하여 이해될 수가 없는 오묘한 진리이며 인간 이성 에 장애물과 같은 개념이다. 칼빈은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예정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주님 자신의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그들에 대한 각기 다른 행동을 우리에게 감추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간파하려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였다. 사실상 인간은 자신의 지혜의 지극히 경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심판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¹⁸⁶⁾

선택과 유기 사이의 평행 관계를 생각하는 일부 신학자들과는 달리, 칼빈은 누가 선택되었고 유기되었는지에 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가 이런 입장을 가지는

183) 『신앙교육서』, 제 13절.

184) *Inst.*, 3. 21. 5.

185) *Inst.*, 4. 21-24. 칼빈은 선택에 관하여 1536년에 출판된 *Inst.*, 의 첫 번째 판에서는 단지 두 곳에서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Inst.*, 최종판에서는 네 장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다.

186) 『신앙교육서』, 제 13절; *Comm., Romans* 9: 20; 11: 33; *Inst.*, 3. 23. 1, 4, 5.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약속들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논의에 대해서 칼빈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는 은혜에 집중된다. 그가 우선 강조하는 사항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분의 거저 주시는 자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교리는 믿는 자들에게 불확실성과 혼돈이 아닌 위로의 원천이 된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과 선택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지 못하였다. 칼빈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부터 정하셨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단지 비참한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초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⁷⁾

이 주제에 관한 토론이 벌어지는 모든 곳에서 그는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우리의 선택을 반영하고 명확하게 해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을 다루면서 다시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을 돌아보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이며 가장 진지한 것이며, 서약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거울 안에서 보여주는 생명을 숙고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가장 진지한 것과 서약을 붙들고 있다.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으며,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¹⁸⁸⁾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지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칼빈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그분의 부르심 사이를 구별한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알려지고 경험을 통하여 순용하게 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칼빈은 “우리가 정당하게 그분의 계획을 아는 만큼 하나의 징표에 의한 것처럼 이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 . .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 출발하여 그것으로 끝나야 한다”¹⁸⁹⁾라고 말한다.

187) 『신앙교육서』, 제 13절; *Inst.*, 3. 21. 1.

188) *Comm., Ephesians* 1: 5, 8.

189) *Inst.*, 3. 24. 4.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이 감추어진 은밀한 것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즉 그의 부르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¹⁹⁰⁾ 또한 그는 영원한 예정을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한 실체로 본다. 이 부르심은 보편적이며 외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르심은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각인하고 비준하는 확실하고 특별한 것이다.¹⁹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당신의 외적인 증거이며, 그분 안에 감추어진 대가없는 입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원천인 선택에 관하여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접근 자세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뜻에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¹⁹²⁾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우리의 구원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선택 교리는 주로 복음적인 은혜 교리에 관한 표현이다.

칼빈은 예정에 관한 토의에서 구원의 기초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주제로 되돌아간다. 예정은 유희과 시련의 때에 버팀목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¹⁹³⁾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¹⁹⁴⁾

3. 믿음에 대한 자세

선택에 대해 살펴 본 후에 칼빈은 바로 믿음의 주제로 돌아간다.¹⁹⁵⁾ 그는 믿음을 역사적 사건들과 근본적인 교리들에 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에 대한 가슴의 확신으로 보았다. 하지만 무지가 아닌 지식에 근거하는

190) *Comm., John* 6: 40.

191) *Comm., Romans* 8: 28; *Comm., Matthew* 22: 14; *Inst.*, 3. 24. 8.

192) *Comm., Daniel* 12: 1.

193) *Comm., Ephesians* 1: 4.

194) *Comm., Romans* 8: 39.

195) 『신앙교육서』, 제 14절.

믿음은 약속들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¹⁹⁶⁾ 또한, 믿음에 관한 지식은 뇌보다도 가슴의 문제며, 이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질의 문제가 때문에 이 지식은 특별하다.¹⁹⁷⁾

지식으로서의 믿음은 인간의 감각적 인식을 통한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넘어가며 일어나야 하는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마음이 도달한 곳에서도 믿음은 그것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확실한 설득으로 믿음은 그 능력에 의해 인간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잘 이해하게 된다.¹⁹⁸⁾

믿음에 대한 언급에서 칼빈은 마음과 머리에 대한 비유가 단지 사람의 몸에 대한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오히려 이것은 믿음이 확고하고 효과적인 자신감이며 단순한 텅 빈 관념이 아님을 주장한다.¹⁹⁹⁾ 칼빈은 믿음에 있어서 지성과 의지를 모두 강조하였지만 지성보다는 의지를 더 강조하였다. 그는 신앙에서 의지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지성의 역할을 주변에 둔다. 또한 칼빈에게 있어 믿음은 성령의 행위인 동시에 인간의 행위이며,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스도의 공적, 성령의 역사가 중심적이지만, 성도의 삶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가 주변적으로 존재하였다.²⁰⁰⁾

4. 믿음과 이신칭의

복음에 있는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에 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믿음의 영구한 대상'이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확인되며, 제시되고, 완성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모든 신적인 자비의 부요함을 제공해 주시는 믿음의 지속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확실하다.²⁰¹⁾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믿음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6) *Inst.*, 3. 2. 36.

197) *Inst.*, 3. 2. 8; *Inst.*, 3. 2. 14, 23, 24, 30.

198) *Inst.*, 3. 2. 14; *Comm., John* 6: 69.

199) *Comm., Romans* 10: 10.

200)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155.

201) 『신앙교육서』, 제 14절.

진정한 믿음에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자비롭게 나를 향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실 것이라는 지식이다. 바꾸어 말하면, 오직 은총 위에서만 사람의 심장이 쉽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총의 약속이 필요하다.²⁰²⁾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외적인 유일한 서약이 되신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주어진 진리의 약속에 기초된 지식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는 이 지식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서 견고하고 확실하게 된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 또한 믿음의 창시자요 저자이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접촉계 역할을 하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롭고 언약적으로 이루어진다.²⁰³⁾ 믿음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효과적으로 우리를 자신에게 묶어주도록 하는 끈으로, 이것은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하다.²⁰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믿음의 확실성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일체에 있다.²⁰⁵⁾ 칼빈은 종종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신비적인 결합'이라고 한다.²⁰⁶⁾

칼빈은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로 인해 다시 종교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한다.²⁰⁷⁾ 칼빈은 칭의를 간단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호의 안으로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받으시는 수납'으로 정의한다.²⁰⁸⁾ 선한 행위에 대한 토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들어오는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깨끗함을 받아

202) *Inst.*, 3. 2. 7.

203)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229-230.

204) 『신앙교육서』, 제 15절.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우수하고 독특한 선물이다." *Comm.*, 2 *Corinthians* 1: 22; *Comm.*, *Ephesians* 1: 13; *Comm.*, *Romans* 8: 16 참조.

205) *Inst.*, 3. 2. 24.

206) 믿음은 단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와의 독특성을 지닌 친밀한 교제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영적인 결합은 *Inst.*, 4. 17. 1, 8-11과 *Inst.*, 3. 2. 24에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주의 만찬에 관한 그의 논의에서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207) *Inst.*, 3. 11. 1.

208) *Inst.*, 3. 11. 2.

죄 용서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서게 된다”²⁰⁹⁾고 그는 더욱 완성된 정의를 내린다.

칼빈에게 칭의는 단지 법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의인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이다.²¹⁰⁾ 한마디로 칭의는 죄의 사면과 전가로 구성된다.²¹¹⁾ 따라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수납되는 것이며, 용서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선물들 중의 하나는 양심의 평화와 조용한 기쁨이다.²¹²⁾ 결국 칼빈에게 있어 칭의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선물들 중의 하나인 경험적인 현실이다.²¹³⁾

5.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소망

칼빈에게 ‘성화’는 ‘칭의’만큼 중요한 것으로서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중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간섭에 의하여 모든 순결과 무죄로 성화가 된다.²¹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두 배의 은혜를 받는데, 이것이 칭의와 성화이다.²¹⁵⁾

칼빈은 선행 없는 믿음도, 그러한 것들이 없는 칭의도 생각하지 않는다.²¹⁶⁾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의 완전으로 우리의 불완전이 씻겨지며,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불충분한 우리에게 그의 의가 자유롭게 우리에게 전가된다.²¹⁷⁾

이것이 칼빈의 ‘이중칭의’의 교리이다. 우리의 선행들은 감사의 표시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한 복종에 의해 성화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²¹⁸⁾

209) *Inst.*, 3. 17. 8.

210) *Comm.*, *Romans* 4: 3.

211) *Inst.*, 3. 11. 2.

212) *Inst.*, 3. 13. 3, 5.

213) *Inst.*, 3. 14.

214) 『신앙교육서』, 제 17절.

215) *Comm.*, *1 Corinthians* 1: 30.

216) *Ibid.*

217) 『신앙교육서』, 제 19절.

218) 『신앙교육서』, 제 17절.

칼빈에게 회개는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한 평생 진행되는 과정이다.²¹⁹⁾ 또한 회개 혹은 중생은 억제와 소생을 의미한다. ‘억제’는 죄와 우리 자신들로부터 죽는 것을, 그리고 ‘소생’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향하여 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옛 본성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되는 억제는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강렬하게 죽게 되고 파멸의 상태’가 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²²⁰⁾ 중생은 소생으로 생기는 거룩하고 헌신된 방식으로 살 욕망에 근거한다.²²¹⁾

칼빈은 여기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였다”²²²⁾는 전제를 가진다. 따라서 칼빈은 회개를 중생과 동일하게 해석하며²²³⁾ 회개의 유일 목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²⁴⁾ 이런 회복은 한 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주 느리게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 안에서 육체의 부패들을 씻어서 그들의 죄를 청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 삶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모든 마음을 정결하게 소생시켜 거룩한 성전으로서 헌신하도록 하신다.²²⁵⁾

사도신경에 대한 간단한 분석에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 의존된 믿음과 그 강화에 대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한다.²²⁶⁾ 또한 그는 믿음과 소망이 결합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의 유명한 정의에 기초하여 믿음과 소망과의 관계를 묘사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게 한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성을 적절한 때에 보여주시고 또한 합당한 행동을 하실 것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다. 소망은 그것이 가끔 보여지게 되기를 기다린다. 믿음은 소망이 기대는 기초이고, 소망은 믿음을 양육하며 그것을 지탱한다.²²⁷⁾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들 속에서 흔들리거나, 진리에 관하여 의심

219) 『신앙교육서』, 제 18절.

220) *Inst.*, 3. 3. 8. 칼빈은 억제(mortification)와 소생(vivification)을 모두 회개(repentance)의 구성 요소들로 간주한다. 즉, 회개란 육체가 억제되고 영이 소생되는 것이다.

221) *Inst.*, 3. 3. 3.

222) 『신앙교육서』, 제 18절.

223) *Comm., Colossians* 3: 10; *Comm., Ephesians* 4: 22.

224) *Inst.*, 3. 3. 9.

225) 『신앙교육서』, 제 18절.

226) 『신앙교육서』, 제 20절.

227) 『신앙교육서』, 제 21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망은 믿음을 강화한다. 믿음이 지치지 않기 위하여 소망은 믿음을 새롭게 한다.²²⁸⁾ 칼빈은 믿음과 소망이 단지 하나의 기초 위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²²⁹⁾ 칼빈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한 설득 위에서, 특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약속들 안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임을 믿게 하며, 소망은 그의 진리가 명백하게 될 시간을 기다린다.

D. 사도신경

1. 사도신경과 삼위일체

사도신경의 저자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음을 인정한 칼빈도 성경의 확실한 증언에서 그것이 파생되어 결합되었음을 인정하였다. 특히 그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으며,²³⁰⁾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반영한 새로운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적절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칼빈의 사상에서 사도신경의 중요성은 『기독교강요』의 후기 판에 이르러서야 반영된다.²³¹⁾ 우리가 칼빈의 다양한 저서들에 묘사된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려면, 우리는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의 입장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신앙교육서』에서 칼빈은 삼위일체에 대해 잠시 동안 언급한다.²³²⁾ 포이티어스, 제롬,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였던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부드럽게 대처하였다.²³³⁾

칼빈에게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자들의 관심인 동시에 신앙과 삶에 대한 살아있는 가

228) *Inst.*, 3. 2. 42.

229) *Inst.*, 3. 2. 43.

230) 칼빈은 초기에 전통적인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그의 신학적 정통성을 의심 받았다.

231) 칼빈은 사도신경을 첫 두 판에서는 단 한 장에서만, 1543년 셋째 판에서는 네 장에서 다루었지만, 1559년 최종판에서는 이것이 *Inst.*, 전체 구조의 뼈대가 되었다.

232) 『신앙교육서』, 제 20절.

233) *Inst.*, 1. 13. 5, 6.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정의는 요한복음 1: 1에 근거해서 세 본질과 세 위격을 그 기능들과 함께 확실히 한다.

르침이다. 칼빈의 주요 관심은 이론적이며 철학적인 것보다 실천적인 것과 종교인 특징에 관한 것이었다.²³⁴⁾ 칼빈의 삼위일체 개념은 단순성, 순수성, 동등성의 특징을 가진다.²³⁵⁾ 그의 주요한 관심 중 하나는 위격들의 공존성 문제인데, 칼빈은 삼위일체의 전통적 개념인 종속주의를 제외하였다. 또한 그는 특별히 로고스 기독교론에서 보다 분명하게 성자의 자기 실재를 주장하였다.²³⁶⁾ 결론적으로 칼빈의 삼위일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으로서의 자존성, 공존성의 강조, 한 분 하나님 안의 세 인격을 주장한다.²³⁷⁾

워필드는 분명히 칼빈의 삼위일체 교리가 칼빈의 종교적인 의식에 관련되지 않으며, 단지 그의 가장 심오한 종교적 감정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사도신경의 첫 구절에 관한 매우 짧은 논의에서, 칼빈이 우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체결하셨던 계약과 그의 섭리를 다룬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고백의 핵심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 우리가 그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받아들이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명백히 성경을 통해서 이 계약에 관해 생각하였던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과 계약의 하나님을 믿었다.²³⁸⁾ 또한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를 논의하는 칼빈은²³⁹⁾ 하나님을 창조 후 사역에 관심이 없는 냉정한 분으로 보는 것은 신적인 권능으로 비취는 하나님의 임재를 왜곡해서 보는 불경건한 사람의 자세일 뿐이라고 보았다.²⁴⁰⁾

2. 칼빈의 기독교론

니젤(Niesel)은 유명한 『칼빈의 신학』에서 칼빈 신학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특징을 지적하였는데, 그의 중요한 공헌은 칼빈 신학의 복음주의적 논쟁인 칼빈 연구에 있어서

234) *Inst.*, 1. 13. 23. '본질' 혹은 '실재'란 의미인 'ὁφύστασις'와 'perzona'는 차이가 있겠지만, 각각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 공유되며, 하나의 본질 혹은 위격의 연합 안에서 결합된다.

235) B. B. Warfield, *op. cit.*, 230.

236) *Ibid.*, 234.

237) *Ibid.*, 243.

238) 『신앙교육서』, 제 20절.

239) *Inst.*, 1. 16-18.

240) *Inst.*, 1. 16.

경시된 측면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칼빈은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고, 목표이며, 목적이라고 말하였다”²⁴¹⁾고 한 언급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칼빈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경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²⁴²⁾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해도, 성경의 핵심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인격과 사역’이라는 주제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 때문에, 칼빈의 기독교론은 부분적으로 그의 다른 신학 분야처럼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1538년 신앙교육서』에 공헌한 반면에, 『기독교강요』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²⁴³⁾ 그리스도의 두 직분(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르쳤던 초대 교회처럼, 칼빈도 『신앙교육서』에서 두 직분만 가르쳤다. 그러나 1539년의 『기독교강요』 두 번째 판에서는 『1541년 신앙교육서』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을 덧붙였다.²⁴⁴⁾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 그가 교회의 영원한 지배자이며 옹호자시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마귀와 세상과 육에 대한 모든 투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며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식하게 하셨다.²⁴⁵⁾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자기 희생과 죽음으로 이루신 죄에 대한 유일한 만족과 중보의 간구하심을 의미하는데, 그는 지금도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하고 계신다.²⁴⁶⁾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속죄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해야 할 주제다. 속죄에 관한 논쟁에서, 칼빈의 ‘만족설’, 혹은 ‘형벌 이론’은 이에 대한 안셀름(Anselm)의 접근을 개선한 것이다. 이 용어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았던 칼빈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고 말한다.

241)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26.

242) *Comm., John* 5: 39; *Comm., 2 Corinthians* 3: 16.

243) 사도신경에 관하여 논하는 곳은 『신앙교육서』 제 2-5절과 *Inst.*, 3. 20. 12-17에 있다.

244) 『신앙교육서』, 제 39절.

245) *Comm., Isaiah* 7: 14.

246) 『신앙교육서』, 제 40절.

칼빈은 『기독교강요』의 최종판에서 “대속적인 죽음의 회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그분께만 속해 있다”²⁴⁷⁾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죄 사함, 하나님의 진노의 소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긍휼임을 강조한다.²⁴⁸⁾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세 번째 직분을 강조하면서, 칼빈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에 선지자로 오시며,²⁴⁹⁾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모든 것을 계시하실 것이기에,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대사가 되었다고 말한다.²⁵⁰⁾

칼빈은 이 직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세 직분에 모두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 직분들은 모두 우리의 선을 위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은사를 받으셨다.²⁵¹⁾ 또한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에서 얻어지는 개인적인 유익은 우리의 주인과 교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학자가 되도록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²⁵²⁾

칼빈은 그의 모든 저서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그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고 강조한다.²⁵³⁾ 그는 십자가에 완전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구원의 성취를 재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보고,²⁵⁴⁾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본질을 분리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가 씻겨졌고 죽음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부활을 통하여 의

247) *Inst.*, 2. 15. 6; *Comm., Hebrews* 9: 22.

248) *Inst.*, 2. 17. 3.

249) *Comm., Hebrews* 7: 14.

250) *Comm., Hebrews* 1: 2.

251) 『신앙교육서』, 제 40절.

252) 『신앙교육서』, 제 44절.

253) *Inst.*, 4. 1. 12; *Comm., Hebrews* 2: 9.

254) *Comm., 1 Peter* 1: 3.

가 소생되었고 생명이 살아났다 말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이 소멸되어서 우리 안에 효험이 있게 된다.²⁵⁵⁾

칼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 승리를 얻도록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²⁵⁶⁾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²⁵⁷⁾

칼빈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조한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은혜를 설명한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²⁵⁸⁾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으신 '거룩한 형제애'의 미덕으로 천국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른다.²⁵⁹⁾

그리스도 승천의 두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으나, 주님이 우리의 대리자와 증보자로서 아버지에게 가셨기 때문에 칼빈에게 있어 승천은 결정적으로 강조되는 교리이다.

세 번째 은혜는 마귀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넘으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 상징화 된 힘이다. 마침내 적들을 파멸시킨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시며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그들을 부요케 하실 것이다. 또한 칼빈은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힘이 현존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²⁶⁰⁾

칼빈에게 있어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255) *Inst.*, 2. 16. 13.

256) 『신앙교육서』, 제 20절.

257) *Comm., Galatians* 6: 14.

258) *Inst.*, 2. 12. 2.

259) Anthony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Wm Eerdmans Publishing Co., 1979), 1.

260) 『신앙교육서』, 제 20절 5항.

근원이시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모든 교회는 고통을 당하고 선포된 모든 복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말로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이다. 심판을 위한 보좌가 마련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될 것이다.

E. 기도

1. 기도와 믿음

칼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도에 큰 비중을 둔다. 역사적으로 유명하였던 기도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도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논의한 글은 그 중심에 위치한다.

기도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는 믿음이다. 즉, 기도와 믿음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다. 기도가 전적으로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부족을 확실히 깨닫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부족의 상태에서 사람은 자신의 가련함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구원의 손길을 찾게 된다. 즉, 그는 창조주이신 주님을 찾음으로써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하늘의 모든 보화를 열어주실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총체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목상하며, 그의 전 기대는 그분께 의존하며, 그의 모든 소망은 그분께 집착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갖게 된다.²⁶¹⁾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요 훈련은 기도하는 것이며, 이것은 신앙의 참된 증거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믿음은 진정한 기도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필수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⁶²⁾ 특히 칼빈은 성경의 약속은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연료와 같

261) 『신앙교육서』, 제 22절.

262) *Inst.*, 3. 20, 27; *Comm., Romans* 10: 14, 17; *Comm., Psalms* 25: 8.

다고 하면서 성경을 좋아하였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는 신앙이며,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자 호흡과 같아서 거룩한 교리에 대한 지식이 내 몸에 살아 움직이는 표가 된다. 기도의 중요성 때문에 칼빈은 기도에 원칙과 형식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논한다.²⁶³⁾

또한 기도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필수 과정이다.²⁶⁴⁾ 이런 이유로 기도가 칼빈의 경건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경건은 예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는 기도로 입증되기 때문이다. 기도와 믿음은 모두 그 초점과 목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 따라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일차적인 반응이다. 우리에게 가능한 이러한 풍부한 요소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엄청난 보화가 땅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시하는 것과 같다.²⁶⁵⁾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보게 되며, 그 보화들을 기도를 통하여 파내게 되는 것이다.²⁶⁶⁾

칼빈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에서 기도와 예배의 의미를 찾는다. 여기서 그는 고넬료가 연단 받을 때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렸다고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칼빈은 진심으로 열렬히 예배에 몰두하였던 고넬료가 거기에서 신앙의 힘을 얻었다고 추측하였기 때문이다.²⁶⁷⁾

자비로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기 원하신다.²⁶⁸⁾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 간청해야 한다. 또한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놀라운 평화와 안정을 갖게 된다.²⁶⁹⁾ 기도는 살아있는 신앙 표현이며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는 목적이

263) 신복윤, *op. cit.*, 239-240.

264) *Inst.*, 3. 20.

265) 『신앙교육서』, 제 22절.

266) *Inst.*, 3. 20. 2.

267) 이수영, “경건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75-276.

268) 『신앙교육서』, 제 24절.

269) *Inst.*, 3. 20. 2.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받으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도의 필요성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대하심이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들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신자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이 생긴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²⁷⁰⁾ 우선 믿음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기도해야 할 여섯 가지 이유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도록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하나님께 알려 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넷째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섯째로,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섯째로, 우리가 연약한 매일수록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 주신다.²⁷¹⁾

칼빈은 기도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를 하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해지는 일종의 약속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원, 기쁨, 하소연을 포함한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내어놓을 수 있다.²⁷²⁾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며,²⁷³⁾ 우리 마음의 순수한 감정의 작용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²⁷⁴⁾ 기도는 우리의 '선택적인 행동'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주는 약속과 함께 온다.²⁷⁵⁾ 하

270) *Inst.*, 3. 20. 3.

271) 신복윤, *op. cit.*, 242-243.

272) 『신앙교육서』, 제 23절.

273) *Inst.*, 3. 20. 5.

274) 『신앙교육서』, 제 23절.

275) *Ibid.*

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모두 기도의 동기와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으시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전능하신 창조자에게 나아가는 것은 경솔한 행위일 것이다.²⁷⁶⁾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나쁜 죄'라는 것이다.

3. 기도의 규칙들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신자들을 위하여 적절한 기도의 규칙들을 열거하고 논했다.²⁷⁷⁾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합당하게 대화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²⁷⁸⁾ 이런 자세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께 의존해야 한다.²⁷⁹⁾ 그 다음에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탄원을 불타는 열성으로 아뢰어야 한다. 전심으로, 진지하게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합당한 기도의 전제 조건은 통회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다.²⁸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과 가치에 대한 생각은 일체 포기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고백적인 응답이다. 신자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²⁸¹⁾ 또한 모든 기도는 죄의 고백과 용서의 간청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어야 한다.²⁸²⁾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태에서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경외가 수반되어야 한다.²⁸³⁾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회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인자하시고 신실하시

276) *Inst.*, 3. 20. 13.

277) *Inst.*, 3. 20. 4-12.

278) *Inst.*, 3. 20. 4.

279) *Inst.*, 3. 20. 5.

280) *Inst.*, 3. 20. 7.

281) 『신앙교육서』, 제 23절.

282) *Inst.*, 3. 20. 9.

283) *Inst.*, 3. 20. 11.

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²⁸⁴⁾ 이처럼 칼빈의 신학은 추상적이거나 사색적인 체계가 아니라 명백하게 실질적이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으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기도에 온 정신을 바쳐야 하고 산만한 생각으로 주의가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 정신을 모으기 어려울 때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²⁸⁵⁾

칼빈에게 있어서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성화의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시간에 기도할 것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인내로 간구할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준다.

4.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기도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청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만 존재한다.²⁸⁶⁾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요 책임이다. 주기도문의 여섯 가지 간략한 간구는 합법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의 모든 요점들을 간결하게 포함한다.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련되고, 다음의 세 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의 행복과 유익에 관련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처음 세 가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뒤의 세 가지 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²⁸⁷⁾

주기도문에는 네 가지 특별한 주제가 포함된다. 우선 칼빈은 '그리스도와 의 화해'라는

284) *Inst.*, 3. 20. 14.

285) 장훈태, "칼빈의 기도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96.

286) 『신앙교육서』, 제 24절.

287) *Ibid.*

측면에서 기도를 언급한다. 칼빈은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것은 특별한 명령이며 기도의 응답은 그 이름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된다.²⁸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 그는 우리의 입이시므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말하며, 그는 우리의 눈이시므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본다고 초대 교부 암브로스는 언급한다. 따라서 그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의 의미는 다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총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⁸⁹⁾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오로지 그 분을 통하여 기도해야 한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중재자로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끊임없이 중보하신다.²⁹⁰⁾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열쇠는 그의 중보에 있다. 우리는 이 중보로 인해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²⁹¹⁾ 그리스도는 자기 죽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의미 해석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가²⁹²⁾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양자의 언약에 대한 더 확실한 보장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양자됨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자유롭게 크게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침없이 성령으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다.²⁹³⁾

주기도문의 서두가 ‘나의 아버지’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기에 칼빈은 주기도를 ‘공중 기도’라고 강조한다. 이런 구별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함의적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한 분이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그리

288) 『신앙교육서』, 제 24절 1항.

289) 신복윤, *op. cit.*, 255.

290) *Inst.*, 3. 20. 17-20.

291) *Inst.*, 3. 20. 19.

292) *Inst.*, 3. 20. 36.

293) *Inst.*, 3. 20. 37.

고 우리의 몫으로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그것들 중 우리 중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없고, 또 그것은 필요할 때 우리가 기쁨과 온 맘으로 서로 나누기 위해 예비된 것이다.²⁹⁴⁾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성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연대감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²⁹⁵⁾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기도들은 우리 주님이 당신의 나라와 가정에 건설해 놓으신 공동체를 바라보듯이 해야 한다.

‘나라이 임하옵시고’라는 두 번째 간구를 주해하면서 칼빈은 성도들의 삶과 교회 안의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였다. 칼빈에게 이 간구는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이다.²⁹⁶⁾ 그는 『신앙교육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풍성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것으로 정의한다.²⁹⁷⁾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강력한 힘을 통하여 사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심연 속에 빠뜨려 넘어뜨리시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개인적인 측면이 지배적이다.²⁹⁸⁾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간 다르게 정의한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 체결된 언약에 관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그 언약의 체결은 개인적인 삶 속에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깊이 관련된다. 칼빈은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후자는 전자의 증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방법으로 세워지는데, 칼빈은 교회 성장이 그 중의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온 땅의 교회들의 수적 부흥과 그 안에서의 정당한 질서를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주께서 매일매일

294) *Inst.*, 3. 20. 38.

295) *Inst.*, 4. 17. 38.

296) 『신앙교육서』, 제 24절.

297) 『신앙교육서』, 제 24절 3항.

298) *Ibid.*

믿는 자들을 그의 백성에 더하신다는 목표를 제외하고는 『신앙교육서』에서 앞서 인용한 내용과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신앙교육서』에 지나가면서 언급되었던 것이 『기독교강요』에서는 더욱 충실히 발전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말씀의 사역을 나타내실 때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기다리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주의 영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사 바로 서게 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사 인내하게 하신다.²⁹⁹⁾

칼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한편으로는 말씀 전파의 힘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은밀한 힘으로 실현 시키신다”³⁰⁰⁾고 말한다. 그리고 칼빈은 이전에 믿는 자들의 삶의 갱신과 사탄을 포함한 하나님의 적들의 정복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였다. 이 두 경우의 목표는 혼란하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는 것이다.³⁰¹⁾

『신앙교육서』에서 칼빈은 기도에 대한 주해를 기도를 위한 인내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으로 끝맺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를 배우게 되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³⁰²⁾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인내하며 낙담하거나 단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과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기도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우리의 기질대로 내버려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소멸하고 말 것이다.”³⁰³⁾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따라서 칼빈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루에 여러 차례 드리도록 강조하였다.

299) *Inst.*, 4. 20. 42.

300) *Comm.*, *Matthew* 6: 10.

301) *Comm.*, *1 Corinthians* 15: 28.

302) 『신앙교육서』, 제 25절.

303) *Comm.*, *Psalms* 55: 18.

F. 세례와 성찬

1. 교회의 표지로서의 성례

『신앙교육서』에서 칼빈은 교회 자체에 대해 별로 논의하지 않고 단지 교회의 몇 가지 양상들만을 다루고 있다.³⁰⁴⁾ 칼빈에게 있어 교회는 명백한 표지들을 가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표지들은 다른 모임들로부터 교회를 구별시키는 기능을 한다.

칼빈 신학의 핵심은 처음부터 ‘말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삼각 구조의 틀 안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이다. 그러나 칼빈은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³⁰⁵⁾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첫째,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시하신다. 둘째, 그는 성례전으로 그것을 확증하신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시고 말씀과 성례전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³⁰⁶⁾고 말씀과 성례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성례들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³⁰⁷⁾고 하였던 어거스틴의 언급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들으며 또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는 곳이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함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³⁰⁸⁾고 칼빈은 역설한다. 즉, 그에게는 장소에 상관없이 이 두 가지 표지들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곳에는 진정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304) 『신앙교육서』, 제 26-29, 30, 32절. 그것들은 복음에 근거하는 두 종류의 성례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들과 그들에게 부여된 능력들’, 그리고 ‘출교’이다. 반면에, 그는 *Inst.*, 4권에서 교회에 관해서 상세하게 논의하는데, 그 논의된 분량이 이 책의 삼분의 일을 차지할 정도다. 이에 대하여 S. Whale, *The Tradition of Protestan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60), 145 참조 바람.

305) 한철하, “신학 방법: 칼빈의 과학적 신학 방법,” 『최근의 칼빈 연구』,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1), 74.

306) *Inst.*, 4. 14. 8.

307) *Inst.*, 4. 14. 6.

308) *Inst.*, 4. 1. 8.

2. 칼빈의 성례관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수납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즉, 우리는 특별한 유형의 보조물을 필요로 하는데, 이 보조물이 바로 성례이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확고해지는데 도움을 얻는다.³⁰⁹⁾

성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위한 신앙의 행함이다.³¹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들에게는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확증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성례란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신앙을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신 뜻을 제시해 주고 또 증거해 주시는 외적인 표이다. 보다 간결하고 분명하게 말하면, 성례란 외적인 표를 통해 공표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이다.³¹¹⁾

성례란 외면적 표시에 의하여 확인되는 신적 은혜의 증거이며, 우리 경건의 증명이기도 하다.³¹²⁾ 칼빈은 이렇게 성례를 정의하고 나서 그 의미는 어거스틴의 다음 정의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례는 거룩한 것의 유형적 표시이며, 혹은 불가견적 은혜의 유형적 형식이다. 성례는 오직 신적 약속에 달려있다. 성례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의 확증에 불과하다. 그것은 단지 믿게 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³¹³⁾ 칼빈은 성례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가지는데, 거의 모든 면에서 루터와 비슷한 수준이다. 성례를 ‘고귀한 천상의 신비’³¹⁴⁾ 그리고 ‘믿음의 기둥’³¹⁵⁾으로 보았던 그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에 대한 증거라고 인정하였다.

성례에 대한 칼빈의 이해에서 ‘성례의 의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309) 한철하, *op. cit.*, 73.

310) 『신앙교육서』, 제 26절.

311) 『신앙교육서』, 제 27절.

312) *Inst.*, 4. 14.

313) 신복윤, *op. cit.*, 223.

314) 『신앙교육서』, 제 26절.

315) *Inst.*, 4. 14. 6.

것은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성례의 주체며, 실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확실성을 가지며 그리스도를 제외한 성례는 아무런 약속도 없다.³¹⁶⁾ 왜냐하면 성례의 유익은 성령을 통하여 오며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참여케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적인 표시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다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지만,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었을 때, 성례의 가치는 부끄럽게도 파괴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외적인 요소들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성례를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것이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와 같은 것이며, 성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그의 권속들을 먹이고 그들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것과 같다.

3. 세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세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돕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³¹⁷⁾ 종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세 가지 유익을 얻는다고 칼빈은 말한다. 먼저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보여준다.³¹⁸⁾ 따라서 어려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은 자신의 세례를 스스로 회상해야 한다. 또한 세례는 위로와 확신의 영원한 근원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우리의 육이 죽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의 삶을 견게 된다”³¹⁹⁾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이다.³²⁰⁾ 그런데 세 번째 유익은 『신앙교육서』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유사한 표현이 세례에 관한 논의의 초두에 나온다.³²¹⁾

316) *Inst.*, 4. 14. 16.

317) 『신앙교육서』, 제 28절.

318) *Inst.*, 4. 15. 1.

319) *Comm., Romans* 6: 3-11.

320) *Inst.*, 4. 15. 6.

321) 『신앙교육서』, 제 28절.

일반적으로 세례의 이차적 목적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³²²⁾ 외부와 고립되어 있는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으며, 그런 이들의 공동체는 강해질 수 없다.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사이의 교제에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가시적인 표시이다.

칼빈은 세례가 없는 곳에 구원도 없다고 하는 사상을 배척한다.³²³⁾ 그에게 있어 세례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한 수단에 불과하다. 성령께서는 세례 없이도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고,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되게 하실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서 칼빈은 세례 받지 않고 죽은 아이는 지옥에 간다고 주장한 어거스틴의 견해를 거절하였다.³²⁴⁾

또한 칼빈은 『신앙교육서』에서 유아세례에 관하여 짧게 언급한다.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세례를 통해서 인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참여자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³²⁵⁾ 그러나 유아세례를 거절하였던 재세례파에 반박하려고 그는 『기독교강요』에서 이에 대하여 많은 언급을 한다.³²⁶⁾ 특히 여기서 그는 은혜 언약에 기초하여 할례와 세례를 대등하게 여겨서 둘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강조한다.³²⁷⁾

유아세례에 관해서 그는 “하나님의 중생 사역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태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³²⁸⁾고 말한다. 따라서 미래의 회개와 신앙을 위해 세례를 받는 유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며 적절한 시기에 뚜렷한 모습을 드러낸다. 유아세례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그의 선택 교리에 맞추어진다. 하지만, 유아 세례에 대한 논의에서 그는 선택 교리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다.

322) 『신앙교육서』, 제 28절; *Inst.*, 4. 15. 13.

323) *Inst.*, 4. 16. 26.

324) 신복윤, *op. cit.*, 230.

325) 『신앙교육서』, 제 18절.

326) *Inst.*, 4. 16. 3-6.

327) *Inst.*, 4. 16. 3.

328) *Comm., Matthew* 9: 14; *Inst.*, 4. 16. 19, 20.

4. 성찬

복음에 근거한 두 번째 성례는 성찬이다. 성찬은 칼빈의 신학과 목회 사역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나누신 떡과 포도주를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³²⁹⁾ 오히려, 성령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그는 성찬을 그리스도의 영과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경고할 정도였다. 『신앙교육서』에서 칼빈은 떡과 포도주를 가시적인 표시로 보았다.³³⁰⁾

칼빈은 성례의 효력을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례의 본질적인 힘에 있다. 칼빈은 구체적이며 생생한 언어로 “우리가 주의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취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 예수를 공급 받는다”³³¹⁾고 신중히 말하였고 또한 그것을 믿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무한한 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늘 위의 삶을 동경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³³²⁾

그러나 칼빈은 “멀리 떨어져있는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로 들어온다는 것은 믿기 어려워 보인다”³³³⁾고 말한다. 따라서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살과 피에 임재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유물론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 원소들을 우리에게 매개체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원소들에 포함된다는 주장에도 반대한다. 예수께서는 성찬식에서 물리적으로는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그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여기서 성례에 대한 칼빈 신학의 열쇠는 다른 교리들에서처럼 성령이다.

성찬에 관한 칼빈의 근원적인 전제는 “송찬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에 거하신다”³³⁴⁾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의 몸은 투터의 생각처럼 어디에나 계실 수 없다. 비록

329) *Inst.*, 4. 17. 30.

330) 『신앙교육서』, 제 29절.

331) *Inst.*, 4. 17. 24.

332) *Inst.*, 4. 17. 9.

333) *Inst.*, 4. 17. 10.

334) 『신앙교육서』, 제 29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런 장소의 격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양육하지 못하게 할 수 없으며, 그들은 여전히 그와 함께 영원한 교통을 즐긴다.

성찬에 관한 한 주석에서, 칼빈은 성찬의 집행을 통해 분리되어 있는 사물들을 결합시키는 것은 성령의 신비스러운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우리의 생각은 원래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 우리는 놀라게 된다. 또한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혀로도 합당한 표현을 할 수 없다.³³⁵⁾ 이 하늘의 신비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친절하심의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³³⁶⁾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성찬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 경건한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한다.

칼빈은 성찬에 관한 이해보다는 차라리 체험을 선택하였다. 이것이 칼빈의 정신이며 성찬에 대한 자세이다.³³⁷⁾ 또한 칼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성찬의 온전함을 역설한다.³³⁸⁾ 칼빈이 성찬식에 불신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찬의 효과적인 참여에서 그는 믿음에 더 큰 강조를 두었기 때문이다.³³⁹⁾

성찬의 주요 목적과 유익은 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수직적 관계에 있다. 그러나 칼빈은 성찬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특히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돈독히 하는 수평적 관계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성도 상호간의 사랑과 하나 됨을 암시하며 감사의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칼빈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들 상호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성찬에 관한 논의를 결론짓는다.³⁴⁰⁾ 또한

335) *Inst.*, 4. 17. 7.

336) 『신앙교육서』, 제 29절.

337) *Inst.*, 4. 17. 1.

338) *Inst.*, 4. 17. 33.

339) *Inst.*, 4. 17. 5.

340) 『신앙교육서』, 제 29절.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성찬을 ‘사랑의 유대’라고 부른 어거스틴의 말에 찬성하며 인용했다.³⁴¹⁾ 이처럼 성찬은 윤리적 차원도 포함하고 있다.

칼빈은 성찬의 연합적인 성격을 중시하였으며,³⁴²⁾ 이러한 그의 상당한 확신은 성찬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기념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톨릭적 사고를 가졌던 제네바 지도자들은 이것에 반대하고 한 해에 한 번의 성찬을 주장하였다.³⁴³⁾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한 해에 네 번 집행하도록 타협하였다.

『신앙교육서』에서 칼빈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영혼에 가져다 주셨고, 둘째로 우리 육신의 불멸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다”³⁴⁴⁾라고 언급함으로써 성찬이 주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하여 말한다. 결론적으로, 칼빈의 성찬론이 독창적으로 기여한 바는 죄의 용서에 관한 한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것이며, 구원에 참여하는 데 우리는 복음의 경청과 함께 성찬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G. 교회의 본질과 표징들

1. 칼빈의 교회론

칼빈의 교회론은 그 이전에 존재했었던 교회론들과는 달리 매우 조직적인 성격을 지녔는데, 그는 일차적으로 지상의 가견적인 교회가 가지는 권위와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표징들에 관한 언급이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관한 이러한 고귀한 평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모든 신실한 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참다운 교회를 언급하면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며 그녀에게서 멀어진다면 어떠한 구원도 없다”³⁴⁵⁾고 말한다. 진실로 참

341) *Inst.*, 4. 17. 38.

342) 『신앙교육서』, 제 29절.

343) *Inst.*, 4. 17. 44-50.

344) 『신앙교육서』, 제 29절.

345) *Inst.*, 4. 1. 4.

된 교회의 존재에 관한 문제는 종교개혁자들의 최고의 실존적인 문제였다.³⁴⁶⁾ 그는 교황 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혼합시켰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소유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마침내 그는 필연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물러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³⁴⁷⁾ 이처럼 칼빈은 지상의 가견적인 교회로 인식될 수 있는 두 가지 표지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정당한 성례전의 시행이다.³⁴⁸⁾ 따라서 복음의 선포가 경건하게 청 취되며 성례전이 무시되지 않는 한 그것은 여전히 교회로 불리어 질 수 있다.³⁴⁹⁾

2. 교회 치리

칼빈은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성례전을 정당하게 시행하는 데 무엇보다도 치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이것을 인식한 닉스(J. Knox)는 “주님과 성찬 참여자가 하나가 되는 성찬에 경솔하거나 본래 악한 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 거룩함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³⁵⁰⁾고 확신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흠을 내거나 그런 시도를 하려는 자들을 치리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교리가 교회의 정수인 것처럼, 치리는 교회를 떠받치는 뼈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교회에서 시행되는 치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각각 그 자신의 자리에 서로 간에 협력하며 그 공동체를 유지한다.³⁵¹⁾

칼빈이 사역할 당시에 제네바에서 시행되었던 치리는 그에게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것이었으며, 그는 이것을 목회적인 관리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었다. 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절대 필요한 요소였으며, 궁극적으로 그 목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명예와 교회의 거룩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칼빈은 교회 치리의 문제로 제네바에

346) *Inst.*, 4. 2. 3.

347) *Inst.*, 4. 2. 6.

348) *Inst.*, 4. 1. 9.

349) *Inst.*, 4. 1. 3.

350) John H. Leith, *op. cit.*, 175.

351) *Inst.*, 4. 12. 1.

서 쫓겨나기도 했으나,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로 인하여 그의 위치에 있어서 확고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문제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칼빈은 특별히 교회 치리의 세 가지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³⁵²⁾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무시하는 자를 교회로부터 추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³⁵³⁾ 교회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³⁵⁴⁾ 어떤 치욕적인 일들이 교회의 머리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교회는 그런 불결하고 부패되어 가는 지체들에 의해서 타락되지 않는다.³⁵⁵⁾ 치리의 두 번째 목적은 교회의 신실한 지체들을 사악한 자들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런 자들을 보다 온건하게 처리한다면, 더욱 완고해질 가능성이 있는 그들은 징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자각하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³⁵⁶⁾ 세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치리되었거나 추방된 자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추방은 출교와 다르다.³⁵⁷⁾ 출교는 죄인의 행위를 용서하지 않고, 그의 행위를 비난하는 동시에 영원히 교회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지만, 추방은 벌을 내리는 동시에 그의 도덕적인 행위를 더욱 단련시키는 역할을 한다.³⁵⁸⁾

칼빈은 치리를 시행할 때 간주되어야 할 실천적인 측면들을 설명한다. 첫째, 치리가 교회에서 실행될 때 교회는 온전하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는 “부드럽게, 그리스도의 영의 은화함을 가지고 더욱 심각하게 타락해버린 자들에게 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³⁵⁹⁾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은화함의 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³⁶⁰⁾ 둘째, 치리는 전체 교회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하며 목사 단독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되며 특별하게 회중들 중에서 대표자로 위임된 장로들이 저야할 책임이다.³⁶¹⁾ 셋

352) *Inst.*, 4. 12. 5.

353) 『신앙교육서』, 제 32절.

354) *Comm.*, *Colossians* 1: 24.

355) *Inst.*, 4. 12. 5.

356) *Inst.*, 4. 12. 5.

357) *Inst.*, 4. 12. 8.

358) *Inst.*, 4. 12. 10.

359) *Inst.*, 4. 12. 1.

360) *Inst.*, 4. 12. 8.

361) *Inst.*, 4. 11. 6.

제, 칼빈은 차리의 세 가지 단계 사이를 구별한다. 그것은 차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훈련, 그런 훈련을 완강하게 거절하거나 경멸하는 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 모든 일들이 완만하게 처리되고 성직자는 스스로에게 덜 관대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⁶²⁾

3. 관원과 시민 정부

16세기의 위대한 목사였던 제네바의 사역자 칼빈은 신앙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의 삶에도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 칼빈이 정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뚜렷한 정치관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의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에 근거한다.³⁶³⁾

이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 국가와 정치적 질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주신 매우 긍정적인 축복이다. 시민 정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이 된다. 비록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와 정부 혹은 정치적 질서는 매우 다른 두 영역에 속하지만,³⁶⁴⁾ 이 두 영역은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³⁶⁵⁾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인간 가운데 있는 정치의 유용성은 빵과 물, 태양과 공기의 그것에 못지않으며, 또한 그 명예의 위치는 그것들보다도 훨씬 우월하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종교의 공적인 형태가 유지되게 하고 인간성이 사람들 사이에 유지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칼빈이 두 종류의 정부를 언급하면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두 영역이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에 속한다는 것이다.³⁶⁶⁾ 칼빈에게 있어서 통치자들과 군주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대리인과 같으므로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는 그들을 거역할 수 없다. 따라서 칼빈은 정부 관원들을 '가장 거룩한 직무인 하나님의 정의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부른다.³⁶⁷⁾ 이처럼 이 두 영역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자유에 대한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을 정치적 질서로 잘못 적용해서는 안

362) *Inst.*, 4. 12. 2.

363) 신복윤, *op. cit.*, 295.

364) *Inst.*, 4. 20. 1.

365) *Inst.*, 4. 20. 2.

366) *Inst.*, 4. 20. 4.

367) *Inst.*, 4. 20. 6.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으므로 외적인 통치에 의하여 인간 법률에 예속되는 일이 더 적거나 혹은 그들이 영에 의하여 자유를 얻었으므로 모든 육적인 예속으로부터 해제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³⁶⁸⁾

칼빈의 이런 견해는 세속 정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³⁶⁹⁾ 어쨌든, 세상 정부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사회적으로는 공공복리를 이룩하여 시민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해야 한다.³⁷⁰⁾ 질서가 잘 잡힌 정부는 정의와 공정한 재판을 잘 시행하고,³⁷¹⁾ 항상 경건성에 의존해야 한다.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람만을 위해 모든 법률을 시행한다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그런 법들은 앞뒤가 뒤바뀐 터무니없는 것이 된다.³⁷²⁾

마지막으로 칼빈은 관원의 자격과³⁷³⁾ 공정성에 대해 논한다. 공정성은 질서가 유지되는 정부의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는 “군주들이 반드시 정의의 법정에서 공정성을 실현해야 한다”³⁷⁴⁾고 역설하였다. 칼빈은 공정성의 유지로 하나님에 대한 통치자들의 임무가 잘 수행되기를 원하였다.

4. 국민의 책임

칼빈은 세상 정부를 관원, 법률, 국민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칼빈은 국민들의 의무를 단지 세속적인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명령 하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적인 차원에서 보았다.³⁷⁵⁾

칼빈에게 있어 주님은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항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 세속적인 영역도 주님의 통치 안에 속하기 때문에,

368) *Inst.*, 4. 19. 15.

369) 『신앙교육서』, 제 33절.

370) *Inst.*, 4. 20. 3.

371) 『신앙교육서』, 제 23절.

372) *Inst.*, 4. 20. 9.

373) *Inst.*, 4. 20. 15.

374) *Inst.*, 4. 20. 4.

375) 『신앙교육서』, 제 33절.

우리는 세속 정부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³⁷⁶⁾ 칼빈은 정치 영역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파생된 권력이며 모든 통치자들은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³⁷⁷⁾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칼빈의 '저항 사상'이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권력에는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³⁷⁸⁾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칼빈은 시민 정부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념을 가지면서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보았다. 그는 독재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관리에 대한 저항권은 인정했고, 또한 그 권리를 행하지 않는 것을 임무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였다.³⁷⁹⁾ 통치자가 선하든 악하든, 칼빈은 국민들이 반드시 그에게 순종하라고 강조하였다. 포악한 정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며, 악한 통치자는 죄를 지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표한다. 따라서 불공평하고 무능한 군주도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세우신 자들이다.³⁸⁰⁾ 정부에 대한 순종에 한 가지 예외는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결코 철회해서는 안되며, 그분에 대한 순종을 정부에 대한 순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³⁸¹⁾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교육서』에 내포된 칼빈의 기본 신학사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이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강요』 및 기타 그의 저서들을 칼빈의 후예들의 입장에 따라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칼빈 신학의 기본 원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칼빈의 신앙교육의 내용은 가르침과 삶이 이중 구조로 되어있다. 즉 가르침의 내용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376) *Comm., Acts* 5: 29.

377) *Inst.*, 4. 20. 25.

378) 이양호, *op. cit.*, 253.

379) *Ibid.*

380) *Inst.*, 4. 20. 25.

381) 이양호, *op. cit.*, 254.

아야하는가'의 문제다. 다시 말하자면, 칼빈의 교리는 구원의 가르침과 윤리적 삶의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⁸²⁾.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칼빈의 『신앙교육서』로부터 오늘날 삶을 무시하고 구원의 도리인 교육 내용만을 강조하는 입장과 윤리적 삶은 강조하나 구원의 진리를 외면하는 입장 등을 상호 비판 내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기독교 교육 방법론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382) 정일용, 『교육목회학』, 301.

IV. 칼빈의 교리교육론의 교육신학적 해석

본 장에서는 교리교육 중심의 목회 원리에 따라 제네바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칼빈의 교리교육론의 본질과 내용에 대하여 현대 교육신학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목회 현장의 산물인 설교, 주석, 편지, 법령, 저술 등에 나타나는 그의 교리교육론과 교육 사상에 대하여 교육신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의 교리교육 사상론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한다. 칼빈은 현대적 교육학 혹은 교육신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시대 이전 사람이었지만 『신앙교육서』, ‘하나님 학교 교육론’, ‘하나님 조절(눈높이)교육론’, ‘교리설교론’, ‘가나나 기초 교육론’ 등은 현대 교육신학을 훨씬 능가하는 교육사상 원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칼빈의 목회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그의 교육사상을 재구성하고 이에 대하여 칼빈의 내면에 의도되었던 교육론이 무엇이며 그 교육론이 오늘날 기독교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제 5장에서는 칼빈의 교리교육의 지침서인 『신앙교육서』와 그에 따른 교리교육 실천 원리를 가지고 교육의 현장인 가정, 교회, 학교 등에서 그가 어떻게 교리교육을 실시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A. 『신앙교육서』 중심의 교리교육론

칼빈은 교회의 모든 영역을 교육적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칼빈의 교육신학적 기초는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이룬다. 칼빈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것은 교리이며 교리의 총체가 바로 『신앙교육서』이다. 칼빈은 『신앙교육서』를 총체적 교리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집필하였고 또한 실제로 그는 『신앙교육서』 중심으로 제네바 목회사역을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칼빈이 교육의 핵심으로 여겼던 교리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칼빈이 밝힌 교리의 세 가지 교육적 차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가 교리교육 실천의 장에서 이루었던 교리교육론을 살펴보

고자 한다.

1. 『신앙교육서』의 집필 목적

『신앙교육서』는 역사적, 신학적, 교육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교육서』의 집필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교리교육이 실시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사 연구가들은 오랫동안 종교개혁의 근원과 원동력을 개혁자들의 풍부한 작품들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개혁교회 초기를 이해 할 수 있는 문헌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특히 종교개혁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 루터와 칼빈의 자료와 문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종교개혁 초기의 역사적 상황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은 1515년부터 2년간 기록된 루터의 『로마서 강요』(*Course on Romans*), 파렐의 1525년 판 『요록』(*Summary*), 아비뇽의 랑베르(Rambert of Avignon)가 1529년에 쓴 『기독교 개요』(*Christian Sum*), 칼빈의 1536년 초판 『기독교강요』와 1537년 판 『신앙교육서』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종교개혁 초기의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해하게 해 주므로 연구에 꼭 필요한 핵심 자료들이다.³⁸³⁾

또한 종교개혁 초기의 자료들과 문헌들은 개혁교회 신학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혁신학에 대한 더 깊은 연구에 유익을 주는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사료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칼빈 신학의 초기 문헌인 『신앙교육서』는 개인 칼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하고 귀중한 단서와 자료가 된다.

오랫동안 칼빈 연구자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신학자 맥닐(John T. McNeill)은 『제 1차 신앙교육서』를 가리켜 “『기독교강요』의 주요 가르침들을 모아 놓은 눈부신 집합체라고 높이 평가하였고, 또한 이 작품이 칼빈의 사상을 압축해놓은 걸작이며, 칼빈의 가

383) John Calvin, 『신앙입문』, 16-17.

르침을 여는 열쇠가 되는 탁월한 작품³⁸⁴⁾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1541년부터 시작된 두 번째 제네바 사역 기간에 칼빈에게 부여된 세 가지 임무는 개혁된 교회의 설립, 개혁교회의 교리 확립, 그리고 제네바 시의회와의 정치적 관계 확립이었다. 그는 개혁교회의 설립을 위하여 제네바에 오자 곧 교회법을 작성하였고, 신조를 비롯하여 예배모범서 그리고 제네바 교회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신앙교육서』를 만들었다.

칼빈의 초기 작품인 『신앙교육서』는 예언적이며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서 매우 탁월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제네바 개혁자의 초기 작품인 『신앙교육서』가 그의 초기 신학사상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상 칼빈의 후기 작품들은 논쟁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으며, 이교와 불신앙에 대한 많은 논쟁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기 작품들은 초기 작품들에 비해서 매우 길고 따분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이런 연유로 초기 작품들에 포함된 긍정적인 방향과 건설적인 기여와 같은 유익한 정보들은 후기 작품들에서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다.

칼빈 연구의 대가 중 한 사람인 존 레이스(John H. Leith)는 칼빈의 『신앙교육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매우 명료하고 담백하고 더욱 흥미로울 정도로 기술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³⁸⁵⁾ 불과 27-28세의 나이에 쓰여 졌던 『신앙교육서』는 그가 성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지 겨우 3-4년이 지난 후에야 세상에 나왔던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험과 삶을 항상 지도하였던 신앙이 이 작품에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다는 점은 신비함마저 느끼게 할 정도이다. 특히 부패된 본성을 갖게 된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칼빈의 일차적인 대전제 때문에, 교리에 대한 칼빈의 인식은 죄인들의 소망을 위하여 더욱 절실하게 증대되었다. 왜냐하면 만약 교리가 인간의 삶을 이끌지 못한다면, 그 삶은 매일 죽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384)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140.

385) John H. Leith, *op. cit.*, 12-13.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³⁸⁶⁾

『제 1차 신앙교육서』는 시기적으로 『기독교강요』의 첫 번째 판(1536)과 두 번째 판(1539)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칼빈의 신학사상이 걸어왔던 발전 과정을 철저히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특히 그에게 신학자로서의 명성을 가져다주었던 두 번째 판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현저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의 초기 작품인 『신앙교육서』는 다양한 신학 발전의 과정 속에서 청년 칼빈이 사상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단서가 된다.

그렇다면 칼빈이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교육적인 중요성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칼빈은 이 책을 통하여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등과 같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초신자들과 학생들에게 전수하려고 하였다.³⁸⁷⁾ 그의 주된 목적은 창조주와 구세주이신 하나님, 죄로 타락된 인간, 구원, 교회, 그리고 종말 등의 기본적인 신앙교리를 알게 하고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경건한 신자를 양성하여 그들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을 선언하도록 성장시키는 데 있었다.³⁸⁸⁾ 칼빈은 모든 신자들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게 하여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였다.³⁸⁹⁾ 더군다나 그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다.³⁹⁰⁾

둘째로, 『신앙교육서』는 교회의 부패를 야기할 수 있는 불건전한 사상과 오류로부터 교회를 바르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교회의 보존에 대해서 칼빈은 특별히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암시를 준다. 성령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역할을 한다.³⁹¹⁾ 따라서 객관적인 견지에서 성경에 있는 이 진리도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이는 성경이 스스로를 입증함에 있어서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

386) 『신앙교육서』, 제 6절.

387) Peter Y. DeJong, *op. cit.*, 181.

388) Thomas F. Torrance, *op. cit.*, 3-4.

389) 『신앙교육서』, 제 14절.

390) *Comm., Ephesians* 4: 13.

391) John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0), 49.

다.³⁹²⁾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리는 기독교 공동체의 미래를 성령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적인 매개물이 된다.³⁹³⁾ 그 구체적인 예는 칼빈이 영국 교회의 개혁에 관하여 섬머셋(Somerset)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교육서』 없이는 결코 보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씨앗과 같아서 세세토록 증식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썩어 부패하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덕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언어로 만들어진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참된 기독교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신앙교육서』는 두 가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입문서가 되어 생소하고 잘못된 교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로 일부 목회자와 그 후보생들의 무지와 결함을 보완하고 모든 교회의 일치와 합의를 제시하며 또한 환상이나 기이한 것만을 탐구하는 자들의 구실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³⁹⁴⁾

이처럼 칼빈은 『신앙교육서』가 각각 신앙교육의 입문서의 역할, 교회 교육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무지와 결함의 보완 역할, 거짓 교리에 대한 방과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³⁹⁵⁾

셋째로, 『신앙교육서』는 '주의 만찬'의 거룩함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며, 성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그들을 양육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위한 자료가 된다. 칼빈은 세례와 성찬에 관한 기초적인 교리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였고,³⁹⁶⁾ 외형적인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구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구별의 외형적인 표지들은 바로 세례와 성찬인데,³⁹⁷⁾ 칼빈

392) Paul J. Achtemeier,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Problems and Proposal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0), 138.

393) Mark Achtemeier, *op. cit.*, 63.

394) John H. Leith, *op. cit.*, 94.

395) 정준모, *op. cit.*, 10.

396) 『신앙교육서』, 제 26-29절. 칼빈은 또한 제 30, 32절에서도 세례와 성찬에 관해 기본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397) 『신앙교육서』, 제 10-12절.

은 이러한 표지들로 인하여 교회가 다른 조직들과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교회의 외적인 구별은 『신앙교육서』에 의한 교리교육을 통하여 내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³⁹⁸⁾ 또한 그는 유익하고 적당한 가르침이 없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들에게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앙교육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³⁹⁹⁾

넷째로, 교회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신앙교육서』는 기독교 교리를 대대로 전수하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여러 세대를 통하여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되는데 결정적인 유익을 준다. 또한 교회는 이 교리를 기초로 하여 세대와 세대간에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제공해준다. 결과적으로 통일된 역사적 교회가 교리에 의하여 세워지게 된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며, 모든 세대를 통하여 존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통일된 신앙으로 섬기게 할 목적으로 교리가 작성되었던 것이다.⁴⁰⁰⁾

다섯째로, 『신앙교육서』를 통한 교리적 가르침에 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는 일치와 연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⁴⁰¹⁾ 즉, 『신앙교육서』의 중요한 역할은 개혁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표지인 ‘사도적 선포’와 ‘교리적 가르침’에 대한 신앙적인 일치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다. 교회 목회적 차원에서 가정과 교회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 필수적인 공통 요소는 바로 세례이다. 세례의 신학적인 의미는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부활의 관계에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표이며, 교회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회를 통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⁴⁰²⁾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세례와

398) 『신앙교육서』, 제 26절.

399) LCC, 69.

400) Thomas F. Torrance, *op. cit.*, 6-7.

401) *Comm., Romans* 6: 1-11.

402) 정일웅, 『교육목회학』, 306-309.

교리교육을 통하여 성숙되고 당신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앙교육서』의 집필 동기와 목적을 통하여 신앙교육에 대한 칼빈의 기본 입장과 원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입장과 원리를 기초로 하여 칼빈이 제네바 사역을 현대적 의미의 교육 목회의 관점에서 실시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칼빈에게 『신앙교육서』는 교회의 근본적인 기초와 틀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와 세대간에 기독교 진리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가 되며, 신앙 교육에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육적인 도구로 간주되었다. 또한 『신앙교육서』는 확고한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원리를 전수하는 교육적 씨앗과 같은 것으로, 이것은 칼빈의 신앙 사상의 총체이며, 교육목회의 근본적인 도구이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교육을 통하여 개혁을 시도하였고, 개혁을 위해서 집필된 모든 그의 저서들도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핵심 저서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강요』와 『신앙교육서』에는 그의 신앙 사상의 근저를 이루는 교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칼빈은 교리와 교회 그리고 교리와 교육 문제를 철저히 다루어서 근대 개혁주의 교육신학의 근본적인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

2. 교육의 기초로서의 교리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계시 사상과 성경에 있다.⁴⁰³⁾ 이러한 신학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놀랍게 성장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요약하여서 교육하였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초 신자들과 어린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었다.⁴⁰⁴⁾

칼빈의 신학적인 기초는 교리에 그 뿌리를 둔다. 특히 교리는 확실하게 칼빈이 정립

403) *Ibid.*, 131-135.

404) Bernhard Lohse, 『기독교 교리의 역사』, 차종순 역 (서울: 목양사, 1986), 18.

하였던 교회론의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교리는 교회를 지탱하는 표지들인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합당하게 집행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교회를 가질 수 있다. 즉, 장소에 상관없이 이 두 가지 표지들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곳에는 진정한 교회가 있는 것이다.⁴⁰⁵⁾ 그리고 교리를 통하여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왕성해 질 것이다. 게다가 그의 교육사상의 근본 원리도 교리에 입각하여 정리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교리는 교육의 핵심이며 생명인 것이다. 칼빈이 집필하였던 모든 저서와 목회사역의 중심은 교육, 특히 교리의 가르침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부터 그가 얼마나 교리를 중요시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전체적인 목회사역의 틀 안에서 볼 때 신학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는데, 그는 교육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던 교회를 개혁신학을 성실히 가르치는 일종의 학교로 간주하였다.⁴⁰⁶⁾

그는 현대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교리라는 개념으로 교육의 원리와 목표 그리고 내용 등을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교회의 기초와 교육의 근본이 되는 교리의 총체인 『신앙교육서』를 집필하여 신앙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침서로 사용하였다. 이 『신앙교육서』의 서문에는 개혁운동에 대한 칼빈의 근원적인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잘 드러나 있다.⁴⁰⁷⁾ 당시의 종교개혁 운동의 성공 여부가 전적으로 교리교육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칼빈은 이 책을 집필하였고 이것을 중심으로 교육 목회를 실천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의 결실을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었다.⁴⁰⁸⁾

헤트케(R. Hedtke)는 “신학적인 사고와 교회 실천에 관한 칼빈의 저술에서 ‘교리’라는 용어가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칼빈이 교리를 교회의 시

405) *Inst.*, 4. 1. 9; 『신앙교육서』, 제 10-12절.

406) Marshall C. Dendy, *Changing Patterns in Christian Education*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22-24.

407) 인용된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2: 2, 3: 15, 4: 11 등이다.

408) Peter Y. DeJong, *op. cit.*, 175.

작이며 기초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⁴⁰⁹⁾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신학 활동과 목회 활동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각종 저술들, 그리고 그의 신학과 목회의 산물인 또 다른 저술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설교, 성례, 치리 등 그의 목회 활동과 신학적, 목회적,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그가 집필하였던 『기독교강요』, 『신앙교육서』, 『교회조직에 관한 규례서』, 『교회 법령집』, 『제네바 대학의 법규들』, 그리고 각종 주석들과 설교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의 신학적 저술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육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교리에 의해서 교회는 권위를 얻게 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교리를 가지지 못한 교회와 기독교는 함께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교리가 교회의 존립, 유지, 성장, 그리고 성숙에 매우 중추적인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⁴¹⁰⁾ 그러한 교리에 의해서 신자들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인식하였다.⁴¹¹⁾

칼빈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리를 교회의 근본으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그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은 교리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도리가 증거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모든 교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다.⁴¹²⁾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칼빈은 교리의 존재가 곧 교회의 존재며, 교회의 존재는 교리의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였다.⁴¹³⁾ 요약하자면, 이 질문의 의미는 바로 교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해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교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리가 교회의 근본이 될 때에만 교회가 세워진다고 언급하였다.⁴¹⁴⁾ 이러한 칼빈의 입

409) R. Hedtke, *op. cit.*, 38.

410) *CR.*, 52: 124; *OS.*, 2: 13.

411) *CR.*, 55: 66; *Comm.*, *Hebrews* 5: 22.

412) *OS.*, 5: 31.

413) *CR.*, 13: 84; 정일웅,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13.

414) *OS.*, 3: 66.

장은 교리가 교회보다 앞서며, 결코 교회가 교리보다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리는 결코 신학적이며 의지적인 결과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회를 제한하고 그 본질을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칼빈은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교리는 그 어떤 것도 자체적으로 권위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에게 교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교리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교리는 그에게 매우 총괄적이며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가 교회 교육에 대하여 고심하면서 저술하였던 『신앙교육서』는 이러한 총괄적이며 포괄적인 교리의 총체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집약하여 집필한 것이다.⁴¹⁵⁾ 이러한 의미에서 칼빈은 교리의 집합서인 『신앙교육서』가 없이는 진정한 신앙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있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외치는 것이다.

3. 교리교육의 삼 단계

칼빈은 교리를 인지적 차원과 전인적 차원 그리고 발전적 차원으로 단계를 나누어 생각하였다. 칼빈이 교리를 세 단계로 나누게 된 이유는 이 단계들이 인간의 인격 안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의 과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교리의 인지적 차원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그 전인적 차원은 신자들의 삶과 신앙의 원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그 발전적 차원은 신자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인지적 차원으로서의 교리이다. 무엇보다도 칼빈은 교리를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강조한다. 이 인지적 차원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⁴¹⁶⁾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바

415) R. Hedtke, *op. cit.*, 39.

416) 『신앙교육서』, 제 2절; *Comm., John 4: 23.*

른 인식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신앙은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⁴¹⁷⁾ 따라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교리가 신자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잘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야 한다. 칼빈은 교리가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다. 여기서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는 교육이다. 성경에 계시된 신앙의 내용인 교리를 인지적인 차원에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선포하는 설교가 올바른 통로의 역할을 하지만, 또한 교리를 잘 가르치고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⁴¹⁸⁾

두 번째는 전인적 차원으로서의 교리이다. 전인적 차원은 신자의 인격과 삶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은 이 단계에서 차지하는 교리의 위치와 그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인지적인 단계에서 신앙의 내용으로 인식된 교리가 그 차원에서 머물게 되면, 교리는 지식주의 혹은 기능주의의 소모품으로 전락할 뿐이다. 하지만 칼빈은 교리가 지속적으로 인간의 인격과 삶에 연결되어 그 삶에 변화를 주고 또한 인격을 통해서 그 삶이 반드시 확증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교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전인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교리와 삶이 일치되고, 교리가 삶의 변화를 통하여 더욱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¹⁹⁾ 교리와 삶의 일치에 있어서, 칼빈은 성례를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왜냐하면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보조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⁴²⁰⁾ 따라서 영국 학자인 웨일(Whale)도 교리를 칼빈의 신학 체계에서 첫 번째 구조 원칙으로 고착시켰던 것이다.⁴²¹⁾

417) 『신앙교육서』, 제 14절.

418) *Ibid*, 132.

419) *Inst.*, 4. 14. 18.

420) 『신앙교육서』, 제 26절.

421) J. S. Whale, *op. cit.*, 145.

세 번째는 발전적 차원으로서의 교리이다. 칼빈은 인지적 차원과 전인적 차원에서 성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발전적 차원으로 교리의 중요성을 격상시켰다. 발전적 차원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신자들이 교리에 의하여 신앙의 기초를 놓은 다음에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야 한다는 데 있다.

칼빈에 의하면, 교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는 기독교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 초보적인 지식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며, 둘째는 초보적인 단계를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 보다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한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현명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⁴²²⁾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배우려는 것은 우리의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⁴²³⁾

구원론적인 견지에서 칼빈은 특별히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과 성화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교리교육과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는 인간의 문제와 죄 문제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복음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⁴²⁴⁾ 칼빈은 이 복음의 총체가 바로 교리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와 죄 때문에 상실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교리에 의하여 중생으로 인도되어야 한다.⁴²⁵⁾ 그러나 중생으로 거듭난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인 교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성화와 성숙을 향한 발전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효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칼빈은 여기서 인간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성경의 권위와 영감에 대하여 심도 깊게 고찰하고 있다. 칼빈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의 신비한 내적 증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궁극적인 기초가 된다. 덧붙여서 성경의 진리를 더욱 자세히 설명해주는 요소가

422) 『신앙교육서』, 제 5절; *Inst.*, 2. 1. 8; *Comm.*, *Romans* 5: 12.

423) *Comm.*, *Hebrews* 8: 11.

424) 『신앙교육서』, 제 3절.

425) 『신앙교육서』, 제 4절.

바로 교리이다. 칼빈은 이 교리를 교육적인 견지에서 이해하는 것이다.⁴²⁶⁾

칼빈은 전 생애를 통하여 성화와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리고 교리는 이러한 발전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교리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⁴²⁷⁾

4. 『신앙교육서』와 교육과정

루터는 그의 『신앙교육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하는 물음에 대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십계명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즉 칭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순서로 다루었다.⁴²⁸⁾ 그러나 칼빈은 루터와 달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하는가”에 강조점을 두고, 그의 『신앙교육서』를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의 순서를 따라 믿음, 삶, 영적 교제를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칼빈의 『신앙교육서』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신앙교육의 목표는 제네바 『신앙교육서』에 따르면 제 1문에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교육서』의 목표이며,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372개의 질문과 대답을 만들었다.⁴²⁹⁾

루터의 『신앙교육서』가 설교자와 목사보다는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서 저술된 것과는 달리,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교회를 위해 만들어졌다. 즉 제네바에서 새로 개혁된 교회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유아 세례자)이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제네바 교회의 입교인이 되어 떡과 잔의 나눔인 주님의 성찬에서 교제하도록 신앙의 가르침과 삶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신앙교육서』를 교육시키는 책임이 교회 자체에 있다고 말하였다. 칼빈이 반복하여 강조했던 것처럼,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중심적 책임은 교회 자체가 지고 있었다. 제네바 『신앙교육서』의 서두에 다음과

426) *Inst.*, 1. 7. 4, 5.

427) 양금희, *op. cit.*, 133.

428)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394-395.

429) *Ibid.*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는 항상 어린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교육하는 것을 특별히 권장하여 왔다. 또한 신앙 정도에 따라서 여러 학교가 존재하였다. 가장에게 그 자녀들을 더욱 잘 가르쳐야 될 것을 명하고 있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다른 교회 모든 신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점에 관하여 어린이들이 용하게 함으로써 공적인 질서가 잘 보존되게 했다.⁴³⁰⁾

칼빈의 『신앙교육서』에 반영된 교육과정의 개념은 무엇인가? 헤트케(R. Hedtke)는 칼빈에게 『신앙교육서』란 ‘교리의 총합’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⁴³¹⁾ 여기서 교리의 총합이란 칼빈이 생각한 교리가 성경과의 관계에서 볼 때 성경이 담고 있는 구원의 교리와 일치됨을 뜻하고, 성경에 나타난 구원제시의 요약으로서 ‘구원의 교리’가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신앙의 기본지식으로서의 교리를 뜻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신앙교육서』는 교육과정의 차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지식으로서의 교육과정의 개념이다. ‘교리의 총합’으로 이해되는 그의 『신앙교육서』는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기초적인 것, 근본적인 것, 본보기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였고 그는 이것을 ‘교리’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과정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성경적 지식으로 표현된 교리로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학습자가 알아야 할 ‘체계적인 지식’으로 이해된다.

둘째는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개념이 그의 『신앙교육서』 속에 반영되어 있다. 칼빈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가 교재로서 사용하도록 ‘계획’했다는 점이다. 신앙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 안의 목사와 설교자가 사전에 계획적으로 조직된 지식체계로서 『신앙교육서』를 사용하여 교육하도록 설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개념은 그의 『신앙교육서』가 55주로 나

430) John Calvin, 『칼뱅의 요리문답』, 100.

431) R. Hedtke, *op. cit.*, 82.

누어져 구성된 것에서 잘 드러나는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인들도 매주일 오후 예배 시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52주(특별절기 3회)로 편성되었다. 바로 설교를 위하여 이 책은 372개의 질문과 대답을 다시 55과로 나누었던 것이다. 결국 칼빈의 『신앙교육서』에 반영된 교육과정의 개념은 ‘조직화된 지식과 계획의 종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⁴³²⁾

칼빈이 강조한 『신앙교육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그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례 교육과정’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대교회가 실시했던 세례 교육과정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과 유럽의 기독교화로 인하여 성인세례자가 줄어들어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졌었는데, 칼빈에 의해 그것이 새롭게 부각된 것이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잃어버렸던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을 되찾아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형태를 그대로 재생시킨 것뿐만 아니라 세례 지원자를 위시하여 세례 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소위 『신앙교육서』를 구성하였다는 데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세 번째 특징은 교육과정을 ‘지식’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성찬과 상징을 통한 ‘경험’보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으로서의 ‘교리’ 즉 ‘성경적 내용의 요약’을 중시했다. 이러한 칼빈의 교육과정관은 경험을 강조하는 정의적 측면보다는 지식을 중심으로 한 주지주의적 측면으로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전환시켰다고 할 수 있다.⁴³³⁾

결론적으로 이러한 칼빈의 『신앙교육서』의 특징은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두 가지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신앙교육서』 이후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교재’로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전의 교육과정 개념과 크게 다른 것으로서 중세에는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계획이나 교재의 의미보다는 예배를 통한 ‘경험’과 가르쳐야 할 ‘지식체계’로 교육과정을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초대교회의 세례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의 의미를 더 체계적으로

432) 정일웅, 『교육목회학』, 326.

433) *Ibid.*, 367.

복원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쳐야 할 수업계획의 의미가 강조됨으로써 점차 수업방법 혹은 교수방법론의 중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교육과정은 교수 방법과 연결된 '내용-학습 계획'으로 점점 더 이해되어, 코메니우스에 이르러서는 '체계화된 교수계획', '교수를 위한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계획'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과정은 경험보다는 '교리적 지식'을 강조함으로써,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헬라적 지식보다는 성경적 지식을 중시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교육과정 이해는 중세교회가 평신도를 위한 교육과정으로서의 '경험'과 성직자와 귀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의 '회합적 지식'을 강조하며 이분화 시켰던 것과는 달리 교육과정을 사전에 '계획된 교리적 지식체계'로 일원화시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칼빈은 회합적 지식보다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을 기독교교육에서 절대 우위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은 교리를 교회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의 핵심 내용이라고 간주하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교육의 핵심인 교리가 인지적 차원에서 신앙의 기초를 놓고, 전인적 차원에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발전적 차원에서 성화와 성숙의 자양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는 영적인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이며 성화와 성숙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이다.⁴³⁴⁾ 우리가 이러한 견지에서 교리를 보았을 때, 교리가 기독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역동적인 개혁주의 교육신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교리에 너무 의존한 개혁주의 교육은 그 원래의 역동적인 참된 모습을 상실한 채 단지 교리 중심의 교육으로 인하여 지성주의, 문자주의, 율법주의로 전락해 버렸다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하지만, 교리교육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그가 인간교육에 있어서 지, 정, 의에 기초한 전인적이고 역동적이고 총체적 교육을 강

434) 『신앙교육서』, 제 17절.

조하고 있다는 데 그 핵심을 가진다.

B. '하나님 학교' 교회론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 학교'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학교로서 교회와 하나님의, 하나님에 관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 학교'라는 은유적인 표현은 결코 칼빈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교부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 학교'의 교사로서, '하나님 학교'인 제네바 교회에서, 그분의 학생인 회중들에게, '하나님 학교'의 교과서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의 원리를 따라, 성공적 교육목회를 성취한 자임에는 틀림없다.

칼빈이 『기독교강요』를 서술한 원래 목적이 그의 독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들을 제공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즐겨 사용하였던 학교 이미지는 이 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강요』의 첫 번째 불어 번역판 서문에서, 칼빈은 복음의 가르침들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칼빈은 에라스무스(Erasmus)와 뷔데(Budé)의 표현을 빌려 다음과 같이 '하나님 학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이런 기초들을 알고 단 하루라도 '하나님 학교'에서 배웠던 사람은 그 기초를 모르면서 3개월 동안 출석하였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향상될 준비를 갖춘 자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각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 제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검토하려는 태도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⁴³⁵⁾

칼빈은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구조를 하나의 학교로 삼으셔서 이 학교에서 우리가 경건을 배우고, 이 학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435) *Inst.*, 서문 참조 바람.

행복에 들어가도록 하셨다”⁴³⁶⁾라고 확신하였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일종의 치료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학교’에 다닐 필요가 있었다.⁴³⁷⁾ 칼빈은 유일하게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필수적인 학교의 요건으로 보았고, 이 학교의 교사나 교실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가견적인 교회에 관하여 강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어머니’라는 명칭에서 교회에 관하여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혹은 필요한지 배워야 한다. 교회가 우리를 자궁에 잉태하지 않고 우리를 출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가 자신의 품에서 우리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다른 수단은 없게 된다. 요컨대, 교회가 우리를 책임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신자가 된다(마 22: 30). 왜냐하면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전 생애를 학생으로서 보낼 때까지 학교에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이다.⁴³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그의 학생이다. 오직 질서가 잡힌 학교의 규칙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어야만 하는 것뿐이다.⁴³⁹⁾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선생남도 찾아서는 안 된다⁴⁴⁰⁾는 칼빈의 언급에서 하나님의 교사로서의 이미지는 그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었다.

칼빈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과 교회의 교사와의 관계성을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어거스틴은 선택되어 소명을 받은 자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학교’에 오게 하셔서 그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거기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게 하도록 부르신 자들이다”⁴⁴¹⁾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택된 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학교로 나가게 된다.⁴⁴²⁾ 그러나 비록 선택되어

436) 『신앙교육서』, 제 2절; *Inst.*, 2. 6. 1; *OS.*, 3: 320.

437) 『신앙교육서』, 제 3절.

438) *Inst.*, 4. 1. 4.

439) *Inst.*, 4. 8. 13.

440) *Comm.*, *John* 4: 23; *Inst.*, 1. 11. 5.

441) *Inst.*, 3. 24. 1.

442) *Inst.*, 3. 2. 34.

소명을 받은 자일지라도 죽음의 날과 최후의 부활을 열망하지 않는 자는 그가 '하나님 학교'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⁴⁴³⁾ 인내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어떤 작은 발전도 이룰 수 없다.⁴⁴⁴⁾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교사이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 자체를 신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학교로 인정하고 '성령의 학교'⁴⁴⁵⁾라고 불렀다. 이 학교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신 성령에 의해서 건전한 교리가 가르쳐 진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모두 기꺼이 무시해야 한다.⁴⁴⁶⁾

칼빈은 하나님을 교육자로 칭하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⁴⁴⁷⁾로 보았다. 또한 의식법의 상징들과 그림자들은 유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종의 교사로 생각하였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교육적 과정에 속한다고 보았다.⁴⁴⁸⁾

그는 고린도전서 3장 3절 주석에서 "인간 정신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정신 안에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주님의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⁴⁴⁹⁾고 언급한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아이들의 지도자'란 의미의 '파이다고고스'(παιδαγωγος)의 문자적 의미를 통하여, 칼빈은 당시 고린도인들이 교사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던 상황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고린도인들은 '교만으로는 거인들이고, 신앙으로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점을 강조하려고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칼빈은 또한 이사야 28장 주석에서 은유법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막 젖을 땀 어린 아기들처럼 교육 능력이 없는 자들'로 분명하게 설명한다.⁴⁵⁰⁾

443) *Inst.*, 3. 9. 5.

444) *Inst.*, 3. 10. 5.

445) *Inst.*, 3. 21. 3; *OS.*, 5: 400.

446) 『신앙교육서』, 제 3절.

447) *Inst.*, 1. 6. 4; *CO.*, 3: 64.

448) 『신앙교육서』, 제 10, 11절; *Inst.*, 2. 7. 8, 9; 4. 20. 14, 15.

449) *CO.*, 49: 348.

450) *CO.*, 49: 524.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도다.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저자는 흥내 내는 스타일로 그들이 감추고 있던 우둔함과 경솔함을 표현 한다. . . . 그들은 오랫동안 계속된 노력에 의해 배워 왔던 것들을 한 순간에 잊었다.⁴⁵¹⁾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의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더욱 장성한 상태와 비교한다.

헬라이어 단어 '파이다고고스'(παιδανωρος)의 어원이 의미하는 바대로 선생님은 평생 동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린 시절에만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아이들을 훈련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은 아이가 어린 시절의 교육을 통해 성인 시기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비교는 율법과 관련해서 모두 적용된다. 왜냐하면 율법의 권위는 특정한 시기에 제한되었고, 율법의 모든 목적은 학생들이 율법의 기초적인 교육들을 마쳤을 때 훌륭한 성인이 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덧붙인다.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의 스승이 되었다. . . . 비슷한 방법으로, 율법은 신학의 초보 문법서로서 간단한 방식을 학생들에게 전한 후에 학생들을 완성될 신앙(faith)에 맡겼다.⁴⁵²⁾

히브리서 5장 12절의 주석에서, 칼빈은 이사야 28장 10절에 대한 언급과 '가나다'(알파벳)의 이미지로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데 진보가 없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언급은 칼빈의 주석에서 자주 언급되어진다.

이 책망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태에서 깨어나도록 매우 날카로운 막대기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유대인들은 선생들이 되었어야 마땅한 데도, 지식의 첫 기초들 속에서 여전히 초보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교사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평범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 정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의

451) CO., 49: 524-525.

452) 『신앙교육서』, 제 8절; *Comm., Galatians* 3: 24.

첫 기초들을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그 자신들을 더욱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한다. 마치 너희는 ‘가나다’(알파벳)도 모른다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기초 원리들’ 또는 하나님 말씀의 시작 원리들을 언급한다. 실제로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기초 원리들에 머무르지 않고 많이 배워서 여전히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결코 이사야가 이사야서 28장 10절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너무 신중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진보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⁴⁵³⁾

‘하나님 학교’와 같은 그런 교육학적인 이미지들이 칼빈의 주석들과 『기독교강요』에서는 물론, 그가 행한 설교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그의 회중들에게 자주 ‘하나님 학교’에서 도움을 받고 공부하라고 권한다. 그는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항상 회중들에게 ‘하나님 학교’에 오라는 말을 강조하여 자주 언급하였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학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⁴⁵⁴⁾ 칼빈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기 위해 그의 학교에 가야만 한다.”⁴⁵⁵⁾고 항상 강조하였다.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에 의해 가르쳐져야 한다.⁴⁵⁶⁾ 만일 우리가 ‘하나님 학교’에 출석한다면, 우리는 그의 주권적인 선택과 같은 그러한 신비들조차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⁴⁵⁷⁾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본질적인 소명과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학교’에서 상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하나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버리게 된다.⁴⁵⁸⁾

453) *Comm., Hebrews* 5: 12.

454) *CO.*, 54: 391.

455) *CO.*, 54: 402.

456) *CO.*, 53: 650.

457) *CO.*, 581: 50.

458) *SC.*, 7: 57-59.

또한 하나님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성별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 학교'에 출석하여 배우기를 명하셨다.⁴⁵⁹⁾ 그리고 '하나님 학교'에는 연령 제한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나이 든 사람들과 학교 다닐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학교'의 학생이 되어야 한다. 심지어 한 발을 무덤에 둔 사람조차도 임종의 순간까지도 평생토록 참된 경건을 위하여 '하나님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⁴⁶⁰⁾

이처럼 죽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 학교'에 졸업할 수 없다는 평생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칼빈은 설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평생 동안 그의 학생으로 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⁴⁶¹⁾

칼빈은 '하나님 학교'에서의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그의 에베소서 설교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치 어린 아이들이 학교로 보내지듯이, 그렇게 그들은 전 생애를 거기서 보내게 된다. ...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학교'에서 지속적인 유익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매일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신앙을 점점받아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야 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2년, 3년 안에 다 배울 능력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멀지않아 우리는 곧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확고함과 안정성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어야 한다.

...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 몇 단어 배웠다고 자만하고 우쭐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박사들을 능가한다고 생각한다. ... 잘못된 기독교인들에게도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들은 복음의 몇 마디를 언급하였다는 사실에 의해서 마치 자신들이 갑자기 천사가 된 듯 우쭐해 하면서 더 이상의 성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학교'에 속한 이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성장해 나간다면, 우쭐하

459) CO., 53: 197-198.

460) CO., 54: 501.

461) CO., 53: 428.

던 자들은 10년 혹은 20년 후에 성숙의 차이가 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가 선포한 것을 주목해서 살펴보자. 하나님은 우리가 2, 3년 동안에만 복음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교육을 원하신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백년이나 그 이상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학자로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지혜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음을 여전히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 .우리가 순례 길을 행하고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학교'에 나아가야 한다.⁴⁶²⁾

'하나님 학교'에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며⁴⁶³⁾ 그곳에서 커다란 유익을 얻게 된다.⁴⁶⁴⁾ 우리가 '하나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덕목은 '근신', '겸손', '순결', '인내' 등이다.⁴⁶⁵⁾ 또한 '하나님 학교'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덕목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됨으로 결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게 된다.⁴⁶⁶⁾ '하나님 학교'에서 잘 훈련받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⁴⁶⁷⁾

'하나님 학교'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굳게 서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교육된 성도들만이 참된 신앙 위에서 그들의 대적자들이 던지는 공격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⁶⁸⁾

칼빈은 '하나님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교회에서처럼 집에서도 똑같이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특별히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거룩하게 훈련시키라고 자주 권면한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들에게 자녀를 먹일 책임과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적 사명을 주셨다"⁴⁶⁹⁾라고 말하였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의무가 바로 그들의 자녀를 기독교 신앙으로 가

462) CO., 51: 566-568.

463) 『신앙교육서』, 제 17절.

464) CO., 54: 596; CO., 51: 88.

465) CO., 54: 71.

466) CO., 54: 438.

467) CO., 51: 808.

468) CO., 54: 272.

469) CO., 53: 473.

르치고 그들을 거북하게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는 부모를 매우 호되게 책망하였다. 만약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무시한 채 그저 라틴어 몇 단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치 말 앞에 마차를 놓는 것과 같다고 평하였다.⁴⁷⁰⁾ 부모들이 자녀들의 경건 훈련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세상 학교에 보내어 단순히 죄짓는 기술에만 전문가가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를 파멸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⁴⁷¹⁾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이다.⁴⁷²⁾ 교회는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기독교 신앙과 생활로 가르친다. 이것은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견해와 대조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반 성도들에게 교회를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으로 교육시켜 왔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교회를 믿음으로 한 사람의 신도로 인정을 받는다.⁴⁷³⁾ 이와 달리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이시라고 하였다. 이 어머니는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그의 가슴에서 젖먹이시고, 가르침으로 우리를 양육한다. 하지만 칼빈은 교회의 양육을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위선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서자라 하였다.⁴⁷⁴⁾

‘하나님 학교’에서 유익을 얻는 것은 곧 교회론적 맥락에서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목사들은 일차적인 교사가 아니고,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께서 일차적인 교사와 박사가 되신다. 목사들은 먼저 ‘하나님 학교’에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 목사들은 회중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성경의 학교에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⁴⁷⁵⁾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공부하지 않은 채로 마치 큰 의사나 되는 것처럼 설교단에 올라가는 목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전하러 그의 회중들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의 학생이 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⁴⁷⁶⁾ 라고 하

470) CO., 54: 429.

471) SC., 6: 98-99.

472) Inst., 4. 1. 1.

473) CO., 54: 405.

474) CO., 54: 405.

475) CO., 53: 411.

476) CO., 54: 434.

였고,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스스로 이 원칙을 자신에게 적용한 겸허한 목회자였다. 참 신앙의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학생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가르친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리들로 이루어졌다.⁴⁷⁷⁾

어떤 사람이 특정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는 그 학교와 교사의 특징들을 본받게 된다. 이처럼 설교자는 성령의 가르침 아래서 공부했다는 증거를 설교자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목사들은 성경 연구에 몰두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 성령에 따른 설교를 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에 의존한 설교를 하게 된다.⁴⁷⁸⁾

칼빈은 평신도들이 자신이 해야 할 성경 연구를 목회자들에게만 맡겨 버리는 것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이 박사가 되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지난 30년간 총회의 선언서들에만 의존하여 사역하였던 유럽 전역의 신학 박사들에게 성경 전체를 읽을 것을 요구하였다.⁴⁷⁹⁾

칼빈은 종종 회중들이 자신이 행하는 설교의 목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 또한 그들이 어떤 자세로 설교를 경청해야 되는지 교육하였다. 또한 그는 회중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이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설교를 경청하도록 강조하였다.

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은 그와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밝혔다.⁴⁸⁰⁾

성경을 사적으로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교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설교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⁴⁸¹⁾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좋은 교리로부터 가르침을 받겠다는

477) *CO.*, 50: 319.

478) *CO.*, 54: 68.

479) *CO.*, 54: 281.

480) *CO.*, 35: 295.

481) *CO.*, 54: 150.

목표와 의도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리만이 우리 구원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다.”⁴⁸²⁾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데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물이다.⁴⁸³⁾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악을 행하며 탐욕적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마귀가 이끄는 파멸의 학교에서 공부하자고 한다.⁴⁸⁴⁾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강박케 하는 사람과, 설교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거부하는 사람은 다른 학교 즉, 교수대(絞首臺) 학교(*l'escole du gibet*)로 끝난다.⁴⁸⁵⁾

칼빈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학교’에서 규칙적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함으로 위대한 성경 박사들이 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치욕스러운 어리석음을 제거할 목적으로 세상 학교에서 인문 교육도 계속적으로 교육받을 것을 요구하였다.⁴⁸⁶⁾ 그러나 먼저 그들은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교사에 의하여 치유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⁴⁸⁷⁾

칼빈은 제네바에서 행한 모든 설교에서 성도들의 삶을 순례자의 여정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은유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칼빈이 교육적인 설교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회중을 하나님의 학생들이라고 보았고, ‘하나님 학교’의 교사는 하나님 자신으로 믿었다. 또한 설교자와 목회자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먼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 학교’로 보고 그 학교의 학생은 모든 신자들로서 남녀노소 예외 없이 일평생 동안 교리교육을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482) CO, 50: 324.

483) 『신앙교육서』, 제 2-3절; CO, 54: 442.

484) CO, 54: 291.

485) CO, 581: 112-113.

486) CO, 54: 430.

487) 『신앙교육서』, 제 3절.

C. 하나님의 조절교육론

칼빈의 교육사상에서 '조절'(acommodatio) 개념은 중요한 핵심 개념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adapt', 'adjust', 'apply', 'suit', 'correspond', 'match' 등과 같은 영어 동사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아마도 '조절', '조정'의 의미로, 그리고 특히 교육학적 개념으로는 '눈높이'로 번역될 수 있다. 이 조절개념은 칼빈의 성경해석과 신학연구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본 절에서는 칼빈의 조절개념이 성경해석과 신학사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개념이 그의 하나님 교육사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라틴 수사학에서 사용되었던 조절개념은 라틴계 사람들의 상황, 성격, 지성, 그리고 기질 등이 사람과 사건에 따라서 조절되는 관계에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고전이나 중세 라틴 수사학에서, 이것과 유사한 단어가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크리소스톰, 오리겐, 어거스틴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이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칼빈에 이르러서는 이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칼빈의 하나님 조절”⁴⁸⁸⁾라는 논문에서 배틀즈(Ford L. Battles)는 성경 해석과 신학 연구에 있어서 칼빈의 핵심적인 연구의 특징을 '조절'로 보고 있다. 칼빈 연구가 맥킴(Donald K. McKim)도 역시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 상태의 한계와 필요에 맞추어 조절하셨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해석과 모든 신학연구의 핵심적인 특징이다”⁴⁸⁹⁾고 보았다.

이런 신학 방법은 당시에 수사학 특히 변증학의 일반적인 관례로 사용되는 경향이었지만, 칼빈은 단지 변증법의 한 도구로 조절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시편 95편 3절 주해에서 웅변가들이 거짓 찬사로 이 땅의 군주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는 조절개념을 인간의 수사학적인 입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목회적이며 교육적인 입장에서 수용하여 사용하였다.⁴⁹⁰⁾ 그는 이 개념을 방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488) Ford L. Battles, “John Calvin’s Accommodation,” *Interpretation* 31 (1977): 19-38.

489) Donald K. McKim, *op. cit.*, 22.

490) *Inst.*, 1. 14. 4.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와 교육을 보여 주는 열쇠로 보았던 것이다.

베를즈는 조절개념이 적대적인 성경 비평가들을 반박하는 변증의 도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교회 내의 신자들을 가르치는 목회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이런 입장은 교회사에서 칼빈의 성경해석과 목회원리로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하나님의 조절'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칼빈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된다.

칼빈은 '조절'이란 단어를 '수용능력'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하나님과 인간의 비교될 수 없는 능력 차이에 대한 신학적이며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어원적으로 그는 이 단어를 '조절하다'라는 수사학적인 뜻으로부터 "우리의 수용능력에 맞추어 조절하다"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때때로 '분량'이란 뜻으로 사용되어 유한자로서의 인간과 무한자로서의 하나님에게 적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함과 인간의 유한함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아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의 수용능력에 맞게 당신을 조절하셨던 것이다.⁴⁹¹⁾

칼빈은 시편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조절하심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오르신 그 무한의 높은 곳에 결코 오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 오셨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의 유한한 수용능력이 감당할 만큼 가까이 접근해 주셨다."⁴⁹²⁾

칼빈은 신, 구약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점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도 다른 변증가나 주석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조절원리를 자주 적용하였다.⁴⁹³⁾ 바울과 마찬가지로, 칼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커다란 간격을 인정하였다. 그는 이런 간격이 인간의 언어로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조절하셔서 친히 모습을 인간들에게

491) 『신앙교육서』, 제 2절; *Inst.*, 1. 4. 1.

492) *Comm., Psalms* 78: 60.

493) 칼빈은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라 사도 바울의 육적, 영적 이스라엘 문제, 복음과 율법에 있어서 몽학 선생 문제, 히브리서 저자의 그림자와 참 형상 문제 등에 근거한 계시의 점진성을 주장하였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사건을 신약의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숙과 진보를 보여주기 위한 아버지와 교사와 의사로서 하나님을 묘사하였다.

표현하셨다고 보았다. 칼빈은 설명하기를 “스스로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유한하게 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한계 속으로 스스로를 조절하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영광의 무한함에 압도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⁴⁹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표현을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조절하셨다. 이는 모든 육적 부모와 차별되는 우리의 신적 아버지로서의 묘사이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교사로 조절하셨다. 이는 모든 성도들을 학생으로 보고 이를 가르치는 진정한 교사로서의 묘사이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의사로 조절하셨다. 이는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로서의 묘사이다.⁴⁹⁵⁾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절을 통하여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신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자기 조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창조와 구원 사역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만물의 질서에서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갖 좋은 것들을 우주에 넘치도록 쏟아 놓으신 사실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애를 찾아 볼 수 있다. 만일 아담을 메마르고 공허한 땅에 보내셨다면, 빛을 짓기 전에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충분한 복지 대책을 세워 주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해와 별이 인간의 용도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시고 땅과 물과 공중에는 생물로 채우시고 풍성한 과일을 내셔서 음식이 풍부하게 하셨다. 이렇게 앞을 내다보시고 가장의 책임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놀라운 선하심을 나타내셨다.⁴⁹⁶⁾

그 다음에, 칼빈이 인간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조절한 예는 다음과 같다.

494) *Inst.*, 2. 6. 4.

495) 『신앙교육서』, 제 2절.

496) *Inst.*, 1. 14. 2.

...하나님은 한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들 가운데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비록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거역하며 고집을 부리는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그의 자비를 의지할 때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경우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아버지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려고, 그는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우리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셨다.⁴⁹⁷⁾

칼빈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언급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조절하여 밝히고 있다. "...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셨으므로, 그가 이 교회를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진귀한 증거를 통해 아버지로서 보살피 주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⁴⁹⁸⁾

이처럼, 칼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연약한 능력에 맞추시는 부성적인 조절을 하신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그의 하나님의 조절교육의 기본 개념이 유추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칼빈은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교사로, 성도들을 학생으로 조절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고 부를 때, 만물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과 우리는 그분이 먹여 살리시고 교육시켜 주시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긴한 것들이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공급원이신 그분께 직접 탄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예배하여야 할 것이다.⁴⁹⁹⁾

497) *Inst.*, 3. 20. 37.

498) *Inst.*, 1. 17. 6.

499) *Inst.*, 1. 14. 22.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학교'에서 교사되신 주님과 함께 일생동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배틀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힌다.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조직 원리는 철학적 원리도, 신학적 원리도 아닌 교육학적 원리이다. 또한 칼빈 자신도 회심부터 교사로서 탁월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칼빈이 『기독교강요』를 '올바른 교수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였던 것으로 이해한다.⁵⁰⁰⁾

칼빈은 성경을 '성령의 학교'⁵⁰¹⁾로 교회를 '하나님 학교'⁵⁰²⁾로 비유하고, 그리스도는 '교사'⁵⁰³⁾로 성령은 '마음속의 교사'⁵⁰⁴⁾ 혹은 '교장 선생님'⁵⁰⁵⁾으로 조절하여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하는 모든 면에서 그분의 무한하심을 인간의 한계에 맞추어 조절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사색을 배제하도록 당부하였고, 또한 조절자 하나님이 제시하신 계시 조절의 한계를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였다.⁵⁰⁶⁾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로 조절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신을 아버지와 교사로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칼빈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로 자신을 조절하시기 위하여 의사로 표현 하신다"⁵⁰⁷⁾라고 밝히고 있다.

500) Ford L. Battles, *op. cit.*, 39.

501) *Inst.*, 3. 21. 3.

502) *CR.*, 50: 424, 597.

503) *Inst.*, 2. 15. 2; 3. 2. 4; 3. 20. 48.

504) *Inst.*, 1. 9. 1; 3. 1. 4; 3. 2. 34; 4. 14. 9.

505) *Inst.*, 4. 17. 36.

506) 『신앙교육서』, 제 13절; *Inst.*, 3. 21. 1.

507) 의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 표현은 교사로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마찬가지로 칼빈에게만 있는 독특한 표현 방법은 아니다. 이 비유는 교부 시대 때부터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그나티우스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을 '불사약'으로 묘사할 정도였다. 오리겐의 경우는 신령한 의사되시는 주께서 죄인의 영적 질환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처방을 조절해 나가신다고 표현하였다.

칼빈은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표현하였다.⁵⁰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칼빈은 의사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본성적으로 모든 인간은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치료의 손길을 얹어 주시는 자들만이 나음을 입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 버림받게 된 자들은 수축해지고 썩어져 가다가 마침내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⁵⁰⁹⁾

칼빈은 또한 불순종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긴 무서운 질병이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질병을 고치는 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십자가,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런 십자가가 사용된다. 그러나 하늘의 의사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도록 보살피신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보다 혹독한 치료법을 통해서 말끔히 나아지고, 어떤 이들은 보다 더 부드럽게 다루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이들을 치료의 손으로 치료해 주신다.⁵¹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린 아이와 학생, 그리고 병자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아버지, 교사 그리고 의사로서 인간의 수용능력에 맞추어 그들을 조절하신다고 보았다.

칼빈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옛 계약을 '아동기의 교회'로 표현하였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직접적인 뜻을 완전히 감당할 수 없었던 취약한 상태 속에 있었다.

508) 『신앙교육서』, 제 13절.

509) *Inst.*, 2. 5. 3.

510) 『신앙교육서』, 제 3절; *Inst.*, 3. 8. 5.

그러므로 그는 이 시대를 마치 아동기와 같다고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동기적 상태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스스로를 그들의 수준에 조절하셔서 교육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사로, 그리고 의사로 비유하였던 이유이다.

옛 계약이 하나님의 '아동기 교육'에 비유되듯이, 그는 신약의 새 계약을 성숙한 '청년기 교육'으로 비유하였다. 칼빈은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서 교육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연령과 그 특성에 맞추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교육하신다고 이해하였다. 즉, 하나님이 옛 계약 공동체인 유대인들을 미성숙한 어린아이로 이해하여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눈높이 교육을 하셨던 것처럼, 새 계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숙한 성인답게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칼빈은 이해하였다.⁵¹¹⁾

칼빈은 아동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적당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조절교육을 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예로 설명한다. 그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피조물들 속에서 그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다. 그는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생명나무'(창2: 9), '노아 홍수와 무지개'(창9: 13), '기드온의 양털'(사6: 37), '해시계 사건'(왕하20: 9) 등의 예를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그들이 이해하고 감동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해 능력과 수준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여 교육하시기 위함이었다.⁵¹²⁾ 하나님은 유아기나 아동기 수준의 연령을 가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오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조절하여 알리시려고 교육하셨다.

예를 들어, 칼빈은 갈라디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조절과 이를 통한 교육적 의미를 설명한다. 유업의 상속자가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과 몽학선생이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옛 계약의 백성들은 아직 예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511) OS, 3: 435; CR, 50: 224.

512) 양금희, *op. cit.*, 114.

어린 상속자들처럼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몽학선생격으로 율법을 교육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다.⁵¹³⁾

칼빈은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도 아직 아동기 단계인 구약 공동체의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으로 조절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그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구약의 성도들이 영적 충만을 느끼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에 이 사건들을 일종의 성례로 보았다.⁵¹⁴⁾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조절과 구원 교육적인 관점에서 옛 계약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구약의 레위기 제사법을 이해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 구약의 성도들과 만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하셨다고 보았다. 구약의 제사 의식은 그 자체로써 궁극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⁵¹⁵⁾

칼빈은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에 제사의식과 같은 예식을 통하여 그들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셨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림자로서의 제사는 그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하나님의 구원 교육적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⁵¹⁶⁾

하나님은 타락한 자신의 피조물에게 맞도록 자신을 조절하고 계신다고 보았다. 칼빈은 율법을 하나님의 대표적 조절로 이해하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계시 방법을 인내하시며 조절하고 계신다고 보았다. 더욱이 육신이 되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조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칼빈은 율법을 “옛 계약의 백성을 거기에 묶어두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구원을 향한 희망을 그가 올 때까지 지켜가기 위해 주어진 것”⁵¹⁷⁾이라고 하였다.

513) 『신앙교육서』, 제 8절; CR., 50: 224.

514) OS., 5: 276.

515) 오인탁, *op. cit.*, 57-62.

516) *Inst.*, 1. 17. 2; 2. 8. 51, 59; OS., 3: 436; CR., 29: 178.

517) OS., 3: 326.

칼빈은 율법이 하나님의 조절의 한 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결코 칼빈의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상은 아니다. 칼빈은 십계명을 해석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6장에서부터 시작한다. 율법의 진정한 내적 그리고 영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보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모세의 십계명 교육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나타난 제자교육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제유법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법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 가운데에서 가장 흉측한 죄를 선택하여 나머지 모든 죄를 충격적으로 표현하셨다.⁵¹⁸⁾ 이것은 모세가 신의 영감을 받아서 이 사회의 가장 악한 죄를 선택하여 다른 모든 죄를 나타낸 것과 같다.⁵¹⁹⁾

이것에 대하여 배틀즈는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조절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님의 도덕교육은 이처럼 완고한 백성들에게 맞도록 조절되어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칼빈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것은 헛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의 역량에 맞게 이미 조절하셨으므로 그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⁵²⁰⁾고 여겼다. 그러나 칼빈은 그러한 입장에 대하여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면서 하신 조절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 능력 수준 이상으로 높여 놓음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리고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길로 가야함을 보여 주는 데 그 의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⁵²¹⁾

칼빈은 하나님의 구원 교육적 측면에서 율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즉 칼빈은 율법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 교육적 통로라고 보았다. 그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설명하였다. 첫째로, 율법의 제 1 기능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죄인 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인간에게

518) *Inst.*, 2. 8. 39, 41.

519) 『신앙교육서』, 제 8절.

520) Ford L. Battles, *op. cit.*, 46-47.

521) *Ibid.*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구원을 위한 사전 준비를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율법의 제 2 기능은 기독교인이나 비 기독교인들에게 경고와 자극을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율법은 인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옛 성품을 억제시키도록 고삐를 채우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 셋째로, 율법의 제 3 기능은 거듭난 자에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교육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은 그들에게 매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그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는 교사이다”⁵²²⁾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여 교육하시는 통로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이해하였다.

하나님의 조절하심의 최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계로 오셔야만 된다. 이러한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조절하심은 다른 증거와 방법 즉, 아버지, 교사, 의사, 재판장, 왕 보다 가장 뛰어난 조절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아담의 타락 이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보았다. 그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하나님의 조절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중재자로 내세우지 않는 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광대하신 반면 우리의 이해는 너무나 빈약하고, 우리의 이해력은 하나님을 이해할 만큼 높이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완전히 삼켜 버리는 무지개이다. 둘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지만, 중보자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움을 없애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피하고 도

522) 『신앙교육서』, 제 8절.

망갈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명백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들의 수준으로 낮추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양심을 불드셔서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신다.⁵²³⁾

칼빈은 복음의 중심을 왜곡하거나 회색하지 않고 성육신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조절을 이해하였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스스로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유한하게 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작은 한계 속에서 조절하심으로써 우리가 그의 영광의 무한함에 압도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⁵²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조절하심에 대한 지나친 묘사는 기독교 복음 전체를 단순한 수사법에 의하여 퇴색시키고, 회색시키고,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⁵²⁵⁾ 이에 대하여 칼빈 자신도 인간적인 수사법을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삼위일체와 성만찬 문제의 경우에 인간적 수사법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다.

칼빈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비성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 세르베투스에게 자극을 받아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⁵²⁶⁾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통 교리의 수호를 위한 가르침과 논쟁을 위해서는, 그런 용어를 성급하게 거부하지 말고, 이 용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단순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며 성경의 진정한 교훈을 담고 있음을 확신하고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⁵²⁷⁾고 밝히고 있다.

또한 칼빈은 성만찬에 관한 장을 쓰는 것을 주저하였다. 왜냐하면 이 최상의 신비를 다루는 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말이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시인

523) *Comm., 1 Peter* 1: 20.

524) *Inst.*, 2. 6. 4.

525) Ford L. Battles, *op. cit.*, 49.

526) *Inst.*, 1. 13. 5.

527) *Ibid.*

하였기 때문이다.⁵²⁸⁾ 이러한 칼빈의 입장은 매우 놀라운 것인데, 그는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이것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칼빈은 성만찬에 대한 불완전한 인간의 해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조절’이 성찬 속에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칼빈은 결코 조절을 물리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혹은 영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바뀌어 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리적인 것 안에서 영적인 것이 조절된 것으로 보고 있다.⁵²⁹⁾

칼빈은 썩빙글리처럼 물리적인 표를 중시하여서 그 신비로부터 물리적인 표를 분리시켜서는 안되며,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처럼 무리하게 그것을 격찬함으로써 신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⁵³⁰⁾

베를즈는 하나님 조절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신중히 살펴본 후에, 하나님 조절을 정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조절을 통하여 성경에서 표현된 신인동형론적인 묘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조절을 통하여 사고와 예배에 있어서 신인동형론적인 모형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수사학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조절이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 언어적 도구를 통하여 능력을 부여받아 진리에서 멀어지는 대신에 가까이 가도록 인도를 받게 된다. 따라서 조절언어와 그 언어가 가리키는 진리는 실제로 하나이다. 하지만, 인간의 수사학으로 조절된 연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⁵³¹⁾

이와 같이,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의 조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사랑과 은혜이다.

528) *Inst.*, 4. 17. 7.

529) Ford L. Battles, *op. cit.*, 49.

530) *Inst.*, 4. 17. 5.

531) Ford L. Battles, *op. cit.*, 50.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 조절교육의 통로로 보았다. 그는 인간이 이 지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여전히 부족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칼빈은 부족한 인간의 수준을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한 순간에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교회교육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다.”⁵³²⁾

이미 살펴보았듯이,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 학교’로, 성경을 ‘하나님 학교’의 교과서로 보았다. 또한 그는 ‘하나님 학교’의 교과서인 성경을 매우 쉽게 그리고 열정을 다하여 가르쳤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 학교’의 교과서인 성경을 설교를 통하여 교육시키는 것이 ‘하나님 학교’ 교사로서 목회 사역자의 주된 임무라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설교의 교육적인 중요성을 인식한 칼빈은 설교 전달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조절교육 원리와 눈높이교육 원리를 따라서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설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실 때, 인간의 상태와 이해 능력의 수준에 맞추어 그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택하셨다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시고, 스스로 그들의 수준에 맞게 조절하심으로써 교육하셨다고 이해하였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이 구약의 옛 계약 시대를 아동기 교회로 보시고, 그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자녀들에게 교육하셨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이 청년기인 새 계약 시대에는 그 연령과 특성에 맞추어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조절하셔서 교육하신다고 이해하였다.

이와 같이 칼빈은 교육적인 안목으로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이해하였고 성경교리에 내포된 수많은 주제들을 교육신학적 사고로 내면화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목회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율법, 교회, 성육신 사건, 성례 등의 모든 것을 통하여 인간의 이해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조절하셔서 교육하신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그가 성경적인 진리,

532) *Inst.*, 4. 1. 5.

세계, 그리고 교회를 교육적인 안목으로만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성경을 교육신학적 틀 안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교육목회에 철저히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이 총체적으로 성경, 교회, 세계, 교육 문제 등을 교육적 안목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였던 것은 바로 오늘날 개혁교회의 교육신학적 기초와 틀을 제시하여 준 것이다.

D. 교리설교론

칼빈은 교리 중심의 신앙교육이 제네바 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직감하였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강조하면서 설교에도 설득과 가르침의 두 요소를 중시하였다. 특별히 가르침을 위한 설교는 교육적 교리설교, 혹은 교리교육설교로 이루어졌다.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 학교'라고 불렀으며, 성경 교리설교를 통하여 경건훈련에 최선을 다하였다.

칼빈은 교리교육을 강조하면서 그 교육 방법 중 하나를 설교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설교가 개혁주의 신앙으로 사람을 훈련시키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설교에서 설득과 가르침을 포함하는 설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칼빈은 교육적 설교를 강조하면서, "설교가 죽어 있으면 안되고 살아 움직이는 설교가 되어야 하며 설교자는 항상 설교를 통하여 가르치고, 권고하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⁵³³⁾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칼빈은 "설교자가 단지 우쭐할 목적으로 수사적 기법을 의존하거나 유치한 수사적 기교를 부리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⁵³⁴⁾고 경고하였다.

또한 칼빈은 교회에 재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교리에 대한 고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교회 사역자들에게 항상 설교를 하면서 교회의 생명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철저히 공식화하였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아이들과 무지한 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신앙교육서』를 만들어, 그들이 건전한 가르침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533) CO., 13: 71.

534) CO., 13: 72.

복음의 적들에 대하여 능히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항상 철저한 교리교육을 통하여 참된 교리에 위배되는 거짓과 타락된 진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⁵³⁵⁾고 요청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교육서』 없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만일 어린 아이들이 문답식으로 잘 배운다면 교회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결코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⁵³⁶⁾라고 하였다. 칼빈은 『신앙교육서』의 두 가지 목적을 강조하였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신자들이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거짓되고 잘못된 교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⁵³⁷⁾ 그러므로 칼빈은 신자들이 신앙교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교육을 받는다면 결코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신앙교육서』가 참된 종교를 왜곡하는 자들의 유혹을 제지하는 고삐가 된다고 보았다.⁵³⁸⁾ 더욱 놀라운 것은, 칼빈이 『신앙교육서』를 통한 교리교육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한 교리교육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도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종교개혁의 모든 시도들이 아무리 건전하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설교라는 강력한 도구를 더욱 더 개발시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시도들은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큰 위험들만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군주들의 칙령들과 법령들은 기독교의 위치를 지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유익한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인 영적인 칼로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을 목사들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기뻐하신다.⁵³⁹⁾

칼빈은 신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할 목적으로 『신앙교육서』에 대한 교리교육을 철저히 행하였다. 그가 얼마나 교리교육을 위한 설교에 온 정열을 쏟아

535) *CO.*, 13: 71.

536) *Ibid.*

537) *CO.*, 13: 72.

538) *Ibid.*

539) *CO.*, 13: 71.

부었는지를 알려면 제네바에서 행한 설교 사역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회중들에게 진리를 배우는 데 몰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마음의 준비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회중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받은 교훈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그는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의미 없이 설교를 듣거나 설교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권면 하였다.

헤트케는 칼빈의 설교에 관한 3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로, 설교는 반드시 교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효과적인 교리교육을 위하여 설교는 순계적이며 교훈적이어야 한다. 셋째로, 설교는 반드시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결정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⁵⁴⁰⁾

칼빈은 그가 행한 모든 사역들, 즉 설교, 강연, 주석 및 『기독교강요』 집필 등을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생각하였다. 또한 칼빈의 설교를 폭넓게 연구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조절(눈높이)교육 원리에 따라 회중들에게 신학적, 해석학적, 수사학적 배려를 충분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행한 설교를 분석해 보면, 회중들을 위하여 성경을 이해시키고 교리교육을 시키는 데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회중들의 신학적 눈높이를 고려하여 많은 예화와 은유적 표현들을 사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그의 교육적 설교론에 근거한 의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속하였다.

칼빈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교의 강연처럼 설교를 연속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는 한 단락 혹은 그 보다 더 작은 단락을 다루면서 성경 한 권을 연속적으로 강해하였다. 종교개혁의 전 시대에서 연속 강연의 관습은 주로 대학의 강의실에서 찾아 볼 수 있었으나, 교회 강단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칼빈의 연속 설교의 방식은 스트라스부르그와 취리히의 관습들뿐만 아니라, 후기 교부들과 중세 신학의 전통의 영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에, 루터와 쾰링거가 총체적인 성경 강해

540) R. Hedtke, *op. cit.*, 106.

를 자신들의 주요 임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칼빈도 그것을 타당하게 생각하고 성경 전 권을 연속적으로 설교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연속적으로 설교함으로써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유지되도록 힘썼다. 그래서 그의 연속 설교를 통하여 깊이 있는 성경 교육과 교리교육이 지속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칼빈의 성경해석 방법은 당시 대학에서 행하였던 성경 순서를 따라 해석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그는 복음서를 공관의 형태로 주해하는 대학의 관습을 따랐다. 그리고 그는 중세 대학의 유산인 질문과 답변의 구조 형태를 취했는데, 이것은 바로 고대 수사학에서 그 근본 뿌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칼빈은 설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교육하는 데 힘을 쏟았다.⁵⁴¹⁾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그의 연속적인 성경 주해, 강의식 설교 및 성경 교수법을 통하여 그가 철저히 교육목회에만 열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종교개혁과 성도의 신앙교육을 위한 매체로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설교의 교육학적 기능을 중시하였다.

E. '가나다' 기초 교리교육론

칼빈의 교육론의 핵심은 '하나님 학교' 교육론에 있다. 이 '하나님 학교' 교육론에 따라서, 그는 교육목회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의 교육목회 사역의 방법은 가정, 교회, 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한 교리교육적 설교와 『신앙교육서』를 통한 교리교육은 바로 그의 교육목회의 중심이 되었다. 그의 교리교육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그의 '가나다' 기초 교리론이다.

칼빈은 항상 기초적인 지식 혹은 근본적인 지식 등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말할 때, '가나다'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그의 히브리서 5장 12절의 주석을 보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바스찬 까스텔리오

541) CO., 42: 4.

(Sebastian Castellio)를 평가하는 말이 있는데, 칼빈은 「어떤 비방과 하나님 모독에 대한 대답」이란 글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무지한 까스텔리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를 비난한다.

까스텔리오는 기독교의 '가나다'도 분명히 배우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행동인 외부적 설교와 내적이고, 효과적이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신다는 사실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⁵⁴²⁾

칼빈은 '가나다'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주제는 그의 설교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그가 '가나다'라는 주제를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였던 이유는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 교리를 언급할 때 이 주제가 상당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기독교인의 출발을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근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감정들을 통제하도록 배우는 것은 '하나님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공과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악을 악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는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의 '가나다'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행하여야 할 신앙인의 '가나다'이다. 말하자면, 이 원칙은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기본적인 실천 원리이다.⁵⁴³⁾

이러한 유형의 다른 예는 욕기 설교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 학교'에서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것들 중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배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칼빈은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어린아이의 말로 묘사하고 있다. 만약 그가 '가나다'를 배우기 전에 선택 과목을 택하게 된다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어떤 교과서를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아무것도 습득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나다' 기초가 되

542)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교리를 오염시키고자 하는 어떤 비방과 하나님 모독에 대한 대답"을 가리킨다(CO, 58: 201).

543) CO, 58: 151.

어 있지 못하고 기본 바탕과 수단들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람은 결코 기준 높고 복잡한 지식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에게 배우기 전에 우선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으로 '유순함'을 꼽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우리 선생님이로 모셨다면, 우리는 완전히 그에게 순종하고 따라야만 할 것이다.⁵⁴⁴⁾

육기에 관한 또 다른 설교에서, 그는 자신들의 행동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경건치 못한 자를 기본 행동 변화의 '가나다'도 터득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⁵⁴⁵⁾ 시편 설교에서도, 그는 불신자들에 대한 신앙생활의 기초 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사탄과 전 세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를 용맹하게 만드는 약속들로부터 우리가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가나다'와 같은 기초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당신이 한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원한다면, 당신은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시작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가나다'를 반드시 시작해야만 한다.⁵⁴⁶⁾

뿐만 아니라, 칼빈은 '가나다'라는 주제를 경건생활과 연관지어 제네바 시민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학교'에 있었는지를 계산하는 숙련된 사무원들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가나다'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교사였지만, 그들은 게으름을 피웠다"⁵⁴⁷⁾라고 지적하였다. '하나님 학교'에서 수년간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식한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들 즉, 여전히 '가나다'에 머무르면서 선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신을 비난해야 한다⁵⁴⁸⁾고 그는 강조하였다.

544) CO., 35: 486.

545) *Ibid.*

546) SC., 7: 45.

547) CO., 50: 626.

548) CO., 51: 608.

칼빈은 구약의 예식을 복음의 지식으로 더욱 향상시키기 이전에 꼭 알아야 할 ‘가나다’로 보았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가나다’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는 놀라운 지혜를 모르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로 평가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간파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⁵⁴⁹⁾ 그래서 처음부터 학생들이 기초 문법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후에 비로소 상위의 학문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그는 ‘가나다’를 모르고 단순히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어린아이라고 비유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성인이 된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가나다’를 배우거나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으로 간주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충분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가나다’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⁵⁵⁰⁾

칼빈은 또한 디모데전서 설교에서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의 전통과 유산 때문에 스스로 높다고 자칭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하여 ‘가나다’ 즉 율법의 기초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로 비판하였다.⁵⁵¹⁾ 칼빈은 “안식일 같은 상징과 그림자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는 것은 포기되어야 한다”⁵⁵²⁾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거기에 얽매는 것이 마치 우리가 ‘가나다’와 같은 것에 매여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⁵⁵³⁾

칼빈에게 있어서 유대인들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전통들을 고안하였고, 여전히 구약성경에 따른 예식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유모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처럼 예식적 율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약의 유치한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의 발전 상태로 나아가서 예

549) 『신앙교육서』, 제 3절.

550) CO., 50: 471.

551) CO., 53: 190.

552) 『신앙교육서』, 제 9절.

553) SC., 6: 129.

식적 율법의 '가나다' 사용 그 이상으로 전진해야 한다.⁵⁵⁴⁾

칼빈은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일찍 배우고 난 다음에는 다시 ‘가나다’로 돌아가지 말라고 강조하고, 대신에 늙은이나 젊은이나 함께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지혜의 완전함을 찾으라”⁵⁵⁵⁾고 하였다. 또한 칼빈은 완전주의자들처럼,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죄인들이지만, 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가나다’에 머물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⁵⁵⁶⁾

또한 칼빈은 ‘가나다’라는 주제를 기독교 복음의 최종성과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스도는 오직 기본이 되는 ‘가나다’만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위하여 뛰어난 교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⁵⁵⁷⁾ 이것은 교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불경한 오류에 불과하다. 이들은 성경을 단지 ‘가나다’이거나 서론일 뿐이며 오히려 교황들에게 더 큰 신비와 본질적 가르침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칼빈은 이것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단호하게 지적하였다. 불경건한 자들, 즉 교황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경멸하여 그분을 기초만 가르치는 단순한 보조교사로 보았다. 그리고 상위 교사인 교황은 더욱 완전한 가르침을 준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다시 한 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⁵⁵⁸⁾

다른 설교에서도, 칼빈은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 교리를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교황을 그들의 선생으로 보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다’를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기고, 교황을 하나님보다 더 적절한 교사로 주장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⁵⁵⁹⁾

또한 칼빈은 시편 119편을 강해하면서 본 시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울 많은 진리와 교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암송하기 위하여

554) *CO.*, 54: 485.

555) *CO.*, 54: 501.

556) *CO.*, 51: 758.

557) *CO.*, 50: 329.

558) *CO.*, 50: 399.

559) *SC.*, 6: 126.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목회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하는 자리에서, 칼빈은 비록 설교자들이 성경 교육을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설교자들은 끝까지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교자는 결코 성경에 충분히 잠기지 않고서 설교단에 올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충분한 성경 연구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마어마한 착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칼빈은 자주 남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항상 1인칭을 사용하여 그러한 원칙을 자신에게도 적용시켰다.

나는 여기에 서 있지만,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학자로 남는 것과 내 입에서 나온 말들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이 나에게서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⁵⁶⁰⁾

칼빈은 자신의 후기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 학교'에서 얻는 것과 비교되는 유익한 인간의 가르침이나 지혜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세상에서 배우는 '인간의 규범들'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람에게 일정한 판단 규범만 제시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⁶¹⁾ 문자를 배우는 것은 한 사람의 자연적 상식을 정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람의 모든 지식을 배우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나다'처럼 아주 기본적인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은 인간을 조금도 하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도 인간 지식은 잘 교육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 학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저 단순한 '가나다'일 뿐이라고 말하였다.⁵⁶²⁾

칼빈은 '가나다' 주제를 이사야 28장 10절의 수수께끼와 같은 구절에 붙여서 그의 교

560) CO., 33: 502.

561) 『신앙교육서』, 제 3절.

562) CO., 32: 633.

육적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⁵⁶³⁾ 이 구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에서, 칼빈은 여러 단어들을 반복하는 것이 기본 교훈을 어린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교사들은 그러한 어린이들에게 길거나 본질적인 교훈을 제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괄적인 인식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들은 ‘조금씩 조금씩’ 가르칠 수 있다.⁵⁶⁴⁾ 그는 이 구절을 성경 각 권에 대한 몇몇 설교들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베소서 설교에서, 칼빈은 기독교인들은 이사야가 비판하는 유대인들처럼 배우는데 능장부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가나다’에 붙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정 관념에 계속 남아 있었다.⁵⁶⁵⁾ 갈라디아서 설교에서, 칼빈은 단어들과 세세한 생각들을 반복하면서 이사야 28장 10절의 점진적 진전을,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잊어버리고 아주 늦게 발전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알파벳 문자의 반복과 연관시켰다.⁵⁶⁶⁾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 학교’는 성경 그 이상이다. 만약 광의의 ‘하나님 학교’를 취한다면, 거기에는 개인 성경공부와, 공적인 설교, 교리교육, 그러한 노력들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성령의 역사, 덕성 함양 등이 포함될 것이며, 거기에서 ‘하나님 학교’의 본질 파악은 더욱 가깝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주춤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경건의 진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전 생애에 걸친 훈련이다. 건전한 교리로 어머니처럼 우리를 양육하고,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바로 전체 목회자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기독교인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학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563) 한글 개역: . . .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 . . RSV: For it is precept upon precept, precept, upon precept, line upon line, line upon line, here a little, a little there.

564) *Comm., 1 Corinthians* 3: 2.

565) *CO.*, 51: 577.

566) *CO.*, 50: 574.

V. 『신앙교육서』를 통한 칼빈의 교리교육 현장 이해

본 장에서는 제 4장에서 연구된 칼빈의 『신앙교육서』와 그의 목회 문헌을 통하여 찾아낸 그의 교리교육론이 교육실천 현장인 ‘가정’, ‘교회’,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칼빈의 교리교육 현장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가정, 교회, 학교가 교육의 장으로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한국 사회와 교회에 적용시킬 교육적 안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개혁교회 내에서 교육의 핵심, 생명의 말씀, 그리고 교리가 없이 감정적인 교육 방법론에만 의존하는 입장과 기독교 교육 방법론을 무시한 채 냉정하고 딱딱한 교리만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하여 상호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원리와 실천 방안을 찾고자 한다.⁵⁶⁷⁾

A. 가정과 교리교육

칼빈에게 있어서 가정은 인간의 초기의 삶을 형성하는 곳으로서 교육의 중요한 장으로 여겨진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 곳에서 처음으로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가정을 교육을 위한 최초의 장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목회자요 신학자였다. 그는 가정을 교리교육의 중요한 장으로 생각하고 가정에서의 교리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러면 본 장을 통하여 칼빈의 입장에서 본 가정의 교육적 위치, 가정에서의 교리교육의 중요성, 가정의 교리교육 원리와 방법, 가정과 교회의 교육적 상호 관계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567) 프랑스의 칼빈 신학자 에밀 두메르그(Emile Doumergue)는 “칼빈은 교리가 차가워서도 안되고 또한 뜨거워서도 안 된다고 하였고, 또한 교리는 실천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Emile Doumergue,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61-63을 참조 바람.

1. 칼빈의 가정교육관

가정교육에 대한 칼빈의 생각은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라고 생각하였다.⁵⁶⁸⁾ 왜냐하면 그는 특별한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성을 찾았고, 어린이를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보았기 때문이다.⁵⁶⁹⁾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의 유명한 『소 요리 문답서』의 서문에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목회자'라고 하였고,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까지 불렀다. 루터의 이 말은 지상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하는 말이며, 특히 가정을 교회에 비교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칼빈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영광스런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과 의무도 주셨다고 강조하였다. 칼빈은 “어린이는 부모의 육체의 저당품과 같다”⁵⁷⁰⁾ “부모들은 사랑의 저당품인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한다”⁵⁷¹⁾ “부모들은 자기 자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⁵⁷²⁾ “부모는 자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⁵⁷³⁾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겼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자식을 부모님들에게 영광스런 선물이 되게 하셨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칼빈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창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표현할 수 없는 보물이라는 차원에서 자녀관과 그들에 대한 교육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칼빈은 디도서의 주석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수행되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568) CR., 51: 783; *Comm., Ephesians* 6: 1-4.

569) CR., 43: 454.

570) CR., 46: 63.

571) CR., 46: 42.

572) CR., 45: 23.

573) CR., 46: 61.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영광을 받은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면 당연히 믿음으로부터 항상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사업을 가르치는 데 대단히 노력하는 이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가!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뛰어난 선생들을 확보해 준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과시해 보이기 위함이고, 그리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세 개 정도의 라틴어 단어들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요, 식탁에서도 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⁵⁷⁴⁾

그는 『기독교강요』에서 특별히 “자녀 교육을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동한시하는 부모는 반드시 치리를 받을 것이다”⁵⁷⁵⁾라고 할 정도로 각 가정에서 시행되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강조하였다.⁵⁷⁶⁾ 또한, 그는 “이런 훈육이 지금도 시행된다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경시하는 나태한 부모들은 분명히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경시한다면 공중의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⁷⁷⁾라고 말하면서 자녀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개혁신학은 신앙교육의 장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중시하였다. 실제적으로, 종교개혁 이전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만을 목회와 교육의 중심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개혁자들의 생각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런 견해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정이 교회 중심 목회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와 가정은 깊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 중심의 목회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교회 중심의 목회도 역시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

574) *Comm., Titus* 2: 1-7.

575) *Inst.*, 4. 19. 13.

576) *Comm., Ephesians* 6: 4.

577) *Ibid.*

다.⁵⁷⁸⁾ 루터도 역시 교회, 학교와 같은 가장 표준적인 교육 기관들과 함께 가정을 교육의 장으로 삼았고, 이 세 기관 중에서 가정이 주축이 되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정적으로, 칼빈은 교회 교육의 일부인 가정교육이 교회에서의 교육을 보충해주고 보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였다.⁵⁷⁹⁾

칼빈의 가정교육에 대한 강조는 어머니도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킬 의무를 가진다는 데 있다.⁵⁸⁰⁾ 가족 공동체에서 아버지가 가지는 교육적 책임에 대하여 칼빈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공식적인 교사로 목사를 주셨듯이, 모든 아버지는 자신이 속한 가족의 교사로서 신앙교육을 가족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특별한 과제를 받았다”⁵⁸¹⁾고 역설하였다. 반면에, 그는 역시 어머니의 교육적 책임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지 않고 도리어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비록 어머니가 여성으로서 공예배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지 않더라도, 그녀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책임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⁵⁸²⁾

칼빈은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그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경건한 사람은 단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집안 살림까지 잘 돌아보아야 한다. 어린이를 가진 사람들은 이들을 가르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가정은 여자, 자녀들,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⁵⁸³⁾고 언급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루터도 역시 앞서 언급된 교육 내용들을 몸소 실천하여 모범적인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의 교육적 책임을 위임받은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가정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578) 정일용, 『교육목회학』, 188.

579) 정정숙, 『기독교 교육 과정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부, 1980), 34.

580) CR., 26: 315.

581) CR., 31: 724.

582) CR., 52: 276; CR., 47: 434.

583) OS., 3: 385; 『신앙교육서』, 제 2절.

자신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명령을 밝힐 필요가 있다.⁵⁸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에게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함께 한 가정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는 지위를 주신 것은 바로 창조적 원리와 인간질서의 원리에 그 뿌리를 둔다.

좁은 의미에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아버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인간에게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영광을 부모에게도 나누어주셨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반항은 곧 하나님께 대한 전쟁과 다름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당신의 권한을 위임하셨고, 또한 부모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지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과 위엄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상당한 지위와 영광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이를 선물로 주셨다면, 부모들은 이에 합당한 자녀 양육과 교육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칼빈은 가정을 '아이들이 어머니의 모유처럼 신령함을 빨아들이는 장소'로 보았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스며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의 책임에 대한 칼빈의 이러한 강조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혈육이며, 그들의 대를 잇는 가족의 일부가 된다"⁵⁸⁵⁾는 그의 표현에 근거한다. 이것이 칼빈이 강조하는 요점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자녀관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새롭게 환기시킴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부모의 역할과 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견해를 가지는 그는 "만약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부담을 가지게 되고 결국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⁵⁸⁶⁾라는 표현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것보다 더 많은 열정과 관심

584) *CR.*, 26: 315.

585) *Comm.*, 1 *Timothy* 5: 8; *Comm.*, 2 *Timothy* 1: 5.

586) *CR.*, 32: 325.

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실 목적으로 그들에게 아버지라는 권위 있는 이름을 선사하셨다고 말하였다.⁵⁸⁷⁾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들이 항상 예배 시간을 잘 준수하는지 살펴서 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분명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관대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⁵⁸⁸⁾ 칼빈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부모는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죄와 같이 불복종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⁵⁸⁹⁾ 덧붙여서, 그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은 출교를 당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부모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자극하며 통제할 수 있다”⁵⁹⁰⁾라고 말하였다. 또다시 그는 아이들의 교육을 무관심 속에 내버려두는 몇몇 부모들의 게으름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그런 행위로 인하여 공개적으로 매우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⁵⁹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가정을 교육의 기초적인 장소로 매우 중시하였다. 그는 자녀와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가정교육의 책임자로서 수행해야 할 부모의 교육적 의무를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의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선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며, 부모들의 모범 없이는 자녀교육의 열매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⁵⁹²⁾

2. 가정교육의 핵심으로서의 교리

칼빈은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기독교인 부모들의 의무이며 특권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철저하게 교리교육을 수

587) CR., 26: 138.

588) CR., 31: 724. 『신앙교육서』, 제 13절.

589) OS., 3: 385.

590) CR., 17: 452.

591) OS., 5: 447.

592) CR., 33: 43; *Comm., Hebrews* 1: 2-5.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만일 부모들이 교리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올바르게 가르친다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일치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⁵⁹³⁾

가정에 대한 정의에서, 칼빈은 하나님을 향한 부모들의 경외심은 가정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한 가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그들이 항상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가정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⁵⁹⁴⁾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모습을 갖추었을 때, 그런 삶의 모습들은 자녀들의 올바른 행동과 도덕적인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것이 현대 교육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칼빈은 학교와 교회처럼 가정에서도 신앙의 기초 교리가 포함된 『신앙교육서』를 자녀들을 위한 교리교육의 지침서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제네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부모들에게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칼빈의 또 다른 강조 사항은 자녀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가정에서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기초적인 신앙교육을 그들에게 잘 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자녀들이 세례문답을 받을 때에도 부모들은 함께 문답에 임함으로써 자녀들의 교리교육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다시 확인시켜 주어야 했다. 자녀들의 세례식 때에도 역시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것을 서약하여야 했다.⁵⁹⁵⁾ 하지만 칼빈이 사역할 당시에 수행되었던 문답 의식과 지금의 의식을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의 교회는 세례문답식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행하는 점에 있어서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의 세례문답 공부에 아무런 책

593) CR., 54: 429; *Comm.*, Titus 1: 5-6; 『신앙교육서』 제 1절에는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데, 인간 존재에 대한 그의 주장은 인간이 두려움과 사랑과 경외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데 초점이 맞춰 진다.

594) CR., 27: 188; CR., 36: 317; CR., 27: 119; CR., 27: 658.

595) OS., 2: 31.

입감도 느끼지 않고, 세례문답할 경우에도 부모들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교회는 자녀들에게 세례문답을 할 경우에 그들의 부모들에게 신앙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순서를 갖지 않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신앙교육서』를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자녀들이 세례문답에 임할 때에 부모들도 함께 입회인으로 참석하며,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의무를 계속적으로 감당할 것을 서약하게 한 것은 칼빈의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⁵⁹⁶⁾

세례 입회인은 칼빈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받았던 가르침들을 스스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 입회인으로 참석해야만 하기 때문에,⁵⁹⁷⁾ 그는 부모들을 세례 입회인이라는 자격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각각 세례문답과 세례를 받을 때에 함께 참석하도록 하였다.⁵⁹⁸⁾

만약 세례 약속을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아이들의 교육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세례 행위는 스스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세례 약속과 그 결과에 따른 가르침 없이 베풀어지는 세례는 일종의 웃음거리가 되고 그 권위는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세례 약속이 아이들에게 제공된다면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은 무시되거나 경시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세례 약속을 하였던 부모들과 세례 입회인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정확하게 교회에서 행하는 『신앙교육서』 수업에 보내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에는 데려다 주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목사들에게 지정된 시간을 통하여 자녀들이 개괄적인 교리에 관해서 배우게 할 목적으로 교회는 부모들과 세례 입회인들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후원하도록 권면하는 데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⁵⁹⁹⁾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자녀들의 교육에 관련하여 가정에 주어진 과제는 수업을 위해 교회를 방문하고,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교재를 반복하여 그들에게 읽어주어야 하고,

596) OS., 2: 36.

597) CR., 17: 667.

598) CR., 18: 236.

599) OS., 1: 376; OS., 2: 357.

부모는 특별하게 모든 교리의 범위 안에서 성경에 포함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가르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훌륭한 교육 보조서로 『신앙교육서』를 생각하였다.⁶⁰⁰⁾

칼빈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⁶⁰¹⁾ 왜냐하면 부모들은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참된 종교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하나님께로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갖는 것이다.⁶⁰²⁾

비록 자녀들이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미덕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미덕들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단순히 세속적인 것으로 가르침을 얻게 되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칼빈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차를 소에 묶는 것과 같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파멸과 혼란만이 남을 것이다. 반면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그러한 인식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훌륭한 기초가 될 것이다”⁶⁰³⁾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순수한 인식, 그리고 진실함으로 가르침을 얻도록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개여 있어야 한다.⁶⁰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순수한 교리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이 보여주는 확실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⁶⁰⁵⁾ 칼빈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전수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물려준 부모의 유산이라고 생각하였다.⁶⁰⁶⁾

600) OS., 2: 35.

601) 『신앙교육서』, 제 3절.

602) CR., 57: 188; CR., 26: 317.

603) CR., 54: 429; CR., 26: 484.

604) CR., 27: 658.

605) CR., 26: 484.

606) CR., 27: 120.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구원의 가르침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가정교육에 대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뜻을 진실로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차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을 세대를 이어가면서 자손에게 계속 전수해야 한다. 즉,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알려야 하는 것이다.”⁶⁰⁷⁾라고 언급하면서 부모들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단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데 만족하시지 않으며, 당신의 영원하신 이름으로 인하여 한 세대를 지나서도 계속해서 존경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참된 믿음을 유지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쁜 길로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확장시켜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온 세상에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⁶⁰⁸⁾

만약 부모들이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음 세대에 전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이다.⁶⁰⁹⁾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은 가정에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⁶¹⁰⁾ 그리고 부모들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씨앗이 존재하고, 그 씨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꽃을 피우고 번창하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분의 이름이 불리어 질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⁶¹¹⁾

또한 부모 교육도 역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리는 계속 전수되며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 덧붙여서 부모 교육은 직접적으로는 자녀 교육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교회에 속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행위로 간주된다.

607) CR., 23: 258; CR., 24: 291; CR., 24: 227.

608) CR., 35: 574; CR., 26: 484.

609) CR., 31: 724; CR., 36: 663.

610) CR., 26: 484.

611) CR., 26: 138; CR., 27: 119.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방법,⁶¹²⁾ 즉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자세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⁶¹³⁾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한 가족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존경받고 모두가 그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⁶¹⁴⁾

만일 하나님께서 한 가족과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존경을 받으신다면, 자녀들의 올바른 행동과 도덕적인 생활 태도를 위한 노력은 그러한 존경의 자세로 인하여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치리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속한 가정 안에서도 존경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본보기를 비쳐주는 일종의 거울과 같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⁶¹⁵⁾라고 칼빈은 지적하였다.

3. 사랑과 훈육의 교육 원리

칼빈은 부모들이 행할 가정교육의 원리 중에서 사랑과 훈계를 크게 강조하였다.⁶¹⁶⁾ 교회를 감독하는 이들이 교회교육을 실시할 때처럼, 부모들은 모든 상황에 따라서 사랑과 훈육, 부드러움과 강령함, 보상과 체벌, 칭찬과 꾸지람 등을 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엄청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원리 속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모처럼 사람들에게 조절하신 것처럼 부모들도 역시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을 사랑과 관대함으로 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놀거나 혹은 유모가 어린 아기와 함께 웅얼거리며 놀아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사람

612) *OS.*, 1: 376.

613) *CR.*, 27: 120; *CR.*, 29: 84.

614) *CR.*, 27: 188; *CR.*, 36: 317.

615) *CR.*, 26: 317.

616) *Inst.*, 2. 8. 51; *Comm.*, 1 *Timothy* 1: 5.

들을 대하신다. 이와 같이 부모들은 자녀들의 연령과 감정과 상황에 맞추어 그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현대 교육에서 소위 '눈높이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놀랍게도 칼빈은 당시에 이미 그러한 교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⁶¹⁷⁾ 그에게 교리교육의 목표는 구원 교육인 동시에 하나님의 교육이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의 손길, 곧 교육의 손길을 뻗으셨다.⁶¹⁸⁾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과 사랑, 보살핌과 인도함 전체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교육'이라고 비유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였다. 특히 그는 부모가 자녀들을 혹독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약 부모가 자녀들을 냉혹하게 대한다면, 그들은 부모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부모의 권위로부터 탈출하려고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고 부모에 대한 미운 감정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⁶¹⁹⁾

칼빈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폭군처럼 무섭게 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하였다. 그는 부모들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부드럽게 대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답고 따뜻한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들이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⁶²⁰⁾

칼빈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드럽고 적절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사람을 자식으로 대하시는 모습과 같다. 이런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경외과 순종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 이와 같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부드럽고

617) 양금희, *op. cit.*, 111-112.

618) OS., 3: 435.

619) CR., 52: 126; *Comm.*, Colossians 3: 20.

620) CR., 27: 188; CR., 51: 783; *Comm.*, Ephesians 6: 1-4.

관용적으로 대해야 하고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한다.⁶²¹⁾

칼빈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대할 때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그는 자녀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관심은 오히려 그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엄하게 금지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녀 교육에서 부드러움과 완고함, 즐거움과 긴장감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교회교육이나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에서도 훈육과 징계 등 치리를 교육의 방편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교육 원리 차원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시키기 위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치리를 의무적으로 행하게 하였다.⁶²²⁾ 이성적 판단력과 건강한 자녀관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치리의 필요성을 인식할 것이며, 모든 현명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적당한 치리를 가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인정할 것이다.⁶²³⁾ 그러므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그는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부모들과 세례 입회인들에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훈계와 징계를 하라고 강권하였다.⁶²⁴⁾

칼빈은 사역 당시에 제네바에 살고 있던 청소년들과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합당한 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청년들이 매우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불손함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나운 짐승처럼 부모들에게 덤벼들며 버릇없는 당나귀처럼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우준함을 일깨워주며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훈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⁶²⁵⁾

621) OS., 3: 385; 『신앙교육서』, 제 2절.

622) CR., 32: 345; *Comm., Psalms* 127: 5.

623) CR., 55: 174; *Comm., Hebrews* 12: 7.

624) OS., 2: 36.

625) CR., 12: 561; CR., 12: 559; CR., 33: 43.

그는 부패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교육하기 위하여 혹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혹독한 처벌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교육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즉,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타락시키는 것을 방관하는 행위이며 자녀들을 교수대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던 것이다.⁶²⁶⁾ 하지만, 부모의 징계는 자녀들을 구원하는 차원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비록 자녀들이 부모의 회초리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른다고 할지라도, 칼빈은 이것이 '구원을 위한 약'⁶²⁷⁾이라는 매우 준엄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칼빈은 부모가 치리권을 행사할 필요성에 관하여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먼저 부모가 경건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가정에서 보일 것을 강조하고 부모가 치리권을 남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⁶²⁸⁾ 그는 가정교육에서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면서 '본보기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는 좋은 본보기가 있는 교육은 열매 맺는 교육이며, 좋은 본보기가 없는 교육은 열매 맺지 못하는 교육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정에서 자신을 치리하는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키우고 이를 통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⁶²⁹⁾고 칼빈은 지적하였다.

그는 히브리서 1장 5절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다면, 가정의 주체인 내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본보기가 되었다면, 아이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부모 된 나의 책임은 항상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 행하는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다면,

626) CR., 33: 263; CR., 51: 783.

627) CR., 28: 55.

628) CR., 29: 549; *Comm., 1 Samuel* 8: 7-10.

629) CR., 33: 43.

그것은 본을 보이지 못한 나의 실수와 과오이다.⁶³⁰⁾

칼빈은 부모들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본보기 교육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인용하면서,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본이 기억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그에게 신앙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자극이 되었다”⁶³¹⁾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는 부정적이고 비교육적인 본보기는 수정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매우 우려하였다. 그는 비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에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의 일생동안 그가 기억하고 있는 부정적인 면들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그는 경건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된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⁶³²⁾

칼빈은 나쁜 본보기가 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나쁜 것들은 쉽게 전염되며 그 악한 영향력들에 대하여 본래의 인간은 대항하고 극복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항상 경건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행하는 교육 방법은 사랑과 함께 적합한 훈계와 징계를 하고, 또한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경건생활을 하도록 강조하였다.

4. 가정과 교회의 상호 관계적 교육

가정과 교회는 별개의 교육 환경으로서 상호 의존적인 접촉 지점을 가지면서도 서로

630) CR., 3: 52.

631) CR., 52: 348.

632) CR., 27: 658.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칼빈은 또한 가정과 교회의 교육이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그리스도인의 집이 조그만 교회’⁶³³⁾라고 강조하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최초의 교육자로 여겼던 것이다. 그는 “만약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 속에서 자신들의 가족을 교육시키고 그곳에 거룩한 다스림의 울타리를 쳐서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바로 작은 교회임을 알 수 있다”⁶³⁴⁾라고 언급하였다. 성경에 따라서 자녀들이 신앙 가정의 한 구성원과 은혜 언약의 수혜자들이 된다고 지적한 그는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생명의 유산자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에게 속하였다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교회에서 배제시키지 말아야 한다”⁶³⁵⁾고 분명하게 가르쳤다.

칼빈은 가정을 교회처럼 교리를 배우고 체험하는 공동체로 보았으며, 가정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부모들의 교육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 교회의 위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칼빈은 제네바 종교개혁 초기부터 교회 법령에 『신앙교육서』 작성과 『신앙교육서』 수업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지와 무식에서 해방시켜 비옥하게 하고자 하였다.⁶³⁶⁾

칼빈은 가정교육을 교회의 총체적 교리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육이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가정은 이런 특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교육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가정에서의 가르침과 교육은 교회에서부터 나타나고 교회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가정은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하며 가장의 직무는 목사의 직무와 많은 유사점을 가

633) CR., 53: 279.

634) CR., 52: 132.

635) John Calvin, “Form of Administering Baptism,”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 and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115-116.

636) OS., 1: 376.

진다. 그는 “가정이 교회의 모범이 될 만큼 가장이 가정에서 잘 가르친다면 또한 가장 이 자신의 개인적인 가정의 영역에서 목사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 가정은 가장 훌륭하고 칭찬할 만하다”⁶³⁷⁾라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칼빈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교리, 하나님에 관한 경외, 그리고 치리 등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목사, 교사 그리고 장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⁶³⁸⁾

B. 교회와 교리교육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교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로 보고 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이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실천하였다. 모든 세대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에 관하여, 그는 교회가 결코 졸업이 없는 학교로서 지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교회는 특수한 의복 양식과 읽기 점검, 채플의 의무 참석, 반항 학생을 다루는 선생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개혁학교’였다.⁶³⁹⁾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경건한 신자들이 양육되고 그러한 양육이 교회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⁶⁴⁰⁾ 칼빈은 교리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교리의 총체적인 집약서인 『신앙교육서』가 없는 교리교육도 역시 존재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마침내 온갖 정성을 다하여 1537년에 『신앙교육서』를 작성하여 제네바 교회에서 철저히 신앙교육에 힘썼다.

칼빈은 교리를 통하여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보았다. 그는 매주일 시행되는 『신앙교육서』 수업에서 학생들이 확실하게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철저히 행하였다.

637) *CR.*, 52: 442.

638) 양금희, *op. cit.*, 142.

639) Timothy George, “The Church as Congregation,” *Calvin Studies* 2 (1984): 12.

640) 양금희, *op. cit.*, 203.

1. 『신앙교육서』를 통한 교리교육

칼빈은 『신앙교육서』를 신자들의 교육과 양육을 위한 교리 교과서로 보았다. 『신앙교육서』는 성도들에게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확신시키고, 그 신앙을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신앙교육서』는 순수한 교리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도구이며 지침서였다. 칼빈은 처음부터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초신자들이 신앙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도록 배려하였으며, 신자들이 기독교의 기초 교리 안에서 깊은 신앙 지식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네바 교회법에 의하여 규정된 『신앙교육서』 수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자신들의 게으름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무지함과 무식함을 하나님의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교리교육의 중요한 목적이었다.⁶⁴¹⁾ 다시 말해서 교리교육의 선결 과제는 교리를 통해서 무례함과 무지함을 극복하고 기독교적인 믿음의 근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신앙교육서』는 어린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초신자를 포함한 한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간결하면서도 매우 유용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본질적으로 칼빈은 『신앙교육서』를 교육적인 목적을 지닌 책으로 간주하였다.⁶⁴²⁾ 따라서 칼빈은 목회 사역에서 교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매우 깊이 생각하였고 이를 실천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칼빈은 교회에서 교리교육을 실시하면서 몇 가지 주안점을 두었다.

첫 번째로, 칼빈은 신앙교육의 핵심을 교리에 두었다. 그는 일생동안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신조를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 제네바 목회 초기에 요리문답교육을 교회 개혁 통로의 하나로 보았던 그는 이미 『신앙교육서』를 중심으로 교리 학습을 시켰고 교리교육을 중심으로 제네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⁶⁴³⁾ 그가 제네바 목회 사역의 절정에 이른 시기나 생애 말년에 이르기까지 『제

641) OS., 3: 376.

642) CR., 13: 84.

643) 양금희, *op. cit.*, 145.

1차 신앙교육서』를 개정한 『제 2차 신앙교육서』인 『제네바 신앙교육서』를 중심으로 교리교육을 실시한 것을 보면, 그가 『신앙교육서』를 통한 교리교육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는 교수 중심보다는 오히려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그의 교수-학습 원리는 항상 학습자의 눈높이에 관심을 두었다. 그의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맞추어 조절하신다는 의미의 'accommodatio Dei'이다.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로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한 상태에 맞게 자신을 맞추어 조절하셔서 교육하셨다.⁶⁴⁴⁾ 그는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칼빈은 자신의 신앙교육의 핵심인 교리가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조절될 필요성이 있으며, 신앙교육에 그러한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⁶⁴⁵⁾

세 번째로, 칼빈은 교리교육에서 질의-응답 형식의 교수-학습법을 사용하였다. 『제 1차 신앙교육서』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이 학습 방식이 『제 2차 신앙교육서』에서는 자주 사용되었다. 칼빈은 『제 2차 신앙교육서』가 질의-응답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낭독과 수업으로 끝나지 않고, 훌륭한 신앙 입문서의 효과를 창출하여 자유롭고 활기찬 수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⁶⁴⁶⁾ 하지만 이러한 대화 형식의 수업은 루터와 부처도 사용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칼빈 만의 독창적인 산물은 아니다.

네 번째로, 그는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교수-학습법을 마련하였다. 『신앙교육서』의 체계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점점 심오하고 깊은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서』 첫 장에 언급된 성경 구절들⁶⁴⁷⁾을 통해서 그가 추구하고 있는 학습 목표가 매우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644) *Ibid.*, 113-116.

645) *OS.*, 1: 376; *OS.*, 5: 447; 4: 19; *CR.*, 13: 72; *CR.*, 13: 84.

646) 칼빈은 『제 2차 신앙교육서』의 373문항 중에서 80문항 이상에 '누가', '무엇을'과 같은 의문대명사를 사용하였고, '어떻게' 혹은 '어떤 방법으로'(9번), '어느 곳에'(1번), '얼마나 많은'(3번), '어떤 방법대로'(8번)와 같은 의문사로 시작되는 보충 질문을 하고 있다.

647) *Comm.*, 1 *Peter* 2: 2; 3: 15; 4: 11.

다섯 번째로, 그는 반복적인 교수-학습법을 취하고 있다. 그는 매주 교회에서 『신앙교육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한 교육이 더욱 깊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신앙교육서』는 처음에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부터 시작하여서 심오한 지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경향에 의하여, 교리문답은 아이들의 가르치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교회가 지속적인 말씀을 들음으로써 발전하게 된다는 면에서 그 유용성을 가지는 것이다.⁶⁴⁸⁾

여섯 번째로, 그는 학습자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법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는 교리학습을 암기식 위주의 지식 축적으로만 보지 않고,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을 취하였다. 그는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왜’라는 질문 부사와 함께 ‘무엇 때문에’라는 목적격을 가진 인과적 질문을 포함하는데, 그는 이와 함께 사실이나 설명의 감정에 대하여 질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적인 평가를 위하여 목사는 아이들을 평가 서식에 의해 시험을 보았다.⁶⁴⁹⁾ 그리고 아이들은 이러한 서식을 통해 『신앙교육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점을 잘 설명해야 했다.⁶⁵⁰⁾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성경에서 출발하고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각각의 성구와 절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교육과정의 형식을 취하여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그의 『신앙교육서』를 기록하였으며, 개별적인 지식 대신에 총체적인 지식으로 이 책을 다루었다. 또한 그는 교리문답을 통해 개별적인 지식간의 관련성을 보여주었고, 교리를 자신의 근본적인 구조의 틀 속에서 통찰하고 명백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제 2차 신앙교육서』를 통해 순종을 배웠던 그는 기독교의 기본 체계부터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방향은 1537년의 『신앙교육서』에서 언급되었던 성경구절들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었다.⁶⁵¹⁾

648) CR., 13: 84.

649) OS., 5: 447.

650) OS., 21: 356.

651) Comm., 1 Peter 2: 2; 3: 15; 4: 11.

칼빈은 『신앙교육서』 서문에서 자신의 저술 동기가 교육적인 관심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칼빈주의 학자 드종(DeJong) 교수는 서문의 의도에 대해서 칼빈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구절들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구절(베드로전서 2: 2)은 기독교 신앙만으로 전유된 합당한 틀의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이 구절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는데, 다음 구절에 의해 그것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즉, 자녀들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한다”는 것이다(베드로전서 3: 15).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어떤 물음을 해결할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가 ‘참된 경건’의 삶을 촉구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가 다음 세 번째 구절인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베드로전서 4: 11)⁶⁵²⁾라고 덧붙이고 있다.

체계적이고 밀도 높은 교리교육을 위하여, 칼빈은 기독교 믿음의 신조를 포함하였고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착안하였다. 이것은 『제네바 신앙교육서』라고도 불리는 『제 2차 신앙교육서』에 분명히 나타난다. 또한 그는 『신앙교육서』를 신학적, 교수법적, 교육학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관점으로도 보았다.

칼빈은 『제 2차 신앙교육서』를 인간 삶의 중요한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질문을 통하여 그의 동기가 인간 중심적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전제를 함의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당신을 찬양할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속에 인간의 가장 숭고한 것이 위치한다. 특히 『제 2차 신앙교육서』는 여러 신조에 포함된 기독교 교리를 신학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배움과 가르침의 형식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교육학적인 관점도 갖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눈높이교육에서 하나님의 구원 교육을 바라보았고,⁶⁵³⁾ 설교자들은

652) Peter Y. DeJong, *op. cit.*, 175.

653) OS, 1: 376.

설교를 듣는 청중들과 일치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그는 『제 2차 신앙교육서』와 교리문답 교육을 배우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추어 눈높이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⁶⁵⁴⁾

칼빈은 『신앙교육서』를 통해 우리 종교의 주요 내용들을 요구하였다. 즉,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부분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칼빈이 『신앙교육서』를 통해서 요구하였던 것은 교리문답 수업을 받았던 젊은이들에게 절반 정도는 충족될 수 있었다. 수업시간이 끝났을 때 칼빈은 젊은이들의 기억력과 이해,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시험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이해와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학교’에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배움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제네바에는 영적으로 부족하고 개혁신앙에 대한 수업을 받지 못하고 가톨릭의 수업만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성례의 연합적인 성격을 중시하였던 칼빈은⁶⁵⁵⁾ 이들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시험을 시행하였는데, 그들은 이런 시험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신앙교육서』에서 칼빈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영혼에 가져다 주셨고, 둘째로 우리 육신의 불멸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주셨다”⁶⁵⁶⁾라고 언급함으로써 성찬이 주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하여 말하였다.

1561년 『교회법』에서 처음으로 심방을 가르치는 내용이 적절하게 요약되어 나왔다. 특히 가정심방은 노예나 가정부, 그리고 제네바에 살 목적으로 온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시험으로 확증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일주일 전에 발표되었던 심방자들에게도 재신청을 받아서 시험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심방과 성찬식은 관계가 있었다. 즉, 이 두 가지는 성인들에게 기독교 교리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칼빈은 제네

654) OS, 1: 377.

655) 『신앙교육서』, 제 29절.

656) 『신앙교육서』, 제 29절; Inst., 4. 17. 32.

바의 여러 지역에서 반대를 불러일으켰던 이 시험을 열정적으로 옹호했고 그것을 다른 교회들에게도 요구하였다.⁶⁵⁷⁾

칼빈은 이 시험의 목적을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보았다. 이것을 통하여, 아직 교육되지 않은 사람과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욱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⁶⁵⁸⁾ 그러나 칼빈은 훈계적인 성격의 동기유발에 더욱 강조점을 두었다. 이런 훈계적인 동기 유발은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들어야하는 특별한 훈계나 권고를 필요로 하였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를 설립하였을 때 특별히 주목받았던 것은 총회이다. 이 총회는 우선 목사들에게 더 깊이 있는 교리를 알게 되도록 도와주었으며, 그 다음에 신앙의 발전이 있고 성숙된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행하였다. 제네바 총회는 칼빈과 파렐에 의해서 1536년에 시작되었다. 1541년에는 총회 규칙을 제정하였고, 1561년에는 규칙을 개별적으로 확정하였다.⁶⁵⁹⁾ 총회는 매주 금요일 오전 7시에 학교의 접견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약 60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였다. 특히 1559년부터는 헬라이어, 히브리어, 그리고 인문학 교수들이 규칙적으로 이곳을 방문하였다.⁶⁶⁰⁾ 개회식 기도를 한 후, 목사 중 한 사람이 성경의 한 부분과 간혹 교리문답의 한 부분을 해석하고 설명하였다. 물론 교회의 성도들은 단지 경청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토론에서 목사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질문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자신의 주장을 과격하게 펼치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에 대한 설명 시간이 끝나고,⁶⁶¹⁾ 이어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기도를 드린 후에 모임이 종결되었다. 그리고 목사들은 특별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따로 회의장에 모여서 교리적인 차이점을 논의하고 목사들의 품행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칼빈이 매주 이런 회의를 공개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유지해 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657) *CR.*, 2: 624.

658) *CR.*, 2: 41.

659) *OS.*, 2: 332.

660) *CR.*, 35: 591.

661) *CR.*, 95: 91.

었다. 확실히 이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한 부분을 연구하고 다른 참가자들의 미신적 신앙을 폭로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정반대의 상황도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적 상황도 실제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큰 가치를 소유하고 있음은 인정된 사실이다.

칼빈은 이 총회를 통하여 신,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세 번이나 설명하였다. 이것은 칼빈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칼빈은 여기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지식과 더 나은 이해를 가져오려고 노력하였다. 총회는 확실히 칼빈을 믿음으로 이해하였고, 또 이해하려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것은 신학적인 지식과 확실한 신학적인 기초 훈련에 교회 성도들을 참여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2. 설교를 통한 교리교육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외형적인 설교와 감추어진 성령의 계시가 존재한다”⁶⁶²⁾라고 지적하면서, 성례전의 집전과 더불어 설교를 통하여 무지와 무교육으로 만연되어 있던 제네바의 풍토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였다.⁶⁶³⁾ 그는 설교를 교회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간주하였다.⁶⁶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어떠한 믿음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설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어떠한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⁶⁶⁵⁾라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믿음은 역사적 사건들과 근본적인 교리들에 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가슴으로 느끼는 확실한 자신감이기 때문이다.⁶⁶⁶⁾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전달하는 자에게 청중들의 믿음이 달려 있다고 보았고, 설교자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그는 설교를 경청하는 것을

662) CR., 37: 276.

663) 양금희, *op. cit.*, 86.

664) CR., 49: 205.

665) CR., 52: 288.

666) 『신앙교육서』, 제 14절.

등한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스스로 무시하거나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스스로 떨쳐버리는 것으로 보고 설교에 대한 신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역설하였다.⁶⁶⁷⁾ 이러한 칼빈의 관점은 설교자로서 교육자와 경청자로서 피교육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원리의 상관적인 관계를 밝혀 주는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설교는 곧 교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리를 전달하며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칼빈은 제네바 목회 기간에 공중 예배와 가정 심방을 통하여 거의 매일 설교 사역을 할 정도로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설교를 행할 때 설교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강조하였다. 첫째로, 설교는 반드시 교리의 전달이어야 한다. 둘째로, 설교는 반드시 교훈적이어야 한다. 셋째로, 설교는 반드시 신자들을 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⁶⁶⁸⁾ 칼빈은 설교는 곧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교리이며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 성도들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처럼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교리의 가르침에도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강조하였다.

처음부터 칼빈의 설교는 교리문답이었다고 평가될 정도로,⁶⁶⁹⁾ 그의 설교는 교리적이며 더욱이 그 교리의 중심에 『신앙교육서』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설교를 통하여 『신앙교육서』에 나타난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진리를 가르치고, 이에 대하여 논증하고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결론을 짓고 요약하였다. 또한 그는 신자들이 설교를 통하여 교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그에 대한 이해를 가지며 성령의 역사로 교리에 대한 믿음이 확증되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였다.

그는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는 말씀에 대한 해석, 교리적 의미, 그리고 삶의 적용과 결단을 촉구하는 교훈적 설교였다.⁶⁷⁰⁾ 이것은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거나 또는 가르침과 적용이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667) *CR.*, 49: 19; *CR.*, 1: 16.

668) R. Hedtke., *op. cit.*, 105.

669) *Ibid.*, 108.

670) *Ibid.*, 107.

강조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눈높이교육 원리를 적용하였다. 설교는 신자들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 진행 되어야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에 맞추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그들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나약함에 맞추어 설교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에 맞추어 눈높이를 조절하시면서 설교를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교하였던 경우를 들어서 설교의 눈높이 교육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였다.⁶⁷¹⁾ 덧붙여서 칼빈은 “바울은 그의 교리의 방법과 형식보다도 더 경미하게 주체를 변화시켰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그리스도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우유이고 성인을 위해서는 딱딱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치하게 한다”⁶⁷²⁾라고 지적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조절은 교육학적이고 수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절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약함, 무지, 그리고 나태함 때문에 인간의 이해에 맞추어 교육 수준 혹은 설교 수준을 조절하셨다. 이것은 그의 자유로운 은혜와 구원 의지에 대한 실행이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나약함으로 인해 설교자는 조절이 필요하다. 만약 인간의 입으로 선포되는 설교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해력에 맞추려는 하나님의 조절 형식에 의한 것이라면, 설교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절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간주된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스콜라철학의 복잡성을 지적하면서 설교의 단순성과 소박성을 강조하였다.⁶⁷³⁾ 그는 바울을 적당한 예로 들었다. 바울은 당시 웅변가처럼 훌륭한 단어를 골라 나열하는 식의 설교가 아니라, 매우 단순하고 담백하게 설교를 하였다. 칼

671) *Comm., 1 Corinthians* 3: 2.

672) *CR.*, 49: 347.

673) *OS.*, 1: 468.

빈은 바울이 복음과 진리를 전달하고 가르칠 때 결코 자신의 웅변술을 자랑하기 위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칼빈은 이런 소박성과 단순성의 원리를 교리학습과 설교 전달에 적용하였다. 그는 단순한 설교가 복잡한 설교보다 오히려 더 진실하며 성령께서 더 바람직하게 역사 하신다고 보았으며, 단순한 설교는 신자들의 의지적 결단을 더 촉구하고 신자들을 참으로 겸손하게 교육시킨다고 보았다. 그는 말씀 선포에서 설교자가 자기 웅변에 도취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만 선포하여 설교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만을 드러낸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봉사자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하였다.⁶⁷⁴⁾

칼빈의 단순성과 소박함의 특징은 설교가 교훈적이어야 하며 듣는 사람들에게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목표에서 비롯된다. 사실상 로마 가톨릭 교회와 스킨라 철학 시대에는 이러한 단순성을 간과하였다.⁶⁷⁵⁾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잡하게 화려한 용어나 웅변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단순함과 소박함이다. 바울은 훌륭한 단어를 골라서 이야기하는 웅변가가 아니고 소박하고 투박한 연설방법으로 세계의 현명함을 원하는 웅변가이다. 특히 그는 가르침의 방법론을 모든 화려한 언어와 분리시켜 놓았다.⁶⁷⁶⁾

이러한 소박성과 단순함은 방법론적이고 교수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에서도 필요로 한다. 걸치레의 말씀과 인간적인 지혜로움이라는 가면 때문에, 기독교의 단순함은 중단되었고 그리스도는 스스로 새롭고 낯설은 복장을 한 부분으로 만들어 더 이상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듣는 사람들은 단지 연설의 아름다움과 통찰력에만 관심을 가져서 정작 하나님을 놓쳐 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은 죽은 말씀이며 죽은 말씀은 기독교에서 빛이 나는 하나님의 힘을 위협한다. 이런 복음의 왜곡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조악하고 투박한 설교 방법을 복잡하고 화려한 언어와 비교하였다.

이런 단순하고 소박한 설교의 요구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확실히 인간의 입에 연

674) *Ibid.*

675) *OS.*, 1: 468.

676) *CR.*, 49: 319.

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선사하신 하나님께서 미사여구를 허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복음을 치장하지 않고 전달하였다. 왜냐하면 분명하고 단순한 설교는 그의 진실을 더욱 확실하게 하며 성령은 우리의 외적인 도움 없이 더 좋게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단순한 설교는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우리를 진실한 겸손으로 교육시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학교에서 단지 수준이 낮은 사람과 겸손한 사람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복음전도는 성도들을 자만과 교만심에서 겸손하게 만든다.

순수한 본문에 의거한 설교는 단순하고 명료한 문장 구성을 통하여 그리고 소박하고 가장 대중적인 어법으로 나타내어야 한다고 보았던 칼빈은 이런 설교를 통하여 듣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설교에서 매우 정확하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취하였다.

칼빈은 고대의 보석과 같은 연설 속에서 빛나는 연설문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복음으로 적당한 단순성을 강조한 살아있고 명백한 설교 방법을 원하였다. 그는 경미한 이해력과 경청자의 우둔함을 고려하는 모방적인 예들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조절과 유아적이고 나약하고 무지한 백성의 이해력에 대한 예언의 결과로 보았다.

또한 칼빈은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설교가 단지 인간적인 미사여구의 연설만을 의지한다면 더 훌륭한 연설법들을 통해 위협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도 결코 그것을 듣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어떠한 외부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⁶⁷⁷⁾ 그는 복음의 능력이 설교자의 재능이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특별히 설교를 통해 교리 훈련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교리는 매일 경청되어야 하지만, 결코 싫증나지 않는 것이다”⁶⁷⁸⁾라고 말하였으며,

677) *CR.*, 49: 335.

678) *Comm.*, 1 *Timothy* 4: 11.

교리는 단지 일시적으로 권고하는 것에 거치는 작은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현명한 목사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또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반복하여서 알린다. 왜냐하면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⁶⁷⁹⁾ 따라서 칼빈에게 반복과 훈련은 교회 훈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보조물이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한편으로는 교리 안에서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설교를 통하여 훈계되고, 경고되고, 인도되고, 위로가 되고, 자극을 통해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의 교리는 “우리의 귀를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선행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존재하는 것이다.”⁶⁸⁰⁾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그의 설교에서 빈번하게 “삶은 이미 들었던 교리와 일치해야만 한다”⁶⁸¹⁾라고 강조하였다.

칼빈은 설교를 통하여 한 편으로는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훈계하고 권면하고 인도하고 도전과 결단을 주었다. 그는 기독교인은 일생동안 ‘하나님 학교’의 학생이며, 학생으로 학교에 가야하며,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설교 듣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설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믿음을 형성시켜서 증대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설교자는 설교에서 교리의 본질과 내용에 대하여 말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칼빈은 “교회교육과 성인 교리교육의 중심은 예배 시간에 실행되는 설교이다”⁶⁸²⁾라고 할 정도로 설교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신자는 설교를 통해 훈계를 받고 자극과 격려를 받으면서 교리와 믿음, 그리고 거룩함 속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679) *CR.*, 52: 301.

680) *CR.*, 54: 330.

681) *CR.*, 53: 257.

682) *CR.*, 37: 276; *OS.*, 5: 7; 4: 1.

3. 치리를 통한 신앙교육

참된 교회를 구성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도구로서, 칼빈은 설교와 교육뿐만 아니라 권징도 역시 중시하였다. 권징은 제네바 교회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권징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전파와 성례의 시행을 실제적이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⁶⁸³⁾

칼빈은 다른 신학자들과 달리 치리를 교회의 표지로 보지 않고,⁶⁸⁴⁾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보조 장치'⁶⁸⁵⁾나 혹은 '복음의 교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⁶⁸⁶⁾으로 보았다. 치리를 교회의 표지로 보지 않는 신학자들은 칼빈이 교회의 권징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적용으로 보았으며,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나 성례전의 바른 집전과는 달리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형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교회의 표지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한다.

육신의 원동력이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치리는 말씀에 의존하고 그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여겼던 칼빈은 치리와 교리를 서로 관련시켰다. 교리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위한 규칙을 부여할 때, 치리는 교회의 교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행하여지도록 하는 교리를 위한 수단과 보조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그는 보았다. 그에 있어서 교회의 과제는 교회 안의 나약하고 게으르고 불완전한 성도들에게 보조물과 보호막을 주고, 교육적인 척도를 통하여 이들을 선도하고, 훈계하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이다.⁶⁸⁷⁾ 치리를 일종의 제어장치나 자극제로 보았던 칼빈은 이것을 아버지의 매로 비유하면서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자들은 이 매를 통해서 성령의 은유함으로 자비의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치리에 의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억제시키고 길들이며 교리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도전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⁶⁸⁸⁾ 그가 치리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683)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684) R. N. Caswell, "Calvin's View of Ecclesiastical Discipline," *A Collection of Distinguished Essays*, ed. G. E. Duffield (Grand Rapids: Wm. B. Eerdmans Co., 1966), 211.

685) *Comm., Matthew* 18: 18.

686) *Comm., Colossians* 1: 24.

687) *Inst.*, 4. 12. 1.

688) *Ibid.*

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1541년 제네바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교회의 권징권 보장을 재입국의 조건으로 내세울 정도로 목회와 신학 활동에서 교회의 치리에 큰 의미를 두었을 정도다.⁶⁸⁹⁾ 교회의 훈련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1541년에 여러 가지 범죄와 성적 방탕함 등 제네바에 만연되어 있는 생활의 무질서를 고치려는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였다. 왜냐하면 성도의 권징 문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지상 교회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는 죄에 대하여 경고를 받는 영적 매커니즘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다.⁶⁹⁰⁾ 칼빈이 사역할 당시에 출교된 사람들은 성도의 세 가지 표지였던 ‘믿음의 고백’, ‘삶의 모범’, 그리고 ‘성만찬 참여’라는 기준에 의해서 그들의 죄상이 분류되었다. 1555년에 그들은 신성 모독, 성적 방종, 개신교·구교적 신앙 및 실천 문제, 가정 문제 등으로, 그리고 1556년에는 성적 방종, 개신교·구교적 신앙 및 실천 문제, 신성 모독, 가정 문제 등으로 출교를 당하였다.

칼빈은 치리의 세 가지 목적을 지적하였다.⁶⁹¹⁾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이 악하고 게으른 성도들 때문에 결코 오염되지 않고 생동감 있게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보존되기 위함이었다.⁶⁹²⁾ 이런 측면에서 낙스(J. Knox)는 “주님과 성찬 참여자가 하나가 되는 성찬에 경솔하거나 본래 악한 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 거룩함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⁶⁹³⁾고 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흠을 내거나 그런 시도를 하려는 자들을 치리하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들로 구성된 컨시스토리(consistory)를 통하여 치리를 직접 시행하였다. 칼빈 시대에 소의회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컨시스토리는 5인의 제네바 시 목사와 12인의 장로로 구성되었다. 장로 선택에 있어서는 2인은 소의회 회원

689) 이정숙, “출교에 관한 존 칼빈의 신학과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활동,” 『최근의 칼빈 연구』,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07.

690) 이정숙, “칼빈 연구의 최근 동향,” 『신학 사상』 4 (2000): 235.

691) *Inst.*, 4. 12. 5.

692) R. N. Caswell, *op. cit.*, 217.

693) 『신앙교육서』, 제 32절.

중에서, 4인은 60인 의회에서 그리고 6인은 200인 의회에서 선출되어 소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⁶⁹⁴⁾ 이들은 선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흠잡을 것과 의심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인 신중성을 가져야만 했다.

제네바에서 컨시스토리는 1555년과 1556년에 각각 55회, 57회의 모임을 가졌는데, 이 두 해에 소환된 사람들은 각각 1234, 1518명이었고, 소환 사건의 수는 전체적으로 420, 730건이었다. 그 구성원들의 참석율과 소환된 사람들의 수로 인하여 이 컨시스토리의 운영과 결정 과정에 제네바 시의 목사들과 칼빈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⁶⁹⁵⁾

치리는 성례와도 깊은 관계를 가진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예수의 몸과 연합되어서 그의 육체와 피, 죽음, 삶, 정신 그리고 은혜에 참여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성례가⁶⁹⁶⁾ 거룩한 예식을 모독하는 자들에 의해서 방해될 수 있었는데, 그런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장 심하게 모독하는 것이 된다.⁶⁹⁷⁾ 이런 심각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칼빈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에 따른 후회를 줄이는 수단으로 치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치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 신앙공동체를 말씀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었다.⁶⁹⁸⁾

치리의 두 번째 목적은 좋은 삶의 본보기를 권장하고 나쁜 삶의 본보기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칼빈은 좋은 본보기의 교육적인 가치를 증명하였고, 나쁜 예증들은 얼마만큼 전염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사람에게서는 좋은 점을 본받기 전에 나쁜 점들을 먼저 본받게 되어 전염되는 부패함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⁶⁹⁹⁾

그렇기 때문에 출교와 달리 신자들은 치리의 엄격함과 두려움을 통해 나쁜 본보기들

694) Thomas Gary Johnson, *John Calvin and the Genevan Reformation: A Sketch* (Richmond: The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1900), 54.

695) 이정숙, "칼빈 연구의 최근동향," 326-327.

696) *OS.*, 1: 371.

697) *Ibid.*

698) *Inst.*, 4. 12. 1.

699) *OS.*, 5: 216; 4: 12.

을 멀리하고 좋은 본보기로 옮겨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과오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치리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그들이 경고와 두려움과 조심함을 갖도록 한다. 또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의 교류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출교⁷⁰⁰)와 다른 치리는 교회의 나머지 성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적인 척도, 즉 과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교육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징계의 의미를 갖는 치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일부분이다. 사랑 없이 징계하는 것은 형벌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징계 없는 사랑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따라서 부모는 사랑스러운 자녀가 나쁜 길로 갈 때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징계는 행복하고 균형 잡힌 정상적인 아이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지 못한 아이는 절대로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없다.

치리의 세 번째 목적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며, 그들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대하여 자성하게 한다.⁷⁰¹)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지 못하는 이들은 다양한 치리 혹은 징계를 통하여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징계들 중에 가장 중한 것은 출교이다.

출교는 신앙 공동체에서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출교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 아래서 완벽히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⁷⁰²) 이 방법은 “진지함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드럽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제어하는 아버지다운 징계이다.”⁷⁰³)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의 치리를 통하여 교회 성도들의 도덕적인 품행을 요구하였고 또한 개선시키기를 원하였다.⁷⁰⁴)

칼빈은 명백히 교회의 치리와 다른 단체나 가정에 필요한 치리 사이에 대칭점을 그

700) *OS.*, 5: 221.

701) *OS.*, 5: 216.

702) *OS.*, 1: 369; *CR.*, 52: 216.

703) *OS.*, 5: 214; 4: 12.

704) *Inst.*, 4. 12. 5.

었다. 그는 교회에서 치리가 더 많이 필요할수록 가능한 한 더 작게 사용되도록 노력하였다.⁷⁰⁵⁾ 치리로 인해 교회는 설교와 성례의 업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확실히 일상적인 예배를 뛰어넘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리는 삶의 실제적인 가르침이며, 교회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인 동시에 삶의 공동체로서 존재한다.⁷⁰⁶⁾

칼빈은 교회에서 치리를 행할 때에 긴장감 대신에 부드러움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교회 치리를 원하였다.⁷⁰⁷⁾ 온화함과 부드러움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하며 그렇기에 목회자에게도 알맞은 길이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치리가 직접적으로 치유 효과가 있으므로 교육적이라고 단언하면서, “우리의 애정이 치유로서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다”⁷⁰⁸⁾라며 징계의 차원이 아닌 교육적 의미에서 치리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치리는 죄인을 구세주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종의 바른 치유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방적인 효과를 갖는다.

칼빈은 치리를 실행할 때 부드럽지만 엄격하게 할 것을 원하였다.⁷⁰⁹⁾ 왜냐하면 그는 부드러움이 가미된 엄격함이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⁷¹⁰⁾ 그래서 우리가 치리를 통해서 견책 받은 사람이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중용과 부드러움이 필요하다.⁷¹¹⁾ 하지만 부드러움과 관용의 치리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엄격하고 강한 치리도 사용될 수 있었다.⁷¹²⁾ 그러나 치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만 한다.⁷¹³⁾ 그렇기에 특별히 엄격한 치리는 치리 받는 사람이 다시 선한 길로 돌아오도록

705) *OS.*, 5: 212.

706) *CR.*, 53: 442.

707) *CR.*, 17: 452.

708) *Comm.*, *Deuteronomy* 30: 1-5.

709) *Inst.*, 4. 12. 1.

710) *CR.*, 52: 386.

711) *CR.*, 52: 216.

712) *CR.*, 50: 113.

713) *CR.*, 45: 623.

하는 목적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⁷¹⁴⁾ 즉, 치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옛 교회, 특히 도나티스트주의자들의 아무런 척도가 없는 엄격한 치리를 비판하였다.⁷¹⁵⁾ 또한 천사와 똑같은 완전성을 추구하려는 재세례파의 노력도 열정을 핑계 삼아 모든 교회를 파괴한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였다.⁷¹⁶⁾

치리 중 가장 극단적이고 마지막 수단인 출교에 관하여, 칼빈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무시하는 자들을 추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⁷¹⁷⁾ 출교에 대한 그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후기 신학에 대한 그의 자세를 먼저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칼빈은 “오늘날 교황의 권한에 속한 것 중에서 출교보다 더 사악하게 사용되는 것은 없다. 사실 구원자 되신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남겨주신 것 중 출교처럼 유익함이 많고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⁷¹⁸⁾고 말하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실천의 오용과 타락에 대하여 한탄하면서 비판하였다. 원래 출교의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불안정한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⁷¹⁹⁾ 칼빈은 출교를 성도의 훈련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출교는 수찬정지와 예배의 참석을 허락지 않는 소출교와 성도들과의 모든 교제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출교로 나뉜다. 출교된 자는 성만찬과 세례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스런 몸인 교회 자체로부터 제외되고, 결혼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출교는 결혼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나 성도들과 사귀는 것이나 세속 혹은 교회가 베푸는 각종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제외되었고, 심지어 죽은 후에 교회장으로 받아들

714) CR., 52: 216.

715) OS., 5: 219.

716) OS., 5: 223.

717) 『신앙교육서』, 제 32절.

718) OS., 1: 369-377.

719) OS., 2: 360.

여지는 것조차 거부되었다.

칼빈은 출교의 세 가지 목적을 언급하였다. 출교는 일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독을 받지 않으시고 불명예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출교를 통하여 고침을 받은 자들이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신을 고쳐 나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회 내 성도들이 나쁜 삶의 모습에 전염되어 타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⁷²⁰⁾ 칼빈은 1537년 교회 관계 조항에서 출교의 삼중적인 목적을 다시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제도를 세우셨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이 삼중적 목적은 칼빈이 추구하는 신학 전체와 연결시켜 볼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영적 복지'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교회가 악한 자들을 치리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명예는 그들에 의해 실추될 것이며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바로 교회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⁷²¹⁾ 만약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이러한 수단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칼빈은 보복적인 성격이 없는 벌칙이 교육적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교회 치리의 벌칙을 근본과 목적성에 따라서 법률적인 문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제의 직무로 이해하였으며, 교회 치리에 숨겨져 있는 목적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칼빈은 교회 치리가 교회를 통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⁷²²⁾ 이와 같이 설교가 교회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면 치리는 교리를 깨끗이 소유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견지에서 출교된 자는 성만찬에서 제외되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불허되지만 설교 예배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강요받았다. 즉, 교회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았다.⁷²³⁾ 칼빈은 치리를 하나님의 교육과 연관시키면서, 치리가 좁은 의미에서 징계와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720) *Inst.*, 4. 12. 6; 이정숙, "칼빈 연구의 최근 동향," 314.

721) R. N. Caswell, *op. cit.*, 218.

722) *CR.*, 52: 216.

723) *OS.*, 1: 90.

교육적 수단으로 보았으며, 그렇기에 치리를 통해 나타나는 벌칙들도 하나님의 구원 교육으로 이해하였다.⁷²⁴⁾

특별히 칼빈은 치리를 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목사의 모범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첫째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는 단지 입으로 설교된 교리를 통해서 올바르게 가르침을 줄 수 없고 교리와 삶을 일치시켜야만 한다.⁷²⁵⁾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의 모범적 삶을 보고 신앙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⁷²⁶⁾ 왜냐하면 목사는 단지 교리를 통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대한 모범을 통하여 가르치기 때문이다.⁷²⁷⁾ 이 좋은 모범은 위로와 증언 그리고 교리의 권위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⁷²⁸⁾

칼빈은 “학생이 교리와 삶에 대한 교사의 일치를 봄으로써 그렇게 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⁷²⁹⁾라고 말하면서 치리의 효과를 위한 모범적인 예증의 의미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정당한 징계는 교사에 의한 말씀의 지시 외에도 그의 좋은 본보기로서 가능하기 때문이다.⁷³⁰⁾ 칼빈은 신학적인 이유로 가르침과 삶의 일치를 요구하였다. 목사는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표현해야 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친히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⁷³¹⁾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인 요구는 교육적인 목적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삶의 변화와 본보기를 통하여 교회의 지시를 실행해야 한다.

교회는 믿음을 위한 공동체이고 삶을 위한 공동체이다. 교회의 주된 목적은 교리의 전파에 있다. 동시에 칼빈은 나약하고 불완전한 교회 성도들을 보조물인 치리를 통하여

724) *Comm., Isaiah 27: 9.*

725) *CR., 53: 614.*

726) *CR., 53: 255.*

727) *OS., 3: 385.*

728) *CR., 49: 437.*

729) *CR., 52: 420.*

730) *CR., 48: 459.*

731) *Inst., 3. 6. 3.*

그들의 믿음과 믿음을 통해 나타난 삶을 도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이 치리물 교육적 도구로 본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⁷³²⁾

C. 학교와 교리교육

칼빈은 가정의 교육적 의미 및 중요성뿐만 아니라 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장기의 청년들에 대한 교리교육의 중요성도 역시 깊이 인식하면서 강조하였다. 1541년 칼빈은 교육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며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제네바로 돌아왔다. ‘무지는 미신의 어머니이며, 문화는 종교와 자유의 시녀’라고 확신한 그는 제네바 시민을 개화시키고 교회를 갱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칼빈은 제네바의 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그의 학교개혁은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우선 그는 종교개혁에 앞서 학교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다.⁷³³⁾ 그는 학교개혁을 사회 개혁으로 향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그의 학교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교와 김나지움(인문계 중, 고등학교)의 개혁에 관여함으로써 실행되었다. 이러한 학교개혁은 유명한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으로 그 절정에 달하였다. 이 사회개혁은 종교개혁의 일환으로써 교육이 교회와 연계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예배와 교리교육 시간을 통한 교육

칼빈은 종교개혁을 교육개혁으로 보면서 초등학교와 라틴어 학교의 중대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537년 10월 30일에 칼빈이 아이들을 교구학교에 보내기로 확정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⁷³⁴⁾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개혁교회의 가르침과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칼빈은 제네바에 소재한 학교들의 쇄신에 주력하였고, 또한 제네바에 대학이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였

732) *Comm.*, 2 *Timothy* 4: 2.

733) 양금희, *op. cit.*, 142-144.

734) *CR.*, 21: 216.

다. 반대자들의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는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설교자와 세상의 인재로서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잘 감당하도록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제네바에 학교와 대학을 세우려고 반대자의 강력한 저항을 필사적으로 물리쳤다. 그는 이렇게 학교를 통하여 말씀의 사역자를 교육시키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학교의 상관성에 필연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학교가 목회자 양성교육을 위한 신학교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다른 개혁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칼빈은 목사와 공무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더 나은 학교와 대학을 설립할 필요성을 느꼈다.⁷³⁵⁾ 그에게는 일차적으로 교회의 설립이 학교의 존재 가치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이 학교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치리를 강조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중요성과 목적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루터, 멜랑히톤, 부처, 에라스무스 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학교에서 성경 및 교리교육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교리문답 수업은 학교에서 더욱더 보충되고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1학년에는 교리문답 교육과 언어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라틴어 교리문답을 통한 라틴어 연습이 강화되었다. 2학년 후반기에는 ‘가정에 대한 원리’를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교리와 연관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3학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보다 더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다.⁷³⁶⁾

칼빈은 『신앙교육서』를 교육하기 위해 능동적인 방법과 수동적인 방법을 교대로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서 매일 세 명의 학생들이 차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대한 지식, 십계명 등을 프랑스어로 암송하게 하였다.⁷³⁷⁾ 성인식에서 『신앙교육서』를 확실하게 믿고 고백한 고학년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년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의 학교 수업 시간과 주일에배 때 교회에서 배웠던 교리문답을 모두 암송하게 하였다. 이런 측

735) OS., 2: 364.

736) OS., 2: 369.

737) OS., 2: 368.

면에서 볼 때 학교교육과 교회교육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성경 읽기가 강조되는 것도 역시 학교교육과 교회교육의 긴밀성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1학년에서는 사도행전, 2학년에서는 누가복음이 읽혀졌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볼 때 제네바 학교의 기독교 교육은 확고하였으며 그 위치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중세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중세의 라틴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하고 교과서가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종교 수업은 없었다. 그러나 개혁 시대에는 교리 문답 부분과 성경 수업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특별한 교과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칼빈은 학교에서 『신앙교육서』 교육과 성경수업 외에도 기도 훈련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⁷³⁸⁾ 칼빈은 모든 수업을 『신앙교육서』에 첨가된 기도로 시작하게 하였고 이런 기도가 차례로 학생들에게 이어지도록 하였다.⁷³⁹⁾ 그 외에도 아침 식사 시간과 모든 학년의 오전 수업은 선생님의 기도와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게 되었다. 또한 예배 중에 불러질 찬송가는 학교에서 점심시간 후에 한 시간 동안 연습되었다.⁷⁴⁰⁾ 하지만, 수업의 시작과 끝에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는 이런 관습은 종교개혁 이전에도 있었고 15세기의 학교 규정에서도 존재하였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예배와 설교 시간을 엄숙하게 진행하였고, 학생들이 예배에 규칙적으로 잘 참여하도록 이끌어주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했다.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 그룹으로 나뉘어진 학생들은 교사들을 통하여 교회로 인도되어야 했다. 모든 학생들은 예배 시간 이전에 도착했고 특히 수요일에는 새벽 설교, 주일에는 오전과 오후 예배 시간을 가져야 했다.

목사는 학교에서 성찬식이 시행되는 일주일 전에 강당에서 성찬식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단결할 것을 회중들에게 권면하였다.⁷⁴¹⁾ 주일은 설교

738) 『신앙교육서』, 제 22절.

739) OS., 2: 367.

740) 장훈태, *op. cit.*, 314.

741) OS., 3: 368.

를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에만 집중하는 날이다. 예배 시간에 듣고 받아들였던 말씀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더욱 심오하게 보충되어 설명되고 적용된다. 즉,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유지되며, 학교에서 받은 가르침은 삶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둔다. 칼빈은 학교에서 교리가 가르쳐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모든 학생들이 교회로 인도되는 것에 중요성을 두었다. 종교수업에 설교 말씀이 교육 내용으로 진행된다면 칼빈은 이런 종교 수업이 의미 있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 교사의 모범적 삶을 통한 교육

칼빈은 교회의 네 직분 중에서 교사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왜냐하면 교사의 직분은 교회의 교리와 신앙교육, 성경교육,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과 그 외의 교육적 사역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도 역시 교리 안에서 교육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주고, 교회와의 삶을 연결시키는 교회의 임무에 관여되어 있었다.⁷⁴²⁾

학교는 지식 전달과 실습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적인 명령을 통해서 교육을 위한 학교로 존재해야 했다. 실제적으로 교육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의 범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개별적인 여러 학교 규정에서 추론될 수 있는 경우이다. 사실상 1538년에 마련된 교회 조직에 관한 규례에서 교사의 공식적인 임무는 '말씀의 사역자'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교육적인 견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육하여야 할 교육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교사들의 임무는 학생들을 혼란으로부터 진정시키고, 그들의 태만과 반항심을 꾸짖고, 잘못된 행위에 따라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더욱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교리의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것에 있었다. 사실상 교사직의 신학적인 기초를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예

742) 정일웅, 『교육목회학』, 323-324.

언적 역할에서 찾았던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교사가 예언자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⁷⁴³⁾

학생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칼빈은 경고와 벌칙을 통하여 학생들의 잘못된 점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그들이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돌보기를 원하였다. 더욱이 칼빈은 교사들이 예배 후 학생들의 귀가 조치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핌으로써 그들에 대한 교육적 조절이 학교 시간 이외에도 이루어지도록 하였다.⁷⁴⁴⁾

칼빈이 학교교육에서 특별히 강조하였던 것은 교사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학생들의 본이 되도록 교육을 하라는 것이었다. 제네바 학교가 교육을 위한 학교인 것처럼,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가치 있는 훌륭한 모범과 모방의 예증들을 보여주어야 했다. 칼빈의 목적은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서의 아주 평범한 일에서도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교회치리에 순종하는 교사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매우 정교하였던 학교 규정은 교사의 태도를 학교 안팎에서 제한하였다. 이런 규정 때문에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여야 했다. 학생들 앞에서 동료들의 수업에 관해 비꼬지 않는 것도 교사들에 대한 규정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부드러운 정신과 메마르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자신의 생활 태도를 통하여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했다. 덧붙여서 그는 동료들의 도덕성과 열정에 대한 안목을 가지는 동시에 태만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자극해야 했다.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전권을 가진 감독관은 교장, 교사, 그리고 교수와 같은 가르치는 자들이 나태하게 직무를 수행할 때 이들을 경고하고 질책하였다.⁷⁴⁵⁾ 이런 밀접한 관계 때문에 교사가 목사가 되고 목사가 동시에 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⁷⁴⁶⁾

칼빈은 교회가 학교에 대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기를 확실하게 원하였다. 학

743) *Inst.*, 2. 15. 1.

744) *CR.*, 28: 44.

745) Frederick Eby, *Early Protestant Educator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31), 254.

746) Robert White, *op. cit.*, 23.

교는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속에서 교육하고 복음적인 말씀으로 학생들의 생활을 교육하였다. 관리와 재정적인 범위에서도 학교는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자유로웠지만, 교회의 명령에 따라서 학교는 교회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그래서 학교는 이러한 명령을 시행해야 했으며, 칼빈은 이런 명령을 국가와 협력해서 결정하였다.

칼빈은 이러한 극단적이고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성스러운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 학교는 모두에게 보편적인 조직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교회와 학교가 결코 동일시되지 않는다. 칼빈은 학교에 신학적으로 세워진 교육 이념과 기독교적인 교육학 또는 방법을 강요하지 않았다. 언어, 인문학, 예술, 성경과 『신앙교육서』를 수업하는 제네바 학교는 그 시대의 현대적이고 인문주의적인 학교였으며 칼빈이 제시한 학교의 모범은 공동체적인 삶의 형태였다.

칼빈은 교육적인 인식과 그 시대의 조직을 이용하였다. 그는 현대적이고 인문주의적인 학교를 만들었다. 그는 이 학교를 교회의 설립과 설교 전파의 실행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는 학문과 교육에 대한 학교의 본래 가치를 뛰어 넘으려고 하지 않았다.⁷⁴⁷⁾ 여기에서 학교와 교사들은 유효한 신앙고백을 통하여 설정된 한계 안에서 자유를 가졌다. 칼빈은 학교를 통해 자유 속에서 그에게 시대와 국가가 정한 가장 훌륭한 가능성을 실행하였다. 이것은 결코 그의 직책이 아니다. 칼빈은 새로운 교육학적 이념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실제적이며 목적 지향적으로 변화시켰고,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중요성, 교육성의 강조 등의 공통된 과제를 거기에 옮겨놓았다.

학교의 가르침과 교육은 가정의 경우처럼 교회와 관련을 맺고 교회교육과 융합되는 구성 요소였다. 학교는 총체적인 교리문답 연구에 대한 부분에 협력해야 했다. 또한 학교는 교회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보충하며 확정하고 훈련해야 했다. 결국 학교는 교리 속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 속에서 교육하고 교회적인 삶으로 인도하라는 교회의 명령에 관여하였다.

747) OS., 3: 256.

3. 학교와 교회의 협력을 통한 교육

칼빈의 사상 체계 안에서 교회와 학교는 상호 의존적이다. 교회는 학교와의 관계에서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결정해 주었고, 말씀과 성례의 목회를 통해서 그 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해 주었다.

칼빈이 1536년에 제네바에 도착하기 전에 당시 학교의 상황은 형편없었다. 학교는 13세기부터 몇 곳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학교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마저 매우 빈약하였다. 이처럼 그가 오기 전까지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제네바 교회는 사실상 존재했다고 할 수 없다. 교회는 어떤 공식적인 신조나 신앙적인 훈련 체계뿐만 아니라 재산권 관리, 교인 훈련, 교인 심사, 목회자 청빙과 해고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못했다.

칼빈은 제네바에 특별한 임무를 띤 인문 학교와 대학을 세웠다. 이곳의 학생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의 직무와 세상의 여러 직무에 종사하도록 자질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속해 있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교리교육과 성경공부를 해야 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행되는 교리교육은 학교에서 보충되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라틴어와 불어로 된 『신앙교육서』를 배우는 6-7학년의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하여 라틴어 훈련을 할 수 있었다. 즉, 『신앙교육서』가 학생들에게 라틴어 학습 교재로 사용된 것이다. 『신앙교육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반복적으로 교육되었는데, 토요일 오후 3시에는 학습 수업시간에 반드시 이전 주일에 배운 것을 복습시켰다. 특히 입교 준비반의 『신앙교육서』교육은 교회에서 기본 학습으로 진행되었다. 『신앙교육서』에는 성경도 반드시 다루어졌고, 그 이외에도 예배와 함께 시편을 중심으로 하는 찬송 부르기와 성찬도 자주 학교에서 거행되었다.

칼빈은 학교와 교회, 그리고 주일 예배와 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을 연결시켰다. 예배 중에 듣고 받아들인 것을 학교교육을 통하여 더 깊이 다져서 보충, 해명, 적용되게 하였다. 이와 반대로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일상 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했다. 여기서 예배는 신앙적인 삶을 종합하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는 학교에서

교회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심화하는 교육을 교회와 연계성 있게 하였다. 칼빈은 학교의 교육도 가정교육처럼 교회교육과 긴밀한 관계성 안에서 보았다. 이러한 교회와 학교와의 관계성은 단지 내용상뿐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도 나타난다. 그 예로 교회가 학교를 감독하고 학교의 교사직을 선발하였다. 칼빈은 학교교육 이념을 교회교육 이념과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칼빈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은 장소 측면에서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각기 특성을 갖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교회교육의 연장으로서 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은 교리를 교회와 교육의 기초와 생명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교리의 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한 칼빈은 교리의 총체인 『신앙교육서』를 집필하여 교회교육 실천의 장인 가정, 교회, 학교 등에서 가정과 교회, 가정과 학교, 교회와 학교 간의 상호 유기적 상호 관계성 속에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교리교육을 실천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있어 종교개혁은 교리교육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 중심 도구는 『신앙교육서』를 중심으로 개혁의 장이며, 교육의 장으로 사용된 가정, 교회,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VI. 칼빈의 교리교육론의 현대 교육목회에의 적용 가능성

신학은 반드시 종교교육을 위하여 심오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건전한 신학은 건전한 교육철학과 교육원리를 낳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기독교의 주요 교리와 그 가르침을 담고 있는 집합체이며 훌륭한 걸작품이다. 칼빈은 일차적으로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교회를 오염시키는 불건전한 사상과 오류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이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자와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수시킬 수 있었다. 더욱이 『신앙교육서』는 기본 신앙교육 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그는 신자들이 주의 만찬의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닫도록 훈련시키며 양육시킬 의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앙교육서』는 개혁신학과 신앙이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역사적 자료로 활용 하였다. 여기서는 칼빈의 『신앙교육서』와 그의 교리교육론이 현대의 교육목회에 적용될 때 나타날 문제들과 가능성들이 논의될 것이다.

A. 현대 교육적 적용의 유용성

개혁주의 기독교 교육의 방법론은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인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큰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칼빈의 『신앙교육서』가 현대 기독교 교육에 어떤 교육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경에 관한 기초 교리 자료

『신앙교육서』는 교리교육의 완전한 핵심을 모아 놓은 책이다. 칼빈은 이 책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신앙교육서』는 또한 신앙교육의 입문서이다. 제네바 교회의 교리교육은 이 책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며 칼빈은 가정, 교회, 학교의

현장에서 이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교육서』는 성경의 기초교리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로서 엄청난 활용 가치를 지닌다. 존 레이스(John H. Leith)가 평가하였던 것처럼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매우 명료하고 담백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자들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경교리를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이 시대는 '자료 공해 현상'으로 수많은 교육 자료들이 교회 현장에서 넘쳐나는 시기이다. 각 교회와 교단 그리고 출판사들은 지속적으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제작하고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교육의 기초가 될만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의 복잡한 내용과 많은 분량으로 참된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교회는 그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진리를 요약하여 만들어진 『신앙교육서』는 교리 중심의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교육적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기독교 교육학자 이비(B. S. Eavey)는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적인 교육이 새로운 신자를 위한 세례 준비 학교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세례 준비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바로 기본적인 교리교육에 근거하였다고 보았다.⁷⁴⁸⁾

2. 기초 신앙관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자료

『신앙교육서』는 신자의 기초 신앙관을 확립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된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를 신자들이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신앙관은 신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수반한다. 이러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신앙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한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는 신앙관

748) B. S.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신청기 공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6)

을 통하여 신념의 기본적인 체계를 가지고 신앙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신앙관의 확립이란 기독교 구원의 진리에 기초한 신앙 체계의 확립을 의미한다.

신자는 확립된 신앙관에 근거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해야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와 작정 그리고 섭리를 올바르게 인식시킨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도 신자는 이러한 세계관으로 기독교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 올바른 진리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과제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언제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한다.⁷⁴⁹⁾

신앙관과 세계관의 기본적인 골격은 『신앙교육서』에 나타난 교리교육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신앙교육서』의 내용들은 조직 신학적 입장에서 계시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으로 다시 배열되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이런 작업을 통하여 마땅히 알아야 할 신학의 기초 지식과 기본적인 형성을 제공받기 때문이다.⁷⁵⁰⁾

3. 성경해석의 기본 원리와 방향 제공

『신앙교육서』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의 열쇠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신앙교육서』를 통한 신앙교육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안목과 방향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점이 강조되는 이유는 성경이 '신앙의 제일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유일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 해석은 성경을 풀이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신학 연구와 목회 실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교리는 신앙의 유일 기준이요 신학의 원리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기본 열쇠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성경에 근거를 둔 교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교리에 근거한 성경해석도 역시 강조하고 있다.

749) 정일용, 『교육목회학』, 402-403.

750) 정준모, *op. cit.*, 9.

실제로 해석자가 교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은 그가 자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준다.⁷⁵¹⁾

신학자들은 교리가 성경 해석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들은 성경 해석에서 교리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⁷⁵²⁾ 이런 점에서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얻은 기본적인 지식은 신앙관을 확립하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준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서』가 성경의 요약이며 교리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4. 삶의 기본적인 원리와 지침서로서의 역할

『신앙교육서』는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의 삶에 대한 원리와 지침이 된다. 일차적으로 칼빈은 『신앙교육서』에서 ‘하나님’이나 ‘구원’이라는 주제들을 교리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의 삶의 방식들에 대한 원리와 지침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분명히 밝혀 주었다.

『신앙교육서』에서 삶에 관하여 언급되는 주제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개인적인 성숙과 성화 문제, 가정생활의 원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지침,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사명 등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신앙교육서』를 신자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삶의 원리와 지침으로 간주하였다.⁷⁵³⁾

결과적으로 『신앙교육서』는 다원화된 사회에서도 신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지침으로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신교의 전통적인 모든 『신앙교육서』들은 저술된 당시의 시대적 유산으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에도 꾸준히 교육의 기초 자료로 매우 유익하다.

751)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414-415.

752) 정준모, *op. cit.*, 10.

753) *Ibid.*

B. 현대 교육적 적용의 공헌 가능성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교육서』는 목회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러한 기능들은 현대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교회교육과 교육목회에서도 엄청난 공헌을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신앙교육서』는 신앙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교과서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신자들에게 더욱 포괄적인 신앙생활의 핵심들인 신앙고백, 예배, 기도, 설교, 상담, 변중, 치리, 전도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앙교육서』는 신앙생활에서의 다양한 공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살펴봄으로써 『신앙교육서』가 제공하는 유익한 기능들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1. 신앙교육 교재로서의 공헌 가능성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교회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비적인 교육을 받도록 결정하였다.

루이스 셰릴(Lewis J. Sherill)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다섯 가지의 신앙교육의 유형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구약성경의 기독교적 해석이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이다. 셋째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의 해석이다.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이다. 다섯째는 삶의 두 가지 길, 즉 사는 일과 죽는 일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다.⁷⁵⁴⁾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면서 두 신학자에 의하여 더욱 분명하게 다듬어졌다. 루터는 1529년 『대 요리 문답서』와 『소 요리 문답서』를 만들었고, 칼빈은

754) Lewis J. She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 1953), 152.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중심적인 골격으로 한 『신앙교육서』를 집필하였다.

『신앙교육서』는 학생들과 새로운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한 교리교육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칼빈은 처음부터 이 책을 새로운 신자들에게 믿음의 대상, 내용, 그리고 행동을 가르치는 신앙 교과서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신앙교육서』는 새로운 신자와 세례문답자들뿐만 아니라 목사와 기존의 평신도를 가르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교회는 방법적으로 『신앙교육서』를 통한 교육을 선호하였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기독교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특별히 교리가 교육의 핵심이 되었는데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은 크게 두 영역에 걸쳐 있었다. 첫째로, 교리교육은 믿음의 대상과 구원의 정당성을 연결시켜서 가르치는 교리적인 영역에 근거한다. 둘째로, 교리교육은 현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하여 가르치는 윤리적인 영역에 근거한다. 이와 같이 기독교 교육은 구원 진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바라는 자가 어떻게 그러한 신앙의 삶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토마스 토렌스(Thomas F. Torrance)는 『신앙교육서』의 중요한 목적이 고대 가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적 가르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신앙교육서』의 세 가지 목적을 지적하였다. 『신앙교육서』의 첫 번째 목적은 10세에서 15세의 연령에 속하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적당한 양식을 제공하여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들, 즉 그의 진리 안에서 하나된 자들로 인도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이 모두 함께 한 몸, 한 영을 이루어 한 입으로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을 선언하도록 성장시키는 데 있다.⁷⁵⁵⁾

이와 같이 칼빈은 교회의 기초와 틀로서의 『신앙교육서』가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가정과 교회와 세대를 통하여 기독교 진리를 교육하고 전수하는 데

755) Thomas F. Torrance, *op. cit.*, 3-4.

『신앙교육서』가 교육적 도구로서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서』는 신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그들의 삶의 지침서 역할을 감당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 교육에 관한 책과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논하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서』가 이 시대에 효율적으로 신앙교육의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2. 『신앙고백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답변이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신앙규범이라면, 신앙고백은 교리규범이다. 또한 성경이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신앙고백은 상대적인 교회의 권위만을 가진다.⁷⁵⁶⁾ 하지만 신앙고백과 신조는 모두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가치와 용도와 의미는 매우 크다. 우선 신앙고백은 성경의 교훈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서 신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를 연합시켜서 거짓된 교훈과 생활을 막아주는 공적 표준의 방패가 된다.⁷⁵⁷⁾

개혁교회에는 30여개가 넘는 신조 즉 『신앙고백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신앙고백서』들은 16-17세기에 유럽의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제정되었다. 왜냐하면 지리적 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던 교회들은 자신들에게 적당한 조직과 『신앙고백서』들을 소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고백서』들은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였던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일치된 교리 체계를 가진다. 특히 강조될 것은 교회의 모든 정치, 제도, 그리고 신학이 예외 없이 각각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성경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성경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⁷⁵⁸⁾

756) Philip Schaff, *op. cit.*, 11.

757) *Ibid.*, 12-13.

758) 박일민, *op. cit.*, 73.

신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개혁교회의 모든 『신앙고백서』는 쾰빙글리적인 것과 칼빈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초기에 작성된 『신앙고백서』들은 주로 쾰빙글리와 그의 제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반면에 후기에 작성된 『신앙고백서』들은 주로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

칼빈은 1536년 11월 10일에 파렐과 함께 21개의 짧은 조항으로 이루어진 『신앙고백서』를 제네바 시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는 개혁교회 최초로 작성된 이 『신앙고백서』를 기점으로 하여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1537년에 『신앙교육서』를 저술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종교개혁 시대에 작성된 『신앙교육서』는 신앙고백 논쟁이 발생하였던 17세기에 이르러 『신앙고백서』로서의 의미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가 1618년부터 1619년까지 네델란드의 도르트(Dordt)에서 열렸던 총회에서 구라파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로 공인되었다.⁷⁵⁹⁾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신앙교육의 목적이 신앙고백이며 신앙고백은 신앙교육의 결과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다. 신앙교육과 신앙고백은 상호 유기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후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신앙교육서』를 만들었던 루터와 칼빈의 경우처럼,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다분히 고백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리교육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통일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앙교육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은 한 몸인 교회가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교육을 함으로써 통일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앙교육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고백을 위한 책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던 자들은 예수 그리

759) 정일웅, 『한국 교회와 실천신학』, 406.

스도 안에서 복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에 의해서 신자들의 믿음은 절정에 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끊임없는 대상'인 것이다.⁷⁶⁰⁾ 덧붙여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고 드러나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영구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계신다"⁷⁶¹⁾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백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분으로 믿었던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뢰를 올바른 때에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갖게 된다. 이처럼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게 하며, 소망은 그가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하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게 한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것이며, 소망은 그것이 보여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소망이 기대는 기초이고, 소망은 믿음을 양육하며 그것을 지탱한다.⁷⁶²⁾

교회는 단순히 인간이 아닌 성경의 아주 확실한 증언으로부터 결합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⁷⁶³⁾ 이 신앙고백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우리가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받아들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믿는 것이다.⁷⁶⁴⁾

더욱이 모든 신자는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한다.⁷⁶⁵⁾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였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구원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났다.⁷⁶⁶⁾

760) 『신앙교육서』, 제 16절.

761) 『신앙교육서』, 제 14절.

762) 『신앙교육서』, 제 21절.

763) *Inst.*, 2. 16. 18.

764) 『신앙교육서』, 제 20절.

765) *Inst.*, 2. 16. 13.

766) *Comm.*, 1 Peter 1: 3.

한국 교회는 오늘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과도한 영향으로 신앙고백적인 삶을 실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신앙적인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세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되고 둔화되는 것은 확실한 신앙고백과 그 고백에 알맞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신앙고백적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 참석, 십일조 헌금, 교회 직분 등으로 참된 신자들의 신앙고백과 그들의 삶을 점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신앙고백에 대한 바른 교리교육과 그에 따른 삶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칼빈이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신앙고백이 제네바 교회 회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개혁의 큰 성과였다. 그가 『신앙교육서』와 『신앙고백서』를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여기고 중요시했던 것은 바로 신자들의 신앙이 교회와 공동체의 신앙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21세기의 다원화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든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그들의 신앙고백을 성경의 기초 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3. 예전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성례나 의례와 같은 예전을 신앙교육으로 연결시켰다.⁷⁶⁷⁾ 그는 특히 『신앙교육서』에서 이러한 예전을 부각시켜 교육하였다. 칼빈에게 있어 성례는 신자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칼빈 연구가 게리쉬(B. A. Gerrish)는 “성례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일종의 학습(instruction)에 의한 봉사로서의 성례가 신앙에 관한 확실함을 통하여 신앙을 증언하는 동시에 그 신앙에 대한 표현, 의미 그리고 가르침을 분명하게 한다는 데 근거한다. 그리고 칼빈은 성례를 통하여 참여

767) 강희천, *op. cit.*, 134.

자가 인식하고, 학습하고, 진리를 깨달으며, 성찰하게 되고, 사고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⁷⁶⁸⁾고 하였다. 이처럼 칼빈은 성례를 통하여 신자들은 『신앙교육서』에 나타난 기초 교리를 인식하고, 학습된 것을 총체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⁷⁶⁹⁾

칼빈은 성례를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하여 인간에게 자신을 알게 하신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그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성례와 같은 가시적인 표를 통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성례는 은혜의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칼빈은 성례의 효력이 외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 위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세례에 관한 가르침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과 특히 언약에 근거하여 유아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⁷⁷⁰⁾

사실상 예전과 기독교 교육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예전의 일반적인 세 가지 기능은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첫째로, 예전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적 삶의 형태를 표현하게 한다. 둘째로, 그들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를 표현하게 한다. 셋째로, 사랑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신앙인들의 실천을 통하여 교회 바깥세상에서의 삶과 관련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게 한다.⁷⁷¹⁾

이런 견지에서 한국 교회는 예전과 기독교 교육 사이의 긴밀한 연계성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강회천의 지적처럼, 한국 교회의 예배 의식과 성례전 형식은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 성숙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예전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다. 첫째로, 한국 교회의 기존의 예전 형태는 무언의 상징적 행위나 예식에만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예전 참여자들은 그 예전을 통하여 선포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다. 둘째로, 예전의 집례 과정에서

768) Brian A. Gerrish, *Grace and Gratitude: The Eucharistic Theology of John Calvi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27.

769) *LCC*, 20: 53; *Inst.*, 1. 5. 2.

770) 『신앙교육서』, 제 26-29절.

771) Thomas H. Groome, *Sharing Faith: The Way of Shared Praxis* (New York: Harper Collins, 1991), 363.

성직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문자적이며 신학적인 성경의 본문에만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예전 집례자에 의해 낭독되는 문자적이며 신학적인 성경의 본문과 그 내용을 듣고 있는 예전 참여자들 사이에 생겨나는 역동적인 상호 작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⁷⁷²⁾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사전에 성례전에 대한 충분한 준비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성례 교육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지침서가 요청된다.

기본적으로 『신앙교육서』는 예배 중에 성경 교독을 대신하여 예배 인도자와 회중 사이에 교독되는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하여 새로운 신자들과 청소년들은 배운 내용으로 세례문답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던 청소년들은 입교예식을 행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등의 예전적인 기능을 감당하게 된다.⁷⁷³⁾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세례와 성찬을 앞두고 세례문답서를 가지고 기본 교리 공부를 한다. 특히 목회자들은 목회 현장에서 학습식과 세례식을 앞두고 새로운 신자들에게 기초 교리교육을 하는 교육적인 목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신자들이 기초 교리를 분명하게 교육받아서 바른 신앙고백을 하고, 또한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1년에 평균 2회 정도 성만찬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칼빈의 경우처럼 성만찬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신앙교육서』는 초보적인 신자들에게 기초 교리를 전수시키는 요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런 기능 가운데 하나가 성례전의 의미를 바로 교육할 수 있는 예전서적인 기능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성례식을 앞두고 교육적인 성례식을 위한 일환으로 『신앙교육서』를 다시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도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칼빈은 『신앙교육서』 24절과 『기독교강요』 3권 20장에서 '주기도문'을 철저하게 다루

772) 강희천, *op. cit.*, 176.

773) *Ibid.*, 404-405.

었다. 이것은 그가 기도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생각하였다는 증거가 된다.⁷⁷⁴⁾

기도에 있어서 그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보았다. 즉, 그는 믿음과 기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⁷⁷⁵⁾ 왜냐하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기도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는 칼빈 신학의 중심인 경건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칼빈은 기도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락으로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에 대한 요구를 호소하는 것”⁷⁷⁶⁾이라고 정의하였다. 칼빈은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첫째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게 한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욕정을 제거해 준다. 셋째로, 기도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넷째로, 기도는 구한 바를 얻고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명상하게 한다. 다섯째로, 기도는 이미 얻은 것을 더 큰 즐거움으로 누리게 한다. 여섯째,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고 언제나 그분의 보살핌을 바라보도록 한다.”⁷⁷⁷⁾

『신앙교육서』에서 칼빈은 기도의 인내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⁷⁸⁾ 칼빈은 기도에 열정을 가진 목회자였고,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 원리와 방향을 제시한 교사였다. 이와 같이 『신앙교육서』는 기초 신앙 교리서로서 기도에 관한 제반 원리와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신앙교육서』에 따라서 기도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분명히 이러한 『신앙교육서』가 신자들이 기도 원리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도 자료가 되기도 한다.

774) *Inst.*, 2. 16. 18.

775) *Inst.*, 3. 20. 27.

776) *Inst.*, 3. 20. 1.

777) 장훈태, *op. cit.*, 292-293.

778) 『신앙교육서』, 제 25절.

마찬가지로 루터의 『신앙교육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책으로서 활용되었다. 그는 이 『신앙교육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하였다. 또한 그는 신자들이 『신앙교육서』에 나타나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앙교육서』는 특별히 학습방법에 있어서 질문과 대답의 도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대화의 기본 양식으로 충분히 활용되었다.⁷⁷⁹⁾

오늘날 신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자와 기존 신자 그리고 성장 세대들에게 기도의 모범과 원리를 제시해주는 『신앙교육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때이다. 또한 기도의 기능적 특성을 가진 『신앙교육서』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5. 교리설교 자료로서의 공헌 가능성

기독교 예배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즉 설교에 있다. 왜냐하면 설교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고, 교회는 설교를 통하여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사이드(P. T. Forsyth)는 “교회는 설교에 의하여 존립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설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⁷⁸⁰⁾ 20세기 세계적인 신학자인 존 스타트(John Stott)도 기독교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교는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만일 설교가 없다면 교회는 기독교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라는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⁷⁸¹⁾라고 하였다.

칼빈과 모든 개신교 개혁자들은 설교를 예배가 지니는 가장 강력한 부문이라고 확언

779) *Ibid.*, 405-406.

780) P. T. Forsyth, *Positive Preaching and the Modern Min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2), 13.

781) John R. W. Stott, *Between Two the World*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Co., 1994), 15.

하였다. 따라서 개신교 예배의 모든 예식과 찬송가의 선택은 예배 전체의 핵심인 설교의 내용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칼빈은 목사가 세 가지 규칙, 즉 단순성, 간결성, 대담성을 가지고 설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⁸²⁾

칼빈은 그의 여러 저서에서 설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에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설교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오직 말씀 선포에 의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목사는 두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는 양을 모으는 소리요, 또 다른 하나는 이리들을 쫓는 소리이다. 하늘의 교훈을 전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회중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마땅히 교회로 간주될 수 없다. 칼빈은 질서 정연한 교회의 일치된 특성이 건전한 교훈의 설교와 또 성례의 순수한 시행이라고 하였다. 교회는 썩지 않는 씨로 영생의 자녀를 낳으며 그들이 출생하면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모든 진리를 보존하신다. 말씀의 빛 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의 지도를 받지 않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낳으시고 성장하게 하신다.⁷⁸³⁾

칼빈은 교리 중심으로 설교하였다. 특히 『신앙교육서』에 기초하였던 그의 교리설교는 신자들에게 바른 신앙고백을 하도록 이끄는 영적 교훈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교리가 없는 설교를 기피할 정도였다. 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리를 설교하였는데, 그것은 “첫째로 무지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초보적 지식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더욱더 진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⁷⁸⁴⁾라고 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의 교리에

782) 박건택, 『칼빈과 설교』 (서울: 나비출판사, 1988), 68-69.

783) 정성구, 『설교자를 위한 칼빈 신학 사전』 (서울: 총신대학교출판사, 2000), 172-182.

784) *Comm., Hebrews* 8: 11.

대한 가르침이 필요 없을 만큼 현명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이 평생토록 교리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향권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⁷⁸⁵⁾

칼빈은 설교를 통한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면서, 교리의 총체인 『신앙교육서』를 집필하였다. 그리고 그는 제네바 목회 사역에서 『신앙교육서』의 교리 내용으로 목회에 집중하였다. 알프레드 클라우스가 “칼빈의 설교는 본래 『신앙교육서』이다”⁷⁸⁶⁾라고 할 정도로, 칼빈은 교리 중심의 설교를 하였다. 그는 설교를 통하여 교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쳤다. 그에게 교리는 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케 하는 것이었다.

칼빈의 교리 중심적인 설교는 『신앙교육서』에서 절정에 달한다. 왜냐하면 이 책에 교리의 핵심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설교 내용이 『신앙교육서』에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앙교육서』의 해석이 교리교육을 위하여 매주 강단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앙교육서』는 충분히 설교 자료와 기초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기독교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기본 형태에는 구속사적 설교, 선교적 설교, 목회적 차원의 설교, 예언적 형태의 설교 등이 있다. 또한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 형태는 가르침의 설교, 도덕적 설교, 예식 설교, 어린이 혹은 청소년 설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강해 설교, 본문 설교, 주제 설교, 이야기 설교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⁷⁸⁷⁾

하지만 설교의 형태와 방법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설교에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가 교리가 없는 감정 중심, 예화 중심, 시사 중심, 그리고 간증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실정이다. 물론 설교는 오직 교리를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피터 드종(Peter DeJong)은 “교리가 마치 성경 본문인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성경 연구에서 교리의 가치는 매우 높지만 교리가 성

785) 양금희, *op. cit.*, 133.

786) R. Hedtke, *op. cit.*, 108.

787) 정일웅, 『교육목회학』, 340-342.

경을 대신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교리설교를 해야 한다”⁷⁸⁸⁾라고 올바르게 지적하였다.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되, 그 본문이 담고 있는 교리를 찾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은 설교에 있고 설교의 생명은 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리의 총집합체인 『신앙교육서』를 교리교육 설교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6. 목회 상담 안내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부부 갈등, 이혼, 심각한 청소년 문제, 직장 문제, 학원 문제, 노인 문제 등이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따른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상담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목회 상담은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영역이다. 상담을 목회 현실에서 이해하고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선 올바른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주어진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한 상담학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교회 목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⁷⁸⁹⁾

역동적이며 전인적인 교육 목회와 활동은 지식의 단순한 전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인간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효과적인 신앙교육을 위하여 각 신자들에게 상담 원리와 방법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담은 인간 내면의 깊은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므로, 상담을 통한 목회적 기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70, 80년대에 대중 목회를 하면서 개인의 영혼과 생명을 돌아보는 사역을 경시하였다.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서

788) Peter Y. DeJong, “Bible and Creed,” *Outlook* 1 (1988): 18.

789) 정정숙, 『성경적 상담과 교육목회』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0), 84-85.

교회는 사회 문제의 급변하는 현상에 따른 위기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다양한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적 상황 때문에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에 상담목회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하지만 교회는 아직도 올바른 상담을 위한 기술적 방법과 상담 안내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웨이인 오츠(Wayne Oates)는 목회자의 상담 기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훈련의 정도에 관계없이 목회자는 자신의 교인들과 상담을 하고 안하고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교인들은 최선의 지도와 가장 현명한 배려를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늘 목회자에게 찾아온다. 그가 목회를 계속하는 한 이런 일을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은 상담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훈련된 기술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훈련이 안된 미숙한 방법으로 상담하는 것이다.⁷⁹⁰⁾

이러한 시점에서 목회자들과 기독교 상담가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접근되고 시도된 상담 원리와 기법에 관한 이론과 책자들이 마련되는 것이다. 사실 상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기독교 상담에 관한 이론들이 일반 심리학과 상담 이론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은 주로 심리학적 접근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 이 이론들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킨다.⁷⁹¹⁾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교육서』는 기본적인 상담 교재로서 목회 현장 속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서』에 신앙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교리가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목회 상담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신앙교육서』에는 신자들이 삶의 상황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790) Wayne E. Oates,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Broadman, 1959), vi.

791) 채규현, “목양과 목회상담,” 『성경과 상담』 1 (2001): 77.

들어있다. 『신앙교육서』는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인간, 죄, 구원, 자유 의지, 십계명, 주기도, 세례와 성찬, 교회, 자유, 양심, 부활, 심판 등의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자들은 이 주제들을 통하여 신앙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신앙교육서』는 신자들이 하여금 자신의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러한 『신앙교육서』의 목회 상담서로서의 기능은 오늘날에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록 현대인들이 종교개혁 당시보다 더욱 다원화된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복잡성은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목회 상담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현시대에 맞는 『신앙교육서』가 마련된다면 모든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7. 변증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칼빈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신앙교육서』를 변증서의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첫째 목적은 영적인 성장과 기독교 신앙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목적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오는 비난과 공격에 대해 종교개혁 운동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다.⁷⁹²⁾

변증은 ‘아폴로기아’(ἀπολογία)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입으로 말하는 변호’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변증은 하나님의 존재를 변호하고 증명함으로써 기독교를 믿게 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변증학은 ‘기독교를 변호하고 증명하는 기독교 신학의 일분과적 학문’⁷⁹³⁾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변증 혹은 변증학에 대한 성경적 예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쉽게 발견된다. 바울의 변증적인 활동은 이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된 행위로 보인다. 그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792) *Inst.*, 4. 2. 1, 2.

793) David Guralnik,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of the American Language*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70), 64.

데 있어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았다.⁷⁹⁴⁾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변증 활동은 초대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로 간주되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부도덕하여 로마 제국을 훼손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오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변증 활동을 시작하였다.

변증학은 어거스틴의 시대에 이르러서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다. 물론 어거스틴 시대 이전에도 가장 위대한 변증론적 작품으로 간주되는 『무신론자 셸수스(Celsus)에게 답변문』이 동방 교부 오리겐에 의해서 저술되었다.⁷⁹⁵⁾ 그러나 기독교 변증학의 기초를 수립하였던 인물은 바로 어거스틴이었다.

어거스틴의 변증은 조명 교리에서 부각된다. 이 조명 교리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며 빛이시며 영원하시라는 것이다.⁷⁹⁶⁾ 그는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참된 빛으로 보면서 우리들은 모두 이 빛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조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확신 있는 변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칼빈은 16세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이교도들의 신학적 도전을 성경신학적으로 방어하고 답변하고 비판할 능력을 갖춘 탁월한 변증가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자들이 신학과 철학을 종합하는 것을 보았던 그는 그러한 종합이 기독교 신앙에 유해하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시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명료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의 측면에서 그의 변증을 시도하였다.

칼빈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신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기 증언이 이미 심겨져 있었다고 보는 그의 인식에 근거한다. 그는 인간

794)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의 변증 활동은 예루살렘의 폭도들 앞에서(22: 1),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23: 1), 벨릭스 총독 앞에서(24: 1), 그리고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서(26: 1) 이루어졌다.

795) Bernard Ramm, 『변증학의 본질과 역사』, 김종두 편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13.

796) 『신앙교육서』, 제 2절.

에게 '종교의 씨앗'이 있고⁷⁹⁷⁾ 그 종교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이를 통하여 인간은 변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재능과 은사를 가진 존재였다.⁷⁹⁸⁾ 또한 인간의 지성과 도덕의식과 그리고 인간 존재 그 자체가 함축된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 할 수 있다⁷⁹⁹⁾고 보았다.

칼빈은 우주의 오묘한 질서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우주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⁸⁰⁰⁾ 그러나 그는 말씀의 빛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특별계시를 통하여 보다 깊은 신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고⁸⁰¹⁾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변증의 확실함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신앙교육서』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지식', '율법', '신앙', '사도신경', '기도', '성례', '교회와 국가'와 같은 그의 핵심적인 신학사상을 자세히 요약해 놓았다. 그가 이 책을 통하여 의도하였던 근본 목적은 철저한 신앙교육과 확실한 기독교 변증이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한국 교회도 위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신앙교육서』를 다시 신자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가 인간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이 때에 도전 받는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는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교리교육을 더욱 심도 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신앙교육서』는 기독교 신앙에 도전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797) 『신앙교육서』, 제 1절; *Inst.*, 1. 4. 2; *Comm.*, *Isaiah* 46: 8.

798) *Inst.*, 1. 5. 5.

799) *Inst.*, 1. 1. 1.

800) 『신앙교육서』, 제 3절; *Inst.*, 1. 5. 1; *Comm.*, *Romans* 1: 20.

801) *Inst.*, 1. 6. 1.

8. 치리교육의 모형으로서의 공헌 가능성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이유는 바로 교회의 치리에 대한 권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신앙교육서』에서 치리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 지기를 원하였다.⁸⁰²⁾

일차적으로 칼빈은 치리를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치리를 통하여 교회 안의 나약하고 게으르고 불완전한 성도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하고 교육적인 척도를 통하여 이들을 선도하고, 훈계하고, 수정하고, 개선하기를 원하였다.⁸⁰³⁾

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절대 필요한 요소였으며, 궁극적으로 그 목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명예와 교회의 거룩성을 드높이는 것이었다. 그가 이러한 치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교회에서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데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방해들을 치리를 통하여 미리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칼빈은 치리를 일종의 제어 장치나 자극제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치리를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매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교리가 교회를 제한하고 그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치리는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튼튼히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칼빈은 치리를 시행할 때 교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치리하기 전에 교회는 그에게 치리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를 명백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교리의 집합체인 『신앙교육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바로 교회의 유지와 공동체의 유익에 크게 이바지하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치리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신자를 신앙적으로 바로잡고 신앙적이 아닌 것은 금지시키고 그리고 신앙적인 격려를 통하여 교회의 교육 활동을 돕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802) 『신앙교육서』, 제 32절.

803) *Inst.*, 4. 12. 1.

기능이 『신앙교육서』의 주된 역할인 것이다. 치리는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힘들어하는 자들을 올바른 치유책으로 예방하여 그들이 교리적이며 도덕적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한다.⁸⁰⁴⁾ 칼빈은 『신앙교육서』가 이러한 예방적이고 치유적이고 도덕적인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칼빈이 『신앙교육서』의 여러 역할 중에서도 특히 치리의 역할을 기술하게 된 이유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견해에 근거한다.⁸⁰⁵⁾ 그는 육체, 지능, 그리고 기질과 같은 인간의 모든 요소가 악하고 타락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그의 내면에 선함이나 의로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구원 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러나 치리는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그에게 회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익함을 부여하게 된다.

한국 교회는 열정을 가지고 외적인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하지만 교회의 치리 기능이 상실되어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부패하였고 신자들의 삶은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한국 교회는 또한 자체적으로 치리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교회에서 치리가 행하여지더라도 치리는 정치적 갈등 때문에 비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치리의 최고 결정 기관인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에 따라서 정당하고 공평하게 치리를 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에서 치리를 당한 교인은 교회의 결정에 순종함으로써 더욱 성숙된 교인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치리를 회복하는 길만이 한국 교회가 살 길 중의 하나이다.

한국 교회는 치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치리가 신자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하고 벌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신에, 교회의 유지와 공동체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치리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던 칼빈의 입장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신자

804) *Comm., Isaiah* 27: 8.

805) 『신앙교육서』, 제 4절; *Inst.*, 2. 1. 1; *Comm., Romans* 5: 12; 7: 5; 8: 3; *Comm., Galatians* 2: 20; 5: 16; *Comm., Ephesians* 4: 24.

들을 교육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징계를 실시하였던 칼빈의 제네바 목회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 일부 학자들은 제네바 개혁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칼빈을 단호한 치리 행위를 감행하였던 부정적인 인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하여 치리라는 수단을 사용하였을 뿐, 치리를 통하여 신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항상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치리권을 신중하게 행하였다. 칼빈은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치리의 목적과 의미를 올바르게 교육하였고 치리를 항상 교육적인 목적으로 행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치리를 통한 그의 교육목회 사역을 잘 연구하여서, 올바르게 시행된 치리에 의하여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9. 전도와 선교문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여러 중요한 사명에 속한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훈련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교육적인 사역의 한 부분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

엘머 타운즈(Elmer L. Towns)는 기독교 교육과 전도를 상호 필연적인 관계로 보았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이 단순히 형식적인 지식 훈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도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며, 전도도 역시 단순히 감정적이고 피상적인 활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적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사는 교육과 전도의 상호 관계성에 의하여 반드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⁸⁰⁶⁾

교회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이다.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인 모임을 통하여 구원과 영원에 참여하게 된다.⁸⁰⁷⁾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신자들은

806) Elmer L. Towns, 『기독교 교육과 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8-9.

807) *Inst.*, 4. 1. 1.

신앙으로 모이고 증언을 위하여 흠뻑해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주'로 고백하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증언하게 된다.

또한 신자들은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노력한다.⁸⁰⁸⁾ 그래서 선교학자 블라우(J. Blauw)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는 없고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 이외의 다른 선교는 없다”⁸⁰⁹⁾라고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칼빈은 목회 활동, 문서 활동, 학교 사역, 설교 사역, 그리고 다양한 저서 등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심오하게 표현하였다. 그는 온 세계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선교지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선교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교학자 사무엘 즈웬머(Samuel M. Zwerner)의 평가처럼 “칼빈은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⁸¹⁰⁾ 또한 데이빗 칼훈(David B. Calhoun)은 “칼빈은 선교적 영웅인가? 아니면 선교의 실패자인가?”라는 글을 통하여 “칼빈의 신학은 원래 선교적인 것이었다”고 하였다. 칼빈이 해외 선교의 강력한 추진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인도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다. 이와 같이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곳곳에 확산되도록 모든 선교적인 열정을 다하였다.⁸¹¹⁾

마찬가지로 칼빈은 기본적으로 모든 설교에서 항상 선교 사상을 전제하였다. 그의 설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인간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칼빈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 선교적인 의무와 사명이라고 강조하였다.⁸¹²⁾

808) William MacDonald, 『사도행전 주석』, 송기섭 역 (서울: 전도 출판사, 1996), 66-68.

809) Johannes Blauw,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in Cross Road in Mission* (South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1), 120.

810) 최정만, 『칼빈의 선교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27.

811) David B. Calhoun, “John Calvin: Missionary Hero, or Missionary Failure,” *Presbyterian Bulletin* 5 (1979): 16-33.

812) *Ibid.*, 35.

칼빈은 『신앙교육서』에서 자신의 선교 사상을 피력하였다. 이 책이 『기독교강요』의 요약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신앙교육서』는 새로운 신자들을 위하여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요약된 책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갈망하고 신앙을 찾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을 소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교육서』는 전도 소책자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전도 단체나 선교 단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한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 방법의 유형을 보면 설교를 통한 전도, 표적을 통한 전도, 기도를 통한 전도, 가정을 통한 전도, 삶을 통한 전도, 개인접촉을 통한 전도, 문서를 통한 전도 등을 들 수 있다⁸¹³⁾.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전도 방법과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배포한다. 하지만 그런 전도책자와 전도지는 주로 전도 대상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런 자료들은 일반인들에게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 진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⁸¹⁴⁾

『신앙교육서』는 전도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핵심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도지침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회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함축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신앙교육서』를 새로운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C. 현대 교육적 적용의 한계성

1. 언어의 낙후성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오늘날 『신앙교육서』의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신앙교육서』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그 시대와 문화적 상황에서 만들어졌

813) 정준모, “복음전도 방법의 성경적 적용,” 『21세기 전도정책연구』, 총회전도정책위원회 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사, 2002): 42-52.

814) *Ibid.*, 146-160.

기 때문에 21세기 현시대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언어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따른다. 왜냐하면 언어와 신학적 용어의 개념은 일종의 시대적 산물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바뀌거나 명확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란 사상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언어 그 자체가 생성되고 사멸된다. 또한 언어가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다른 의미로 바뀔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앙교육서』가 개혁주의 전통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작성되었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책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교육 대상자들에게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언어 변천과 언어의 낙후성의 문제’이다.⁸¹⁵⁾

그러므로 『신앙교육서』가 교리적 내용, 신학적 깊이, 교육적 함축성 등에서 그 우수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오늘날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농경사회와 산업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언어의 변천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1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언어가 수년 내에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앙교육서』의 신학적 개념과 언어적 의미를 오늘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시대의 언어와 신학적 낱앙스에 맞는 새로운 『신앙교육서』가 요청된다. 현재 미국의 개혁교회에서 『신앙교육서』를 신학적 용어와 개념들을 재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 대상자의 연령이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신학적 교리적 용어를 선택하여 개정된 『신앙교육서』가 요청된다. 이것은 곧 칼빈 자신이 교리교육에서 강조했던 진정한 ‘눈높이’에 따른 교육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2. 교육 내용의 다양성 결핍

『신앙교육서』의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교육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이 결여되어

815) *Ibid.*, 408-411.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들은 이전에 작성된 『신앙교육서』에서는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농경문화 사회에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교육서』를 저술하였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서』가 집필되었던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은 지금과는 현저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시대에 필수적으로 여겨졌던 핵심 문제와 과제가 종교개혁 이후 약 400년이 지난 지금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가진다. 또한 당시 종교개혁이 추구하던 그 정신과 의미는 개혁교회 전통으로 계속 남아있지만, 그 핵심적 논쟁점은 시대 변천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다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삶의 정황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해답을 주어야 할 문제들이 새롭게 설정된다.

만약 현대 교회가 구시대의 『신앙교육서』에 내포된 내용만을 고집한다면, 현대 교육학자 골든 챔벨린(J. Gordon Chambelin)이 지적한 것처럼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부적절성과 약점은 새로운 정보 요망에 대해 응답해 주지 못하는데 있다”⁸¹⁶⁾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3.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요청

『신앙교육서』의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교수-학습에 관한 방법적인 한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면에서 오늘날 『신앙교육서』가 다양한 교수-학습 원리와 방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교육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신앙교육서』는 주로 학습 내용을 전수(inform)하는 방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그래서 학습자는 그들이 처해있는 현재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들의 현재적 삶을 학습된 교리 혹은 진리와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해석하지 못하였다.

816) J. Gordon Chambelin, 『새로운 기독교 교육의 접근』, 신서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32.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변형시키도록 격려하는 역동성을 많이 결여하게 되었고,⁸¹⁷⁾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관련 없이 단순한 암기나 이해의 내용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교수-학습 방법은 신자들의 삶을 내면화하는 데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칼빈은 자신의 시대 이전의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사용한 학습 방법을 답습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당시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놀랄만한 교육적 안목을 가지고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칼빈의 교수-학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그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질문 방법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대답하는 교수 방법을 취한다. 예를 들면, 그는 “인간의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고 답변하는 방법을 취하였다.⁸¹⁸⁾ 이처럼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방식이 바로 칼빈의 교육적 착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칼빈은 분석적 방법을 취하고 있다.⁸¹⁹⁾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주제와 내용을 루터처럼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내는 단조로운 형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연속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에 관한 주제에 대한 물음을 일곱 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분석하여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태의 교수 방법을 취하였다. 세 번째로, 칼빈은 분석적으로 질의와 응답을 하되 단계적으로 점점 깊은 질문을 하고 대답하게 하는 점진적이고 심층적인 학습 방법을 취하였다. 네 번째로, 학습자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교수법을 취하였다. 즉 이것은 교사가 학생 혹은 새로운 신자의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을 만들고 대답하는 방법이다. 이는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진리와 교리로 변호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종의 변증학적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칼빈은 학습자의 영적 수준에 따라 학습을 시키는 ‘하나님 조절 교육’ 즉 ‘눈높이교육 원리’를 따랐다. 여섯 번째로, 칼빈은

817) 강희천, *op. cit.*, 401.

818) R. Hedtke, *op. cit.*, 84.

819) 정일웅, 『교육목회학』, 310-311.

기초를 중시하는 교육 원리를 따랐다.

실제적으로 칼빈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현대적인 교육 이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때였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서』의 대략적인 교수-학습 원리와 방법은 주입식, 암기식 및 질의 응답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극히 제한된 교육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교사들은 일방적이며 획일적으로 가르쳤고 학생들은 수동적인 위치에서 맹목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수업은 교육적인 창의성과 학습 동기가 주어지지 않은 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암기 위주의 교육 방법은 학생들의 지식 축적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학습 내용을 의욕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교수-학습 이론을 통하여 칼빈은 훌륭한 교육 이론의 개발자로서 빈약한 교육적인 상황에서 매우 놀라운 교육적 안목과 교수 방법론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이 분명하였다.

웨스터호프(John Westerhoff III)는 지식 중심의 주입식 신앙교육을 비판하였다. 그는 이러한 교육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지적하였다.

학생의 학습활동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촉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교육은 교육의 장을 학교 조직과 같은 형태만을 취하고 그 학습 방법은 오직 지식 전달을 위한 주입식뿐이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단지 성경 지식, 교회 역사, 신조, 윤리 규정을 주입함으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팽창한다고 할지라도 교양 있는 무신론자만 양육하고 말 것이다.⁸²⁰⁾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교육은 전통적으로 선호해 오던 주입식, 암기식 교수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당시의 교수 방법은 연역적 방법이었다. 이 연역적 방법은 일반 원리를 바탕으로 특수 원리를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교수-학습 과정이 무시된 채 결론

820) John Westerhoff III,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53.

만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귀납적 방법을 선호한다. 귀납적 방법은 특수한 사실로부터 많은 사실의 일치점을 구하여 일반적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귀납법은 연역법을 전제로 하며, 연역법을 통하여 사실을 설명하고 원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묘사하는 방법이다.⁸²¹⁾ 이러한 귀납적 방법은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촉진시키고 학습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으로 교수법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효과적인 교리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론이 요청된다.

하지만 바람직한 기독교 교육 과정은 반드시 교수자의 지도 활동과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활동과의 상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임스 마이클 리(James M. Lee)는 교수-학습의 구조를 강조하면서 여섯 개의 구조 요소를 논하였다.

첫째, 교수 접근으로 교수-학습 행위의 기초적이고 일차적인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 둘째, 교수 스타일로 교수-학습 활동이 전개되는 특수한 방향과 지침과 전체적 형태를 결정한다. 셋째, 교수 전략으로 교수-학습 행위 방법들을 하나로 묶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을 정한다. 넷째로 교수 방법으로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채택하는 방법상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 다섯째, 교수 기술로서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사용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편과 도구들을 결정한다. 여섯째, 교수 단계로서 지금 여기에서 전개되는 교수-학습이 학습 행위의 단위와 순차에 따라서 이어지도록 한다.⁸²²⁾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학습 과제가 교수자의 권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구조는 학습자 모두의 참여에 의해 선정되고 그들의 경험과 통찰에 의해 해결되는 창조적인 교육 구조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무게를 두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구조가 갱신되어야 한다.⁸²³⁾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징법, 이미지법, 비유법, 이야기법, 역할극법, 토의법, 사례연구법 등과 같은 대안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미술, 음악, 드라마 기법, 사

821) *Ibid.*, 360.

822) James M. Lee, "Religious Education and the Bible," *Biblical Themes in Religious Education* 9 (1983): 35-36.

823) 정웅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40.

이러 활용 등의 도입과 축제적 접근과 같은 창의적 방법이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서』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도 현대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4. 하나님 나라 실현 방안 제시 미흡

『신앙교육서』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개념이 매우 미약하게 다루어져 있고 그 실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단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순한 하나님의 통치 개념과 내세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초월성만이 드러나 있다.⁸²⁴⁾ 그러나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통치 사상은 예수님의 교육 명령을 따르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교육하신 구약성경에 묘사된 하나님 나라는 ‘모든 백성과 우주 만물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비전’(사11: 6-9, 35: 1-10)이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마6: 33)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토마스 그룸(Thomas Groome)은 교회가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육의 중심 주제다.⁸²⁵⁾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생애의 중심 주제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존 윈(John Wynn)에 따르면, “개신교 주요 교단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은 생략하기로 일종의 음모를 꾸민 것 같다”⁸²⁶⁾고 할 정도로

824) 『신앙교육서』, 제 24절.

825) Thomas H. Groome, 『기독교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예장총회출판사, 1983), 90-93.

826) John Wynn, *Christian Education for Liber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77), 89.

오늘날 기독교 교육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중심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채 암시적으로만 그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나치게 개인화, 미래화 시켜서 세상과 구분된 하나의 피안의 장소로 이해하는 근본주의적 입장과, 극단적으로 현재화 내지 상황화 시켜 정의, 평등, 평화, 질서가 지배하는 이 땅 위에서 실현되는 지상적 이상국가 개념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의 이분화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⁸²⁷⁾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활동을 '할 일' 또는 '의무'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개인, 교회, 사회가 할 일 혹은 책임을 구분하였다. 첫째, 개인의 의무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자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둘째로, 교회의 의무는 케리그마(말씀 선포의 사명), 코이노니아(사림의 공동체), 디아코니아(섬김의 삶)를 사회, 정치, 경제적인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셋째로, 사회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정의, 평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⁸²⁸⁾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설교와 삶의 중심 주제요 목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기독교 교육의 중심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 등 어느 한 시제에 국한되거나 어느 한 시제가 소외된 교육을 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교회와 성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지금 오고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중심에 두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종교개혁 당시에 마련된 『신앙교육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827) 허호익,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 이해," 『조직신학 논집』 2 (1996): 343-344.

828) Thomas H. Groome, *op. cit.*, 46-48.

5. 신앙공동체 교육 결어

『신앙교육서』에는 교의신학적인 측면에서 교회론이 강조되고 있으나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의 개념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물론 칼빈이 제네바 목회 사역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가정, 학교,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신앙교육서』에는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교회의 거룩성, 하나된 보편적 교회, 성도의 교통, 교회의 속성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개념은 매우 약한 편이다.

웨스터호프(John Westerhoff III)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기독교 교육의 준거의 틀, 혹은 장으로서의 참된 역할을 하게 됨을 강조한다. 그는 신앙의 특성과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촉구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신앙은 어떤 교수법을 사용해서도 완전히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가르침으로써 가능한 것은 겨우 종교로서의 기독교 내용일 뿐이다. 종교는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앙은 마음을 열고 그것으로 행위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는 파악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신앙이 생생하게 맥박 치는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불러 일으켜지고 자각되는 일은 있어도 결코 누구의 소유물인 양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앙은 역사 속에서 신앙의 전통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지금 여기에서 그 같은 믿음울 서로 나누는 사람들에 의해 단적으로 표명되어 개혁되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일이다. 교회란 결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으며 오히려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의 사명과 목적은 기독교 신앙이 역사 속에서 고지되고 경험되고 이해되어 믿음에 뿌리박아 살고 행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⁸²⁹⁾

이처럼 신앙공동체를 통한 신앙교육과 전수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착안점이다. 이러

829) John Westerhoff III, *op. cit.*, 85.

한 맥락에서 볼 때 『신앙교육서』는 세대간 교육적 내용의 전달과 전수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규범으로서는 큰 교육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앙교육서』에 담고 있는 칼빈의 교육 사상에는 신앙 공동체적 삶의 의미가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의 『신앙교육서』와 교리교육 사상론을 현대 기독교 교육과 교육 목회에 접목시키고자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즉, 그 언어적 낙후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교육 내용의 다양성 결핍,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요청, 하나님 나라의 실현 방안 제시 미흡, 신앙공동체 교육의 결여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칼빈의 『신앙교육서』를 비롯하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유산인 『신앙교육서』들은 오늘날에도 그 유용성이 있다. 즉, 성경 기초 교리 자료, 신자의 기초 신앙 확립의 기본 토대, 성경 해석의 원리와 방향을 제공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또한 현대 교육에 적용할 때, 몇 가지 공헌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신앙교육 교재로서의 공헌 가능성, 『신앙고백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예전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기도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교리설교 자료로서의 공헌 가능성, 목회 상담 안내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변증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치리교육 모형으로서의 공헌 가능성, 전도 및 선교 문서로서의 공헌 가능성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Ⅶ. 결 론

A.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칼빈의 교리교육론을 분석하고 현대적인 적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교리의 총체이며 교리교육 지침서로 작성된 칼빈의 『신앙교육서』에 대한 교리적 분석과 신학적 해석, 그의 교리교육론에 대한 현대 교육신학적 해석, 교리교육 실천의 장인 가정, 교회, 학교 등의 교육 현장론에 대한 이해 및 현대 교육적 평가와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문헌 중심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문제 제기를 통하여, 최근 기독교 교육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고의 쟁점은 신학과 사회과학의 상호 관계성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의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교육신학적 검증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말미암아 기독교 교육의 핵심인 교리를 외면함으로써, 신앙의 본질과 기초 신앙교육의 기반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 교육신학의 기틀을 마련한 칼빈의 교리교육 사상과 원리를 새롭게 찾아 내어 혼란 속에 있는 한국 교회의 교육신학과 교육목회 현장에 새로운 지표와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2) 본 연구를 통하여 『신앙교육서』가 작성된 역사적 배경 및 본서가 후대 개혁주의 『신앙교육서』와 『신앙고백서』작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1) 『신앙교육서』는 ‘소리 내다’, ‘듣게 하다’, ‘가르치다’ 등의 뜻을 가진 헬라어 ‘카테케오’(κατηχεω)에서 유래되었고, 『교리문답』, 『요리문답』, 『학습 교리서』 등으로 불리 운다.

(2) 1536년 칼빈이 최초로 만든 『신앙교육서』의 본래의 책명은 『제네바 교회가 사

용하는 신앙교육 요강 및 신조』라고 이름 지어졌고, 이것은 보통 『제 1차 신앙교육서』라고 불리우고, 이것이 1538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카테키즘’(Catechism)으로 바뀌었다. 1541년 제네바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루터의 『신앙교육서』의 질문-대답 형식을 따라 서술식으로 된 『제 1차 신앙교육서』를 질문-대답 식으로 재수정하여 『제 2차 신앙교육서』 혹은 『제네바 교리문답서』가 작성되었다.

(3) 칼빈은 교회의 기초요, 틀을 이루는 것을 『신앙교육서』라고 보았으며, 이는 가정과 교회의 세대간 기독교 진리를 전수하며 교육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며,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확신하였다.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전수하고 교육하는데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4) 『신앙교육서』의 저술 목적은 어린이, 초신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까지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 교리와 신앙교육 내용을 간략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격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변증서로서 신자들에게 기초 교리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신앙교육의 본질과 핵심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5) 『신앙교육서』는 단순성이나 대중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책으로 말미암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통일된 교리교육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제네바 교회를 비롯하여 개혁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안정된 교회 생활과 성숙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6) 『신앙교육서』는 개혁교회의 뿌리와 전통을 이어 영국의 『요리문답』,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데 모체가 되었다. 또한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라틴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화란어, 독일어, 영어, 헝가리어 등 유럽과 서구의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세계 개혁교회 안에서의 교리교육과 신앙교육의 중추적 자료로 사용되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원리와 교회 뼈대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3) 교리교육의 집합체인 『신앙교육서』는 7개 신학적 주제 영역 즉,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 율법, 신앙, 신경, 기도, 성례 그리고 교회와 국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나타난 칼빈의 교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기독교강요』를 비롯한 기타 칼빈의 저술을 비롯하여 칼빈의 후예들의 신학적 입장에 의하여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모든 영역을 교육적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칼빈의 교육신학적 기초는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이룬다. 칼빈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것은 교리이며, 교리의 총체가 바로 『신앙교육서』이다. 칼빈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의 교육 사상의 기초요, 바탕임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설교, 『신앙교육서』, 『기독교강요』, 성례전 등 그의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모든 활동에서 교리를 기초로 삼았다. 칼빈은 교리를 교회의 시작이며 기초로 보고 있으며, 교리야말로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다.

4) 칼빈의 교리교육론에 대하여 현대 교육신학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 본 결과 기독교 교육 원리와 체계가 정립되지 않는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 교육적 안목을 능가할 만큼의 교육철학과 교육원리와 교육사상 등을 그는 이미 깊이 사고하고 있었고 그 사상과 원리를 제네바 교육목회를 통하여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요한 교리교육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는 어린이나 초신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까지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 교리와 신앙교육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앙교육서』를 저술하였다.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격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변증서로서 기초 교리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신앙교육의 본질과 핵심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2) 그는 교회의 모든 영역을 교육적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칼빈의 교육신학적 기초가 되는 것은 교리이며, 그 교리의 총체가 바로 『신앙교육서』이다. 칼빈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리라는 개념 속에 기독교 교육의 목표, 내용, 원리를 담고 있다.

(3) 그는 하나님의 교육이란 교육적인 안목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시의 점진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교육 진행 과정으로 생각하였다.

(4) 그는 교회의 모든 활동을 궁극적으로 신자들의 신앙 성숙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모든 행위, 즉 설교, 성찬, 치리 등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과 사역을 역시 하나님의 구원 교육론적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5) 그는 성경을 교리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설교는 교리와 훈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하여 경건의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설교의 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조절교육을 하셨듯이, 설교도 회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 그는 설교의 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경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설교, 교리와 훈계를 목표로 전달되어야 할 설교, 하나님의 교육적 차원과 눈높이 원리에 따라 회중의 수준과 입장에 맞추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교가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7) 그는 '하나님 학교'에서는 남녀 성별의 차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음을 강조하고 임종의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참된 경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학생으로 '하나님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평생 신앙교육론을 강조하였다.

(8) 그가 교육론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가나다' 기초 교육론이다. '가나다' 기초교육론은 첫째로, 어린이들에게 유효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교리를 언급할 때 사용하였다. 둘째로, 기본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 용어를 사용했다. 셋째로, 경건생활과 연관지어 게으름과 나태함을 지적할 때 사용하였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가나다' 즉 율법의 기초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로 비판하였다. 다섯째로, 성화에 이르기 전단계로서 '가나다'를 언급하였다. 여섯째로, 기독교 복음의 최종성과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곱째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울 진리와 교리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9)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관점을 두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 스스로 조절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와 교사로서 소개하였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의 교육적 목회 원리에 적용하였다.

(10) 그는 성경을 '성령의 학교'라고 부르며, 교회를 '하나님 학교'라고 불렀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사'로, 성령은 '마음속의 교사'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자신의 무한하심을 인간의 한계에 맞추어 조절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칼빈의 교리교육론에서 현대 교육신학과 교육목회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첫째,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교리에 있음을 인식하고 교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리교육 교재 발간과 교육적 자료와 방법론 연구를 위한 자각과 실천이 요망된다. 둘째, '하나님 학교'로서 교회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교육적 교회론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교육목회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즉 설교, 성례전, 교육, 치리 등이 교리교육과 상관없이 반복적 진행, 습관적 참석, 연례적 행사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모두 담겨진 교육적 의미를 전달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교육 안목과 교육적 계획과 교육 방안을 따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신앙 성숙도에 있어서 초신자부터 성숙한 신자까지, 연령별로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눈높이에 적합한 교리교육을 실시하되, 기초 교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기초 교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5) 칼빈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에서 교리교육이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었다. 또한 그는 교육 현장의 세 축을 형성하는 가정, 교회, 학교라는 교육의 장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충분히 언급하였다.

(1) 칼빈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리교육을 중시하였다. 그는 가정을 작은 교회로 생각하였고, 가정교육을 교회교육의 연장으로 생각하였다. 그에게 교회는 가정의 이상적인 모델이었다.

칼빈은 가정교육을 교회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서』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과 교회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동반자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칼빈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부모들에게 자녀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모에게 교회의 목사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교육적인 권위를 부여하였다.

칼빈의 가정교육 사상은 가정교육이 교회교육의 연장이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칼빈의 가정교육론은 오늘날 기독교 가정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의 한국 교회는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회 의존적인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을 위한 신앙지침서 부재와 그리고 가정의 교육적 권위 상실에 대하여 새롭게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2)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 교육을 위하여 세우신 학교이다. 이런 관점에서, 칼빈은 교회를 통하여 신자들의 기초 교육과 성장을 위한 양육 교육에 힘을 썼다. 특히 그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장년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장년 교리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장년들의 기초 교리교육을 성찬에 연결시켜 교육하였고, 일년에 네 번씩 '성찬 시험'을 보았다. 또한 설교를 '교회의 영'으로 보았던 칼빈은 설교의 교육적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는 설교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교리를 교육하고 전수시킴으로 신앙성장을 도모하였다.

칼빈의 교육적 관점에서, 치리도 역시 신자들의 삶을 교육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였다. 그는 교리를 교회의 영혼으로, 치리를 교회의 힘줄로 생각하였다.

그는 치리의 세 가지 목적을 언급하였다. 교회는 치리를 통하여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치리는 신자들의 부패를 미리 방지한다. 그리고 교회는 치리를 통하여 신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한다. 치리는 처벌적인 의미보다는 교

육적이고 치유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교리교육의 장인 교회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한국 교회가 현재 직면하는 문제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한국 교회는 새로운 신자와 기존 신자에 대한 교리교육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흥미 위주의 간증 집회나 감정적인 찬양 집회 그리고 무분별한 성령 운동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기초 교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목회적인 열정을 가져야 한다. 성찬식의 경우, 교회는 이 의식을 통하여 단순히 회개를 촉구하고 눈물과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에, 사전에 철저한 교리교육을 통하여 성찬이 주는 교리적 의미와 교훈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 교회는 교리 설교를 딱딱하고 사변적이고 주지적인 것으로 매도해 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은 감정적이고 흥미롭고 시사 중심적인 설교로 강단 사역을 변질시켜 버렸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칼빈의 설교 원리에 따라서 성경에 입각한 교리 설교로 신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신앙의 뼈대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치리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치리의 권위와 의미를 되살려 교회와 신자들의 부패를 방지하여야 한다. 덧붙여서 바르게 시행되는 치리는 치리가 없고 말씀의 권위가 추락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그런 치리는 교육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6) 칼빈의 교리교육론에 관한 현대적 평가와 적용에 대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현대에 적용할 때 그 유용성은 첫째, 성경 기초 교리 자료로 활용, 둘째, 신자의 기초 신앙관 확립과 기본 골격 제공, 셋째, 성경해석의 기본 원리와 방향 제공, 넷째, 기본적 삶의 원리와 지침서 역할 등이다.

(2) 현대 교육에 대한 공헌 가능성은 신앙교육 교재, 『신앙고백서』, 예전서, 기도서, 교리설교 자료, 목회상담 안내서, 변증서, 치리교육의 모형, 전도문서 등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그의 교리교육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즉 제한성은 첫째, 언어의 낙

후성과 커뮤니케이션 문제, 둘째, 교육 내용의 다양성 결핍, 셋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요청, 넷째, 하나님 나라 실현 방안 제시 미흡, 다섯째, 신앙 공동체 교육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자신의 시대에 국한된 신학자와 목회자의 범주를 뛰어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혁교회 교육신학의 기초 원리와 교육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위대한 기독교 교육사상 체계를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또한 칼빈은 현대 기독교 교육의 방법론을 강조하는 입장과 기독교 교육 원칙론만 고집하는 입장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수용적인 기독교 교육 원리와 방법론을 제시하여 준다. 그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교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교육적인 기능이 절대적임을 강조하였으며, 교회가 교육의 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이처럼 교육적인 안목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와 교회를 바라보았던 위대한 교육신학자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리의 총체인 『신앙교육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저서를 현대적 언어로 보완하고,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새로운 교육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제 문제를 보충하고, 현대적 교수-학습법에 따라 교리교육을 실시한다면 현재 혼란 가운데 있는 개혁주의 기독교 교육과 교육목회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신학의 지평을 열어주고 신앙교육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B. 제언

본 연구는 열 가지 점에서 개혁주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육목회에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신학자로서 칼빈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이 연구는 칼빈을 단순히 목회자 혹은 신학자로 이해하던 종전의 입장을 불식시키고 교육학자로서 교육목회자로 새

로운 인식을 가지게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종교개혁의 결실이 곧 교육 목회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늘날 위기 상황에 있는 한국 교회와 교계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교육개혁과 교육목회에 있다는 원론적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다.

둘째, 개혁주의 교육사상가로 칼빈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리가 교육의 목표요, 핵심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교리교육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철저한 교리교육은 한국교회에서 새로운 신앙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람하는 기독교 교육 교재 중 『신앙교육서』가 단순히 한 권의 책이나 자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실천적인 교육 지침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칼빈의 교리교육은 단지 교리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내면화 교육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교리의 세 차원인 인지적, 전인적, 발전적 차원 즉, 중생, 성화, 성숙으로 발전하는 내면적 과정은 곧 성장과 성숙의 내면적 교육 단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다섯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 활동, 설교, 성찬, 기도, 심방, 전도 등이 모두 교회의 기초요 생명인 교리를 정착시키는 일련의 교리교육과 상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섯째, 칼빈의 교육 현장론은 교육의 장인 가정, 교회, 학교 등이 각기의 현장에서 교육 원리와 방안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 관계성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을 제공해 준다.

일곱째, 칼빈의 교육사상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형식적이고 감정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는 성례전에 대한 교리적, 교육적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교육으로 사전 준비된 성례식은 교리가 깨우쳐지는 교육적 성례전이 되어야 함을 칼빈은 우리에게 보여 준다. 또한 치리의 교육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치리의 권위를 회복하는 교회 풍토 쇄신의 필요성 역시 보여주고 있다.

여덟째, 칼빈은 오늘날 우리에게 설교에 대한 회중들의 태도와 설교자의 자세에 대

하여 많은 경중을 올려 준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생명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리교육적 설교의 중요성을 그는 잘 보여 주고 있다.

아홉 번째, 교리교육이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필요하며, 교리를 떠나서 교회와 신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교리 평생 필요론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열 번째, 『신앙교육서』의 다양한 사용 가능성에 대한 안목을 보여 준다. 즉, 『신앙교육서』는 우리에게 단지 신앙고백서와 신앙 교재 정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서, 기도서, 상담서, 교리설교 자료, 변증서, 진도 및 선교 문서로서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본 연구 이후 후속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의 『신앙교육서』를 현대인의 신앙 수준, 연령 수준에 맞게 현대어로 번역, 보충,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칼빈의 『신앙교육서』의 현대적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사이버 시대를 활용한 『신앙교육서』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칼빈의 원 자료에 대한 깊은 연구와 언어적 한계를 가진 학도를 위하여 번역 자료들이 속히 나와야 하겠다. 넷째, 칼빈의 교리교육 혹은 교육론에 대한 심도 있고 총체적인 연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칼빈의 문헌 곧, 주석, 설교집, 편지, 법령집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를 제언한다. 다섯째, 칼빈의 교리교육론의 원리를 따라 '칼빈적 교육목회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임상 목회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강용원.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강희천. 『기독교 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김광욱. 『한국 칼빈 자료 100년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김재성. “『기독교강요』의 두 지평.”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신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39-68.
- _____.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 박건택. “자유 개념과 목회 사역.”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15-160.
- _____. 『칼빈과 설교』. 서울: 나비출판사, 1988.
-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서울: 성광문화사, 1998.
-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7.
-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9.
- 오인택. “성례법의 구속교육학적 기능.” 『복된 말씀』 27(2) (1979): 57-62.
- 유태주. “예정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18-353.
- 이수영. “경건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68-289.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정숙. “출교에 관한 존 칼빈의 신학과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활동.” 『최근의 칼빈 연구』.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06-329.

- _____. “칼빈 연구의 최근 동향.” 『신학 사상』 4 (2000): 231-246.
- 이종한. “갈뱅의 인간이해와 기독교 교육.” 장로회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87.
- 장훈태. “칼빈의 기도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90-317.
- 정성구. 『설교자를 위한 칼빈 신학 사전』. 서울: 총신대학교출판사, 2000.
- 정용섭.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 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7.
- _____.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7.
- _____.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여수분, 1999.
- 정정숙. 『기독교 교육 과정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부, 1980.
- _____. 『성경적 상담과 교육목회』.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0.
- 정준모. “복음전도 방법의 성경적 적용.” 『21세기 전도정책연구』. 총회전도정책위원회 편.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부, 2002: 41-52.
- _____. “왜 교리교육인가?” 『복음과 교육』 60(1) (2002): 6-11.
- 채규현. “목양과 목회상담.” 『성경과 상담』 1 (2001): 73-104.
- 최정만. 『칼빈의 선교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한철하. “신학방법: 칼빈의 과학적 신학방법.” 『최근의 칼빈 연구』.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67-87.
- 허호익.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 이해.” 『조직신학 논집』 2 (1996): 343-358.
- 황성철.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육신학 연구.” 총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_____.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 황정욱. “칼빈의 목회.”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73-280.

Achtemeir, Paul J.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Problems and Proposal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0.

Achtermeier, Mark. "Reflections on Calvin's Catechetics." *Calvin Studies* 6 (1992): 59-76.

Battles, Ford L. "John Calvin's Accommodation." *Interpretation* 31 (1977): 19-40.

Berkhof, Hendrikus.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Blauw, Johannes.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in Cross Road in Mission*. South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1.

Calhoun, David B. "John Calvin: Missionary Hero, or Missionary Failure." *Presbyterian Bulletin* 5 (1979): 16-33.

Calvin, John. 『신앙교육서』.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_____. 『신앙입문』. 최도형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_____. 『갈뱅의 요리문답』. 한인수 역. 서울: 도서출판 경진, 1995

_____. *Corpus Reformatorum*. Eds. Wilhelm Baum, Edward Cunitz, and Edward Reuss. Braunschweig: Schwetschke, 1863-1900.

_____. "Form of Administering Baptism."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Ed. and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115-120.

_____.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_____. *Ioannis Calvini Oper Quae Supersunt Omnia*. Eds. Wilhelm Baum, Edward Cunitz, and Edward Reuss. Braunschweig: Schwetschke, 1863-1900.

- _____.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s. Peter Barth, Wilhelm Niesel, and Dora Scheuner. Munich: Christian Kaiser Verlag, 1926-1952.
- _____. *Theological Treatis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Series. Vol. 22. Trans. J. K. S. Rei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25-33.
- _____. *Old Testament & New Testament Commentaries*. 42 Vols. Eds. David F.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72.
- _____. *Supplementa Calviniana Sermons Inédits*. Ed. Erwin Mühlaupt.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36.
- Caswell, R. N. "Calvin's View of Ecclesiastical Discipline." *A Collection of Distinguished Essays*. Ed. G. E. Duffield. Grand Rapids: Wm. B. Eerdmans Co., 1966: 210-222.
- Chambelin, J. Gordon. 『새로운 기독교 교육의 접근』. 신서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Cochrance, Arthur C.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Centu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 Cross, F. L.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DeJong, Peter Y. "Calvin's Contributions to Christian Educatio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4) (1967): 160-201.
- _____. "Bible and Creed." *Outlook* 1 (1988): 17-20.
- Dendy, Marshall C. *Changing Patterns in Christian Education*. Richmond: John Knox Press, 1964.
- Doumergue, Emile.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Dyken, Donald Van. *Rediscovering Catechism*. New Jersey: P&R, 2000.
- Eavey, B. S. 『기독교교육사』. 김근수, 신칭기 공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6.
- Eby, Frederick. *Early Protestant Educator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31.
- Forsyth, P. T. *Positive Preaching and the Modern Min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2.
- Gangel, Kenneth O. 『기독교교육사』. 유재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George, Timothy. "The Church as Congregation." *Calvin Studies* 2 (1984): 11-16.
- Gerrish, Brian A. *Grace and Gratitude: The Eucharistic Theology of John Calvi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Groome, Thomas H. 『기독교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예장총회출판사, 1983.
- _____. *Sharing Faith: The Way of Shared Praxis*. New York: Harper Collins, 1991.
- Guralink, David. *Webster's New Word Dictionary of the American Language*.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70.
- Harper, Norman Edmond. "A Comparative Study of the Educational Information of the Thought of John Calvin and Søren Kierkegaard."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1966.
- Hedtke, R.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 Heidelberg: Quelle & Meyer, 1969.
- Hoekema, Anthony.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Wm Eerdmans Publishing Co., 1979.

- Holl, Karl.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Tübingen: Der Westen, 1928.
- Hwang, Sung Chul.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within A Calvinistic approach to theology." Ed. D. Dissertation.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7.
- Johnson, Robert C. *Authority in Protestant Theolog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9.
- Johnson, Thomas Gary. *John Calvin and the Genevan Reformation: A Sketch*. Richmond: The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1900.
- Lee, James M. "Religious Education and the Bible." *Biblical Themes in Religious Education* 9 (1983): 35-40.
- Leith, John H.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 서울: 반석출판사, 1992.
- Lohse, Bernhard. 『기독교 교리의 역사』. 차종순 역. 서울: 목양사, 1986.
- MacDonald, William. 『사도행전 주석』. 송기섭 역. 서울: 전도 출판사, 1996.
- McKim, Donald K.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McNeil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Miller, Randolph C. 『기독교 종교교육과 신학』. 고용수, 박봉수 공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8.
- Monter, Willam E. *Calvin's Geneva*. New York: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75.
- Murray, John.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0.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 Oates, Wayne E.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Broadman, 1959.
- Park, Sang Il. "The Implication of John Calvin's Doctrine of Educ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in Korean-American Church." Ph. 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94.
- Parker, T. H. L.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Peter, Rodolphe. "The Geneva Primer, Or Calvin's Elementary Catechism." *Calvin Studies* 5 (1990): 135-161.
- Ramm, Bernard. 『변증학의 본질과 역사』. 김종두 편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 Raynal, Charles. "The Place of the Academy in John Calvin's Polity." *Calvin Studies* 2 (1990): 92-103.
- Reid, W. Stanford.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8(11) (1995): 1-33.
- Schaff, Philip. 『신조학』. 박일민 편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4.
- Sherill, Lewis J.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 1953.
- Stott, John R. W. *Between Two the World*.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Co., 1994.
- Thompson, Merrit M. *The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Barnes & Noble, Inc., 1951.
- Torrance, Thomas F. *The School of Faith: The Catechisms of the Reformed Church*. London: James Clarke & Co., 1959.

- Tow, Timothy.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임성호 역.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 Towns, Elmer L. 『기독교 교육과 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1.
- Vollmer, Philip. *John Calvin: Theologian, Preacher, Educator, Statesman*. Philadelphia: The Heidelberg Press, 1909.
- Warfield, B. B. "The first Question of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6 (1908): 565-587.
- Westerhoff III, John.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0.
- Whale, J. S. *The Tradition of Protestan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60
- White, Robert. "The School in Calvin's Thought and Practic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1(12) (1969): 5-15.
- Wynn, John. *Christian Education for Liber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77.

A STUDY ON JOHN CALVIN'S THEORY OF CHRISTIAN EDUCATION THROUGH CATECHISM

-THEOLOGICAL ANALYSIS OF CATECHISM AND
ITS APPLICATION TO KOREAN CHURCH-

Jun Mo Jeong

Department of Theology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Woo Sung Oh & Kyoo Min Lee)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alvin's theory of doctrinal education and ascertain the possibility of its contemporary application. To attain this objective I have attempted to conduct this research based on Calvin's Catechism, the aggregation of the Christian doctrines and the guideline for doctrinal education, in the following areas: its doctrinal analysis and theological exposition, a contemporary educational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Calvin's theory on doctrinal education, an understanding in practical education theory in such venues as home, church and school, as well as its contemporary educational assessment and applicability. The findings of this dissertation paper comprised of seven chapters are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addresses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ology and modern science, which has become a hot topic of discussion in Christian education circles. The very foundation of Christian faith and education is at risk as today's Reformed Church is confronted with a dire crisis of desertion sound doctrines, which is the nucleus of Christian education, by indiscriminately adopting secular socio-scientific methodologies into the sphere of Christian education without undertaking careful exa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theology. In the midst of this daunting crisis, there exists an urgent need to firmly establish the purpose and direction to the educational theology and ministry of the Korean Church, which is currently in the state of confusion, by the means of rediscovering the thoughts and principles underlying

Calvin's doctrinal education theory, which once paved a way for the structural foundation for the Reformation's educational theology.

The research is to discover within the Catechism doctrine the theological principles and educational objectives from sermons, writings, laws and correspondences during the Geneva pastoral activities. To research the Christian educational principal standards and systematic methods, I focused on Calvin's pastoral activities, theological thoughts, and practice through the literature and pasturing at the Geneva Academy. The following research is the summary and conclusion of Calvin's educational thoughts and general educational methods.

The following contents are the research from the second chapter. The origin of Catechism came through the speeches, literature, and teachings from the Greece language called 'κατηχέω'. 'κατηχέω' is referred as the Catechism, Catechism, and study doctrine.

The Catechism was used to teach the Christian faith through basic doctrines and faith education to children, new in faith, and ministers of faith. Calvin's Catechism was used to defend the Christian Faith against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 Catechism was used to teach and familiarize the believers with basic doctrines by helping them understand the essence and the core of the Christian faith. Calvin's Catechism was the foundation and tradition for Reformed Churches Q&A books for England, Germany, Western Europe Minister and United States. Calvin's Catechism was translated into Italian, Spanish, Latin, Netherlands, Germany, English, Hungarian, and many other countries of Western Europe and Europe. The translated Catechism became the backbone and the life line teachings of the church doctrine and faith education for the reformed churches of the world.

The third chapter focuses on the doctrine analysis and the teaching notes. The Catechism, understood by Calvin as the lifeline of the church educational doctrine, is analyzed in its entirety and built as a whole. By the seven theological subjects (the Knowledge of God and man, God's law, faith, the Apostles' Creed, prayer, sacraments,

and church and state). The seven theological subjects are analyzed in its entirety by looking at Calvin's Christian elements, other writings, and theological pistons from Calvin's disciples. I commented on the theological theme's entirety to be used for the educational purposed by believers. Calvin understood the scope of the church as education. The basis of Calvin's theological education is the combination of theory and practice. The doctrine is to become Calvin's basic theology. The overall doctrine is the Catechism. The understanding of Calvin's doctrine is to know the basis and disposition of his educational thoughts. I took the basis of his doctrine from his sermons, Catechism, Christian writings, ceremonies, and theological and pastoral practices. I view Calvin's doctrine as the basis and beginning of the church Calvin viewed the doctrines as the biggest factor bestowing the authority to the church. Calvin viewed the prophets and apostles doctrines as the origin of the church.

In the fourth chapter, the research is focused on the theory of Calvin's doctrinal education and its teaching method. Calvin viewed the doctrine as the basis of theology and the church. Calvin did not use modernized Christian concepts nor the terminology but he included within the doctrine concept the educational focus, educational contents, and educational principles. Calvin discovered an Christian educational dimension under the combined lyricism between doctrine and within the salvation education dimension coming from the new dimension of Calvin's doctrine; precisely, in the recognizable dimension, whole person dimension, and the developed dimension. Calvin's interest was in the need of believers' basis in the doctrines and the need to be lead to a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believers' salvation through maturity and growth. Calvin viewed the Catechism as the basis and mold for the church. He believed that the Catechism as the essential material which functioned adequately to fulfill the generation shift of family and church. The purpose of Geneva Catechism is written for all people as a guide. Also, the Catechism was written to provide a guide for people to distinguish false doctrine provided by arrogant people, to secure from the ignorance and short comings of pastors and pastoral candidates, to present the people of high class the accord and mutual

agreement of all the church, and finally to use it as the representative guide for new doctrinal fads brought on by lazy people who craze only for illusions. Calvin saw the church as a place commissioned by God for the mission of educating His people. As seen through Calvin's activities in Geneva, the church is a tunnel for God's people through teaching of Catechism, sermons, discipline and sacraments. Calvin did not limit the education for children or the youth but an existing suspended spiritual fire of lifetime for all people. Calvin viewed the overall comprehensive subject of the church is to foster. Within the realm of fostering, Calvin understood the fruits of the church activity and life. Calvin emphasized that the school is a place of God's education and has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family and church. This education must include Catechism, teachings of the scripture, worship and prayer services, and attendance to Sunday services and the sacrament.

The fifth chapter is about Calvin's church history reconstitution and his education theology analysis. Calvin thought that God's education is the educational process curriculum for God's believers as students through history of God's salvation through the Bible and the gradual history of revelation. Calvin viewed the activities of the church as a chain of events that ultimately focused or matured the believers' faith. Calvin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church activities and missions to include sermons, sacrament, and disciplines as God's education for salvation. For this, the research is to discover Calvin's situation and ideology through his fragmented practical educational activities and many of his writings. Calvin stressed that as God's church being God's school, as believers being God's students, using the mouth of ministers and pastors as teachers of God's church, the bible must be used as a text book for God's school to bring salvation in accordance with God's recognition.

In the sixth chapte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on Calvin's doctrinal education theory with respect to its contemporary assessment and applicability:

First, its usefulness in terms of contemporary applicability are as follows: as a basic biblical resource, in establishing new believers' fundamental beliefs and structure, in

providing basic principles of scriptural interpretation, and as a valuable tool by offering life principles and guidelines.

Second, its contributions to modern education are as follows: textbooks for Christian education, confession of faith, liturgy, prayer, doctrinal sermons, pastoral counseling, apologetics, ecclesiastical discipline, and evangelistic literature.

Third, the limitations of its applicability are as follows: communication problems arising from linguistic differences, a lack of diversity in educational contents, a need for divers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sufficient direction on how to "implement" the Kingdom of God on earth, and deficiencies in effectively educating the entire congregation as a whole.

In conclusion, Calvin is esteemed to have been a man of great Christian educational mind who establish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educational guidelines for the Reformed Church of his time and the modern era, surpassing the mediocrity of his contemporaries. In addition, Calvin's doctrinal education theory is thought to be comprehensive and encompassing of different Christian educational viewpoints in that it is simultaneously critical and embracing of both a view overly emphasizing modern Christian educational methodology and another view only insisting on the adherence to the educational principles. He stressed the fact that the role of Christian education is imperative for the Reformation Movement have indelible impact in the long run and that the Church should have the supreme authority as a venue for education. Calvin was a colossal educational theologian, who possessed an uncanny educational insight, with which he viewed God and man, and the world and the Church. If Calvin's Catechism were to be revised into modern languages, supplemented with diverse problems unique to today's society and put into practice with strict adherence to the current teaching-learning methodology, it would undeniably open up new horizons for educational theology in the sphere of the Reformed Christianity, whose very root is under attack, and be widely utilized as valuable resources for Christian education.

존 칼빈의 교리교육론에 관한 연구
-『신앙교육서』의 교리 해석과 실천 방법론에 따른
현대 교육목회에의 적용 가능성 중심으로-

정 준 모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 학 과

(지도교수 오우성, 이규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칼빈의 교리교육론을 분석하고 현대 교육목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교리의 총체이며 교리교육 지침서로 작성된 칼빈의 『신앙교육서』에 대한 교리적 분석과 신학적 해석, 그의 교리교육론에 대한 현대 교육신학적 해석, 교리교육 실천의 장인 가정, 교회, 학교 등의 교육 현장론에 대한 이해 및 현대 교육적 평가와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문헌 중심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최근 기독교 교육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고의 쟁점인 신학과 사회과학의 상호 관계성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개혁주의에 입각한 교육신학적 검증 없이 무비판적인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신앙의 본질과 기초 신앙교육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인 교리를 의면해 버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 교육신학의 기틀을 마련한 칼빈의 교리교육 사상과 원리를 새롭게 조명함을 통해 혼란 속에 있는 한국 교회의 교육신학과 교육목회 현장에 새로운 지표와 방향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제 2장에서는 『신앙교육서』가 작성된 역사적 배경과 본서가 후대 개혁주의 『신앙교육서』와 『신앙고백서』 작성에 미친 영향과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칼빈은 『신앙교육서』를 교회의 기초와 틀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으며, 가정과 교회와 세대를 넘어 기독교 진리를 전수하며 교육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확신하였다.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

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전수하고 교육하는 데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신앙교육서』는 어린이와 초신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까지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교리와 신앙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신앙교육서』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격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변증서로서 신자들에게 기초교리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신앙교육의 본질과 핵심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신앙교육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리교육에 적합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제네바 교회를 비롯하여 개혁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안정된 교회 생활과 성숙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적절한 것이었다. 『신앙교육서』는 개혁교회의 뿌리와 전통을 이어 유럽 각국의 『요리문답서』를 작성하는 데 모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서』는 서구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개혁교회 안에서의 교리교육과 신앙교육의 증추적 자료로 사용되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원리와 교회 뼈대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제 3장에서는 교리교육의 집합체인 『신앙교육서』에 포함된 일곱 가지의 신학적 주제 영역들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교회의 모든 영역을 교육적 차원으로 이해하였던 칼빈은 이론과 실천의 조화 속에서 그의 교육신학적 기초를 세웠다. 교리는 그의 신학에 기초가 되었으며, 『신앙교육서』는 바로 교리의 총체가 된다. 그러므로 칼빈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의 교육사상의 기초이며 바탕인 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설교, 『신앙교육서』, 『기독교강요』, 성례전 등 그의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모든 활동에서 교리를 기초로 삼았다. 칼빈은 교리를 교회의 시작과 기초로 보고, 교리야말로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다.

제 4장에서는 칼빈의 교리교육론을 현대 교육신학적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기독교 교육 원리와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에, 그는 현대 기독교 교육적 안목을 능가할 만큼의 교육철학과 교육원리와 교육사상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사상과 원리를 제네바 교육목회를 통하여 실천하였다. 그는 『신앙교육서』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교리와 신앙교육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신앙교육서』는 기초교리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신앙교육의 본질과 핵심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칼빈은 교회의 모든 영역을 교육적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기독교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리라는 개념 속에 기독교교육의 목표, 내용, 원리가 내포되어져 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구원 교육론적 차원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과 사역을 이해하였다. 그는 남녀 성별의 차이나 연령에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참된 경건을 위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평생 신앙교육론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신앙이 약한 자들의 교육을 위한 '가나다' 기초 교육론을 강조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백성인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관점을 두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교사로 자신을 조절하시어 그 백성을 교육하시는 분으로 보았으며, 이것을 그의 교육적 목회 원리에 적용하여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리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교리교육론이 현대 교육신학과 교육목회에 시사하는 점은 첫째는 기독교교육의 핵심이 교리에 있다는 교리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리교육 교재 발간, 교육적 자료와 방법론 연구를 위한 자각과 실천이 요망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 학교'로서의 교회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교육적 교회론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교육 목회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교육적 의미를 전달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교육적 안목과 계획, 교육 방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신앙 성숙도에 있어서 초신자부터 성숙한 신자까지, 연령별로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눈높이에 적합한 교리교육을 실시하되, 기초 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 교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 5장에서는 칼빈의 『신앙교육서』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칼빈의 교육윤리 및 교리 교육 현장론을 성찰해 보았다. 가정, 교회, 학교라는 교육의 세 장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도 심도있게 언급하고 있다. 칼빈은 우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리교육을 중시하였다. 그는 가정을 하나의 작은 교회로 생각하였고, 가정교육을 교회교육의 연장선 속에서 생각하였다. 그에게 교회는 가정의 이상적인 모델이었다. 칼빈은 가정교육을 교회교육의 일부분으로 보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서』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과 교회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칼빈의 가정교육론은 오늘날 기독교 가정의 신앙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신앙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의 교육적 권위 상실에 대하여 새롭게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 교육을 위하여 세우신 학교라 할 수 있다. 칼빈은 교회를 통하여 신자들의 기초 교육과 성장을 위한 양육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그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뿐 아니라, 장년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장년 교리교육도 강조하였다.

제 6장에서는 칼빈의 교리교육론에 관한 현대적 평가와 현대 교육 목회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대적 적용에서의 유용성은 성경 기초교리 자료로 활용, 신자의 기초 신앙관 확립과 신앙의 기본 골격 제공, 성경해석의 기본 원리와 방향 제시, 그리고 기본적 삶의 원리와 지침서로서의 역할 등이다. 현대 교육목회에의 공헌 가능성으로서 신앙교육 교재, 신앙고백서, 예전서, 기도서, 교리설교 자료, 목회상담 안내서, 변증서, 치리 교육의 모형, 전도문서 등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의 교리교육론의 현대목회에의 적용제한성은 첫째, 언어의 낙후성과 커뮤니케이션 문제 둘째, 교육 내용의 다양성 결핍 셋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필요성 넷째, 하나님 나라 실현 방안 제시 미흡 다섯째, 신앙공동체 교육의 방법론 제시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자신의 시대에 국한된 신학자와 목회자의 범주를 뛰어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혁교회 교육신학의 기초 원리, 교육 지침, 방향성 등을 제시해 주는 위대한 기독교교육 사상가로서 평가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칼빈은 기독교 교육 방법론을 강조하는 입장과 기독교교육 원칙론만 고집하는 입장 모두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포괄적이고 수용적인 기독교 교육 원리와 방법론을 제시하여 준다. 그는 장기적 안목에서 종교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교회가 교육의 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칼빈은 이처럼 교육적 안목으로 하나님, 인간, 세계, 교회를 바라보았던 교육신학자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리의 총체인 『신앙교육서』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하고,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안내 지침들을 보완하며 현대적 교수-학습법을 활용해서 교리교육을 실시한다면, 개혁주의 교육목회를 위한 교육신학적 새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 논문 저자 약력

1955년 경남 울산 출생

대구교육대학교 졸(A.A)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 졸(B.A)

영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M.A)

총신신학대학원졸(M. Div)

총신대학 대학원졸(Th. M)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 졸(Th. M & Doctor of Missiology)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Ph. D) 취득 예정

천안대학교 및 기독교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수, 대구대학교 및 총신대학교 강사

대구 성명교회 담임목사(현)

계명대학교 대학원, 대신대학교 대학원 강사(현)

□ 논문 및 저서

1) 논문

『학교의 사회적 풍토와 아동의 사회화』,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성경 영감 교리에 대한 교회사적 고찰과 성경적 내증』, 총신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사무엘 F. 무어 선교사의 백성 해방 운동』, 총신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A Proposal for the Korean Church’s Mission Strategy toward Mainland China according to an Analysis of Past Mission Efforts and of Chinese Culture and Religion.” D. Miss. Dissertatio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1992.

2) 저서

『21세기 제자는 십자가 흔적을 가져라』, 서울: 은혜출판사, 1997.

『21세기 교사는 지도자 영성을 회복하라』, 서울: 은혜출판사, 1998.

『21세기 성도는 삶으로 아멘을 말하라』, 서울: 은혜출판사, 1999.

『사무엘 F. 무어 선교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은혜기획, 2000.

『21세기 사도행전적 모델교회』, 서울: 은혜출판사, 2000.

『기독교 교육과 교사 영성』, 서울: 은혜출판사, 2001.

『비전 공동체 셀 교회』 시리즈 10권, 서울: 은혜출판사, 2002.